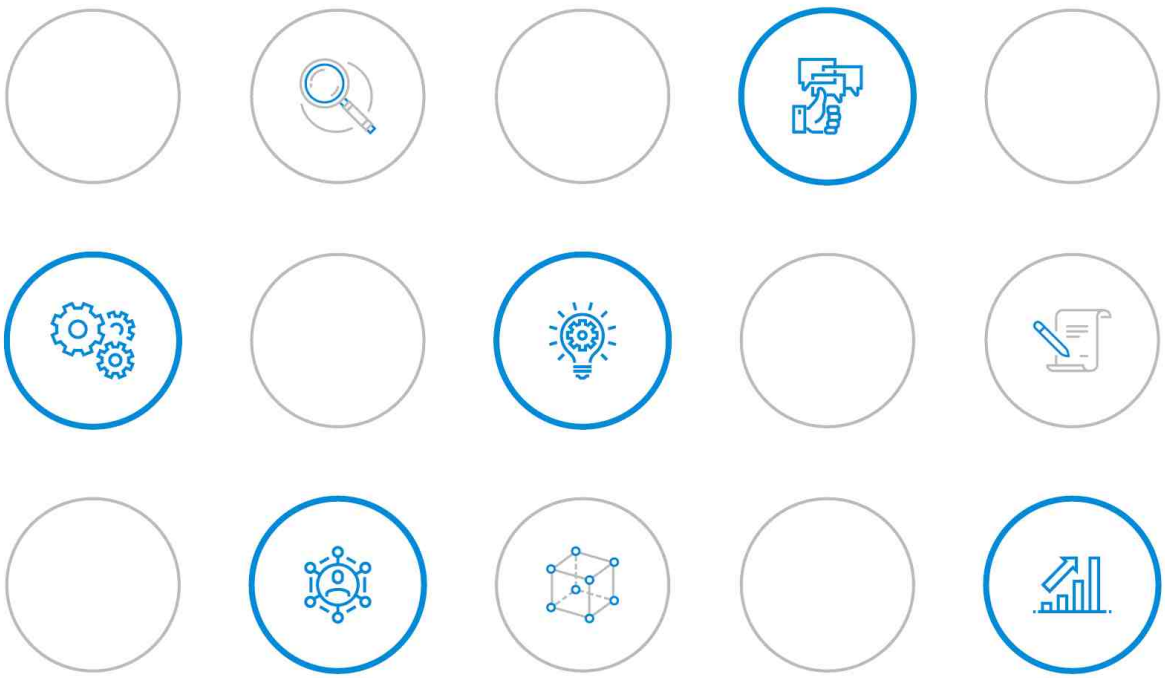
정책 26-03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주요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llenge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Goyang Special City

• 김용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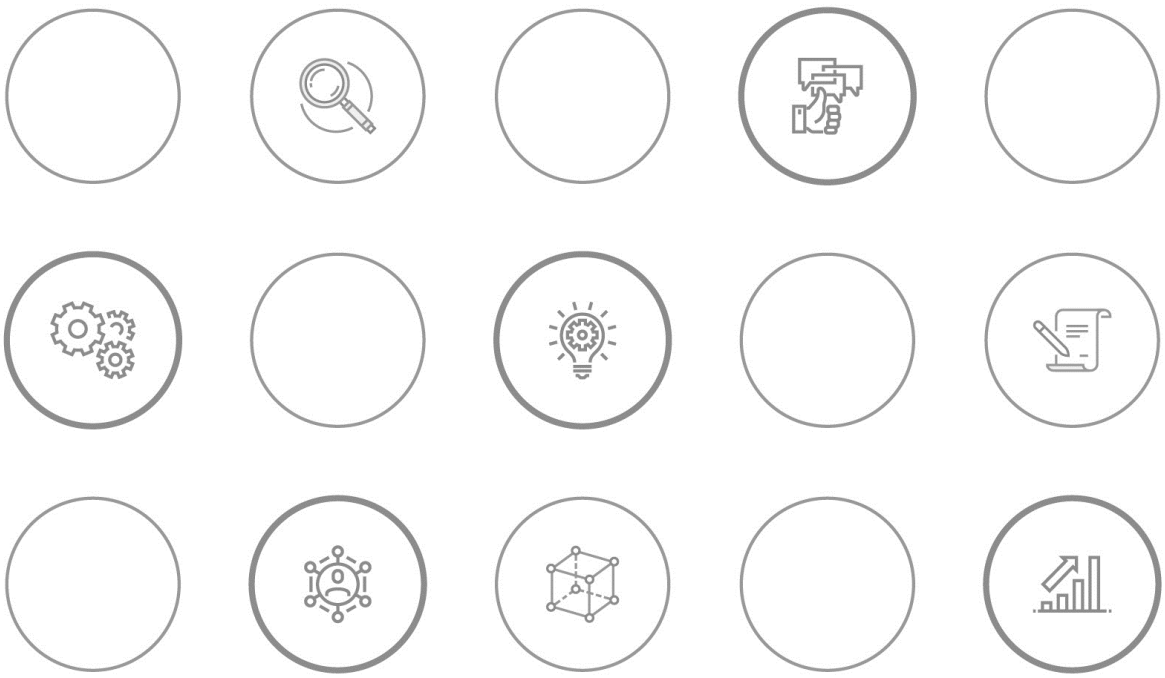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

정책 26-03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주요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llenge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Goyang Special City

• 김용덕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주요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llenge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Goyang Special City

연구책임자

김용덕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실장

연구진

박종윤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지윤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연구지원

이기엽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김민서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인턴

이지영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인턴

오채영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인턴

정 책 제 안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 기본방향

●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 (핵심전략산업 타깃 유치) 콘텐츠, 바이오, MICE, ICT 연계 서비스, R&D 기능 산업이 우선 유치 대상
- (잠재 강점국 우선 공략) 투자국별 특성과 산업 적합성을 고려한 타깃형 접근 필요
- (인센티브 패키지 강화) 전통적인 법인세 감면 중심에서 비세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등화된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체계 구축

- (사후관리와 재투자 유도) 유치 이후 정착과 재투자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전담조직과 원스톱 지원) 외국인투자 전담부서 또는 행정·법률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풀과 창업지원) 관내 대학과 연계한 인턴십 및 취업매칭 프로그램 구축

● 정주·산업 인프라 기반 마련

- (정주 친화형 거점 조성) 외국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글로벌 빌리지 조성
- (외국인투자지역(FIZ)와 산업거점 조성) 일산테크노밸리 혹은 일산서구 산업 다각화 거점에 단지형 FIZ 지정 추진, 소형 산업단지 형태의 신규 거점 조성
-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마케팅) 도시계획, 환경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TF를 운영하여 사전 설계부터 대응, GTX-A 개통 효과 활용

● 글로벌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

- (MICE 융복합 거점 조성) 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거점 조성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과 연계, 전용 입주공간 확보, 우선 입주구역 지정

요 약

1.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특징

□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범위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으로 정의되며, 단순 금융투자와 달리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장기적 투자관계를 전제
- 투자 유형은 신설투자(Greenfield), 인수합병(M&A), 합작투자(Joint Venture), 장기 차관 대여, 비영리법인 출연, 이익 재투자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 지점·연락사무소 간 법적 지위와 혜택에 명확한 차이 존재
  - 외국인투자기업은 인센티브 대상, 지점·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 아님

□ 외국인투자기업 특징

- 소유구조 측면에서 다국적기업 자회사, 합작법인, 독립법인 형태가 주를 이루며, 모기업 50% 이상 지분 보유 시 강력한 경영권 행사
- 글로벌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R&D 및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상 기술 이전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 성과 중심·수평적 조직문화, 유연근무, 다양성 존중 등 선진 경영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국내 기업과의 조직문화 차이가 존재하며, 현지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 가능성 내포
- 긍정적 효과(고용 창출, 기술 이전, 산업 고도화)와 부정적 효과(산업 공동화, 기술 유출, 고용 불안정)가 동시에 존재하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가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2.3배 수준으로 유출 편중 구조 문제 제기

2.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분석

□ 연도별 등록 추이

- 2025년 말 기준 누적 19,628개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본격 활성화되었으며 2021년 이후 역대 최고 활황기 진입(2020~2025년 연평균 1,359개 신규 등록)
- 최근 6년 신규 등록이 전체 누적의 41.5%를 차지하여 신생 기업 정착·성장 지원이 정책 핵심 과제로 부상

□ 지역별·업종별 구조

- 수도권(서울 49.1%, 경기 21.1%, 인천 10.2%) 3개 시도가 전체의 80.4%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
- 업종별로는 도·소매(유통)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순 무역·중개 기능 기업 비중이 높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필요성 존재
- 투자국별로는 중국(16.6%)·일본(13.8%)·미국(13.0%) 3개국이 전체의 43.4% 차지, 최근 6년간 일본 비중 급락 및 중국 의존도 심화 추세

□ 주요 도시별 비교 분석

- 경기남부(3,458개)와 경기북부(689개)는 약 5:1수준의 격차를 보이며, 경기북부의 도·소매 편중도(69.5%) 역시 남부(45.8%)보다 약 24%p 높아 산업구조의 편중 현상 강화
-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1위(170개)이나 경기 전체에서는 11위로 중상위권에 그치며, 최근 6년간 파주시(73개)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경기북부 내 1위 지위가 변화할 가능성 존재

3.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역량 분석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총 170개(경기북부 1위, 경기 전체 11위)로 경기북부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나, 경기남부 상위 도시와 비교할 경우 절대적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세에서도 파주시에 미치지 못하면서 성장 정체 가능성 존재

- 업종별로는 도·소매(60.6%) 편중이 두드러지나, 제조업(18.8%)과 연구개발·정보통신(3.5%) 비중은 경기북부 내 상대적 강점 보유

□ DNA 모델 기반 역량 분석

- (입지·인프라 측면) GTX-A 개통, 서울 인접성, 공항 접근성 등 우수한 물적 기반을 보유하나,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대형 제조업 유치에 구조적 제약 존재
- (강점) 기술잠재성 및 생산효율성 분야는 현행 취약점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분류되며, 기업수익성·재무건전성은 현재 강점이나 잠재적 하락 가능성 존재
- (약점) 인적 자원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유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며, 고급 R&D 인력의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한 채용 구조적 한계 지속

4. 국내외 외국인투자 유치 주요 정책

□ 국내 사례

- 수원(반도체·AI), 용인(반도체 벨트), 인천(바이오·물류), 대구(모빌리티·로봇) 등 각 도시는 지역 고유의 산업 정체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체계 정비
- 원스톱 행정 지원,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후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이 투자유치 성과의 공통 요인으로 확인

□ 해외 사례

- (런던) London&Partners를 통한 전문 투자유치 기관 운영, 창조산업 세제혜택(CITR) 및 기업특구(Enterprise Zone) 제도로 핀테크·창조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 (네덜란드) 혁신박스(Innovation Box), WBSO(R&D 세액공제), 외국 인재 비과세 수당(30% Ruling) 등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싱가포르) EDB 중심의 원스톱 지원, RIC(투자금 최대 50% 세액공제 후 현금 환급), Tech@SG 등 첨단기업·고급 인재 특화 유치 체계 운영

□ 시사점

- 세제 혜택·인센티브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우며, 인프라 선제 구축 → 앵커 기업 유치 → 클러스터 자생적 형성의 단계적 전략 전환이 핵심
- 고양특례시 특화 산업(콘텐츠·바이오·MICE)에 맞는 업종별 인센티브 설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타깃형 IR 활동 강화 필요

5.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 고양특례시의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는 단순한 기업 수 확대가 아니라, ① 핵심전략산업 유치 · 재투자 유도, ② 전문인력 확보 · 정착 지원, ③ 산업·정주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술잠재성과 생산효율성에서 개선 여지가 크고, 인적 자원 부족이 핵심 제약요인으로 도출
- 국내외 사례에서도 투자유치 성과는 세제 혜택만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전담조직, 원스톱 지원, 사후관리, 산업특화 전략이 결합될 때 높은 효과
- 고양특례시의 여건에 맞춰 유치전략, 인센티브, 사후관리, 전담체계, 인력매칭, 정주·산업기반을 통합적으로 제시

그림 1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전략**



〈자료〉 연구진 작성.

목차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특징 7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범위 9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특징 19

제3장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분석 21

제1절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23
제2절 주요도시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비교분석 4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56

제4장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역량 분석 59

제1절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분석 61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DNA 모델 기반 역량 분석 8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92

제5장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외 주요정책 93

제1절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95
제2절 국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1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6

제6장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129

제1절 기본 방향 131

제2절 세부 추진방안 131

참고문헌 135

Abstract 143

표 목차

표 2-1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 비교 ····· 11
표 2-2 | 외국법인 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 구분 ····· 11
표 3-1 | 외국인투자기업 연도별·기간별 등록 추이 (1963~2025) ····· 24
표 3-2 | 시도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 25
표 3-3 | 표준산업중분류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2025년 말 기준) ····· 26
표 3-4 | 투자국가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 27
표 3-5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29
표 3-6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규모별 현황 ····· 29
표 3-7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별 현황 ····· 30
표 3-8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인증정보별 현황 ····· 30
표 3-9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별 현황 (표준산업분류 11차) ····· 31
표 3-10 | 2024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연도별 현황 ····· 33
표 3-11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추이 ····· 33
표 3-12 | 2015년~2024년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영업기업) ····· 34
표 3-13 | 외국인투자기업 매출액 추이 ····· 36
표 3-14 |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이익 추이 ····· 37
표 3-15 | 외국인투자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 38
표 3-16 | 외국인투자기업 자산 추이 ····· 39
표 3-17 | 외국인투자기업 자본 추이 ····· 40
표 3-18 | 외국인투자기업 부채 추이 ····· 41
표 3-19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수 및 증감률 ····· 42
표 3-20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수 및 증감률 ····· 42
표 3-21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총 고용인원 수 및 증감률 ····· 42
표 3-22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총 고용인원 수 및 증감률 ····· 43
표 3-23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매출액 ····· 43
표 3-24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매출액 및 증감률 ····· 43
표 3-25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수출액 ····· 44
표 3-26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수출액 및 증감률 ····· 44
표 3-27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 44

표 3-28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 45
표 3-29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 ····· 46
표 3-30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 및 증감률 ····· 46
표 3-31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고용인원 수 ····· 46
표 3-32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고용인원 수 및 증감률 ····· 47
표 3-33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매출액 및 증감률 ····· 47
표 3-34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매출액 및 증감률 ····· 47
표 3-35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 48
표 3-36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 48
표 3-37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비교(2025년 말 기준) ···· 49
표 3-38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구성 비교 ····· 50
표 3-39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투자국가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 51
표 3-40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누적 및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비교 ····· 52
표 3-41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구성 비교 ····· 53
표 3-42 | 경기도 31개 시군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순위 (상위 15위) ····· 55
표 4-1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연도별·기간별 등록 추이 (1963~2025) ····· 62
표 4-2 | 고양특례시 구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 62
표 4-3 | 고양특례시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별 분포 (2025년 말 기준) ····· 63
표 4-4 | 고양특례시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국가별 분포 (2025년 말 기준) ···· 65
표 4-5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66
표 4-6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별 현황 ····· 67
표 4-7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별 현황 ····· 68
표 4-8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인증정보별 현황 ····· 69
표 4-9 | 2024년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별 현황(표준산업분류 11차) ·· 70
표 4-10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연도별 현황 ····· 72
표 4-11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종사자 추이 ····· 73
표 4-12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매출액 추이 ····· 74
표 4-13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영업이익 추이 ····· 75
표 4-1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당기순이익 추이 ····· 76

표 4-15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자산 추이 ····· 77
표 4-16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자본 추이 ····· 78
표 4-17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부채 추이 ····· 79
표 4-18 | 기업 DNA 모델에서 도출된 7가지 지표 ····· 82
표 4-19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기업 DNA 모델 분석 결과 ····· 84
표 4-20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전략적 활용 방안 ····· 85
표 4-21 | 고양특례시와 경기북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1 ····· 87
표 4-22 | 고양특례시와 경기북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2 ····· 87
표 4-23 | 고양특례시와 경기남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1 ····· 88
표 4-24 | 고양특례시와 경기남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2 ····· 89
표 4-25 | 고양특례시와 기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1 ····· 90
표 4-26 | 고양특례시와 기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2 ····· 90
표 4-27 | 고양특례시와 타 특례시 간 심층 비교 분석_1 ····· 91
표 4-28 | 고양특례시와 타 특례시 간 심층 비교 분석_2 ····· 91
표 5-1 | 수원특례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입지 ····· 95
표 5-2 |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96
표 5-3 | 수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 97
표 5-4 | 수원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98
표 5-5 |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주요 거점 현황 ····· 99
표 5-6 | 용인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조례 ····· 100
표 5-7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구별 사업 현황 ····· 103
표 5-8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 104
표 5-9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공통 인센티브 ····· 105
표 5-10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 107
표 5-11 | 대구광역시 5대 신사업 주요 클러스터 입지 ····· 109
표 5-12 |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110
표 5-13 | 외국인투자기업 입주기업 인센티브 ····· 111
표 5-14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입주기업 인센티브 ····· 112
표 5-15 | 대구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114

표 5-16 | 대구광역시 주요 투자기업 현황 ····· 114
표 5-17 | 영국 법인세 비율 ····· 116
표 5-18 | 영국 HMRC의 벤처캐피털 세제혜택 제도 ····· 117
표 5-19 | 영국 콘텐츠 · 문화산업 세제지원 제도 ····· 118
표 5-20 | 영국 Enterprise Zone 주요 인센티브 ····· 119
표 5-21 |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 ····· 119

그림 목차

그림 1-1 | 본 연구의 연구 체계 ····· 6
그림 3-1 | 연도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수 ····· 24
그림 4-1 | 기업 DNA 모델 알고리즘 ····· 81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 심화

○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 및 자족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억 달러)[1] : (2022) 304.4 → (2023) 327.1 → (2024) 345.7 → (2025) 360.5

○ 특히, 반도체, 바이오, AI·디지털 산업 등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외국인투자기업은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투자유치 중요성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 심화와 고양특례시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 심화

○ 인천·부산·대구·세종 등 주요 경쟁 도시는 경제자유구역(FEZ) 운영, 세제 감면, 규제 특례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하고 있는 상황

○ 반면, 고양특례시는 수도권 인접성, 우수한 교통·인프라 등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및 수도권 규제와 경제자유구역 미지정에 따른 제도적 한계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제한적인 상황

1)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각 연도.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 최근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지속

○ 또한,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연구용역,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와의 업무협약(MOU) 등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 그러나 업무협약, 투자 의향서 체결 단계에서 실제 기업 정착 단계로 이어지기 위한 행정 지원체계, 산업 연계 전략,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구축 등 여전히 보완 필요

○ 또한,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현황, 투자 특성 및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중장기적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한계 존재

2. 연구 목적

□ 고양특례시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분석 및 유치 경쟁력 진단

○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규모별 특성과 고양특례시의 투자환경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기반과 잠재력 검토

□ 국내외 타 도시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타 도시와 비교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활용 방안 도출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전략 제시

○ 고양특례시 산업·입지적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전략산업, 인적자원, 인프라, 제도적 측면을 고려한 지원체계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개념화 및 국내현황을 검토하고,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역량 분석

○ 국내·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정책과 비교하여,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첫째, 외국인투자기업 개념화

- 외국인투자기업 정의·범위·유형 및 관련 법·제도적 기준을 정리, 유사 개념과 구분
-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와 유형 정리
- 외국인투자기업 특징 분석

○ 둘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검토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분석
  - 연도별 등록 추이, 지역별 비중, 업종별 비중, 투자국가별 비중 분석
  - 일반현황, 재무현황 분석 및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현황 검토
- 경기 북부와 남부, 경기도 내 주요도시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비교·분석

○ 셋째,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역량분석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연도별 추이, 구별, 업종별, 투자국가별, 재무현황 등 분석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DNA 모델 기반 역량 분석
  - 경기북부 내 경쟁권역 등과 비교 후 시사점 도출

○ 넷째, 국내·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정책 비교

- 국내사례로 수원, 용인, 인천, 대구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전략 및 지원제도 분석
- 국외사례로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전략 및 지원제도 분석
- 국내·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다섯째, 고양특례시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 제시

□ 연구 체계

○ 본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며, 외국인투자기업 개념화 →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검토 → 외국인투자기업 역량 분석 → 국내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사례 비교 → 고양특례시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순서로 전개

그림 1-1 | 본 연구의 연구 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특징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범위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특징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특징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 개념과 범위

1. 외국인투자기업 개념

□ 외국인투자기업 정의

○ (정의) 외국인(개인, 법인, 단체 등)이 자본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내에 설립하거나 투자한 기업

○ (목적) 단순 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관계 유지와 경영 참여 목적

○ (근거법령)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법적으로 정의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관리[2)]

□ 외국인의 범위

○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단순 투자자를 넘어 국가 및 국제기구까지 포함하므로 외국인투자의 실질적 주체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반영

-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외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예: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 외국정부 및 대외경제협력기관, 특수목적 법인 포함

□ 외국계 기업 개념 및 유형[3)]

○ 외국계 기업 개념

- 외국 자본이나 외국계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하거나 진출한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

---

2)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 2023. 12. 14.).

3) https://www.investkorea.co.kr/; https://immikorea.com/ 홈페이지 내용 참조

○ **형태별로 법인(독립 법인), 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구분**

- 법인은 국내에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체로서 모기업과 별개로 회계 및 세무 처리
- 지점은 모기업의 분사무소로, 독립 법인이 아니며 본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 보유
-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비영리 형태로 시장조사, 정보 수집, 연구 등의 간접 업무만 수행 가능
- 외국계 기업의 형태 선택은 투자 목적, 경영 참여도, 세제 혜택 및 법적 책임 등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

□ 외국계 기업 구분

○ **법인형(지역법인)의 특징**

- 독립된 국내 법인격 보유, 모회사와 명확히 분리되어 법적·회계적으로 독립
- 회계처리는 한국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르며, 본사와 별도로 결산 및 세금 신고 수행
- 이익은 배당 형태로만 본사에 송금 가능하며, 세액 원천징수 적용
- 첨단기술 분야나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 시, 일정 기간 법인세 감면(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및 취득세 등 감면 혜택 부여

○ **지점(국내지사)의 특징**

- 본사의 국내 분사무소로서 독립 법인격이 없으며, 법적 책임은 본사에 귀속
- 회계 및 세무 역시 본사의 기준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서 세제 혜택은 제한
- 국내 영업 범위는 본사의 허가 범위 내에 한하며, 일부 산업군에서만 활동 가능
- 국내 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상호 사용 가능하며,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 필요
- 납세 의무는 지점 단위로 존재하나 법인세 혜택은 미적용되는 경우 존재

○ **연락사무소의 특징**

- 법인과 지점과 달리 이윤 추구 목적의 사업이 불가능하며, 비영리 목적의 연락·조사·홍보 등 지원 업무에 한정
- 시장 조사, 연구개발 지원, 마케팅 자료 수집,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
- 법원 등기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납세 의무 없음. 단 수익 활동 판단 시 납세 의무 발생 가능성 존재
-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초기 출발점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 후 사업 확장에 따라 지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 존재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경제 내 실질적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가 가능한 지역본부로 성장 가능하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활동 범위와 법적 보호 제한

표 2-1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상호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 상호만 가능
영업활동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자본금 요건	1억 원	없음	없음
법적 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거의 불가능	불가능함
설립절차	1.외국인투자 신고 2.자금송금 3.법인등기 4.사업자등록 5.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국내지사 설치신고 2.법인등기 3.사업자등록	1.국내지사 설치신고 2.고유번호 등록

〈자료〉 VISION 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 인용(https://www.investkorea.co.kr/).

□ 외국법인 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투자법인이며, 외국계 기업은 경제적 의미에서 외국자본의 영향 하에 있는 기업**

표 2-2 | 외국법인 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 구분

구분	외국법인 지점	외국인투자기업
법적 근거	없음	외국인투자촉진법
주된 의미	외국 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가진 기업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으로 등록한 기업
등록 절차	별도 등록 없음	외국인투자신고 → 승인 및 등록 필요
투자 요건	제한 없음	의결권 10% 이상, 1억 원 이상 투자
정부지원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 아님	각종 인센티브 및 지원 가능

〈자료〉 연구진 작성.

2. 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정의[4)]

□ 외국인투자촉진법 의의 및 법적 보호 체계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자와 기업의 투자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법 제1조)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투자 수익 송금과 재투자에 있어서도 법적 보장과 편의 제공

○ 투자방식별로 상세한 신고·인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환경 조성 기여

□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투자금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공식 인정

○ 투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

- ① 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
- ② 인가 및 등록: 정부 기관(산업통상부 등)에서 투자 인가 및 기업 등록
- ③ 사후관리 및 보고: 투자 이행 상태와 경영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 부과

○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과 금지 조항 적용

- 공공 분야, 방송, 금융업 등 특정 영역에서 국익 보호 및 안보 차원에서 투자 제한
- 해당 제한 영역은 산업통상부 고시나 관련 법령을 통해 상세 규정

□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의 구분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투자금액 1억 원 미만 혹은 의결권 10% 미만인 경우를 단순 증권 취득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보호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권관리 차원에서만 신고 의무 존재[5)]

○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은 투자 규모 및 경영 참여 기준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

---

4)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 2023. 12. 14.).;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 2025. 8. 28.)

5) 기획재정부(2025.08.14.).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 국제 기준 및 비교[6)]

○ UNCTAD,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기준으로, 특정 국가 내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로 경영 참여 가능 여부를 중시하며, 단순 금융·포트폴리오 투자와 엄격히 구분하여 FDI의 실질 경영 통제성 강조

○ 국제법적인 투자자-수용국 관계는 투자보호협정(IIA: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과 투자분쟁해결절차(ISDS)를 포함, 투자 안정성과 권리 보호 보장

○ 한국도 다수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국제중재 메커니즘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운영

□ FDI 관련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7)]

○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과 행정 규정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또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시 세제 감면 혜택(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제공
- 투자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인허가 체계 마련으로 투자 편의성 제고
- 연구개발(R&D)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여 등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 정책 시행

○ 이러한 인센티브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

---

6) 주OECD대한민국대표부(2014.02.22.).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UNCTAD(2024). World Investment Report 2024.

7) 산업통상자원부(2025). 외국인투자가이드 2025.

3. 외국인투자기업 범위[8)]

□ 지분율 기준 판정

○ 외국인투자기업 인정의 핵심 기준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

○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나, 시행령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 가능

○ 의결권 10% 기준은 단순 투자와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 지분 소유 비율은 외국인 투자 신고 및 등록 시 엄격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 행사 및 경영 참여 여부 결정

○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 일부가 매각되어 지분율이 하락해도 최초 투자 당시의 기준이 유지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

○ 장기 차관 제공도 투자 범위에 포함되며, 장기 차관이란 5년 이상 대여를 의미하고,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을 경우 인정

□ 투자 유형별 범위

○ **직접투자**: 신규 법인 설립, 공장 신설, 시설 투자 등 실물 자산을 직접 취득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 유형

○ **합작투자(Joint Venture)**: 외국인과 국내 기업이 공동 출자해 법인을 설립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 경영하는 형태

○ **인수합병(M&A)**: 기존 국내 기업의 의결권 주식 취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업 전반을 직접 운영하는 투자의 한 유형

○ **자회사 설립**: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 부여

○ **지점 설치**: 본사의 국내 지점으로서 독립 법인격이 없으며 본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유지하나, 세제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

○ **장기 차관**: 모기업 또는 관련 회사가 5년 이상 대여하는 자본 제공, 실질적인 투자로 인정

○ **출연 및 재투자**: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과 자회사의 이익 잉여금 현지 재투자도 포함

---

8)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 2023. 12. 14.).;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 2025. 8. 28.);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의 개념.;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의 제한.

□ 국가별 및 지역별 범위

○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며, 투자대상은 국내법상 기업과 법인 한정

○ 국제기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0% 이상 지분 및 경영 참여를 기준으로 FDI 정의, 국내법과 기본적으로 일치

○ 경제자유구역 및 지정특구에서는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 관대한 투자 정책 적용

○ 국가마다 상이한 규제와 장벽이 존재하므로, 다국적 기업은 출자 및 경영 전략을 지역별로 달리 설정하는 경우 존재

□ 산업별 적용 차이

○ (제조업 분야) 지분 및 투자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며, 높은 설비 투자 및 신규 법인 설립 가능성

○ (서비스업) 금융, 방송, 교육 등 문화산업 등에 일부 외국인 지분 제한 및 투자 금지 업종 존재

○ (첨단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증가

○ (국가안보 관련 산업과 공공 인프라) 투자가 제한적 또는 금지되어 국가 정책 우선순위 반영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장치는 산업별 차이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며, 신고 절차, 인가 요건, 사후관리 체계가 엄격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의결권 지분율 조사 외에도 투자 목적, 사업 계획, 경영 참여도 등에 대한 심층 검토 진행

○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 지점·사무소 설치, 자본금 증액 등 행위는 모두 외국인투자 범위 내 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신고 및 허가 대상

○ 투자 유형과 산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이 존재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투자 환경 조성

4. 외국인 직접투자 정의와 유형

□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의

○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제주체(개인 또는 법인)가 국경을 넘어 타국 내 기업에 투자하여 실질적 경영권 또는 경영 참여가 가능한 직접 투자 형태**[9)]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투자자가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확보하는 투자'로 정의
-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FDI로 간주되며, 이는 단순 금융투자(포트폴리오 투자)와 엄격히 구분[10)]

○ **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기업 경영 참여와 성장 목적 중심의 성격**

○ **국제 경제통합의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 이전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 국제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 각 국가는 FDI를 통해 자본 조달, 고용 창출,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이전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투자 유치 정책 강화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11)]은 크게 4가지 투자방식과 3가지 법제도 기준으로 구분

○ (투자 방식 기준①)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

- 투자자가 타국에 신규로 법인, 공장,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긴 시간과 자본 투자 필요
- 현지 경제에 긍정적인 고용 및 기술 진보 효과를 직접적으로 유발

○ (투자 방식 기준②) 인수합병(M&A)

- 기존의 외국 현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경영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
-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진입 및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나, 기존 조직과 문화의 통합 등 과제 동반

○ (투자 방식 기준③) 합작투자(Joint Venture)

- 외국 투자자와 현지 기업이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합작법인 형태
- 현지 시장과 문화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위험 분산 효과

---

9) 주OECD대한민국대표부(2014.02.22.).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10) 주OECD대한민국대표부(2015.08.28.). OECD FACTBOOK 2014: 외국인 직접투자.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0).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투자 방식 기준④) 이익의 재투자(Reinvestment of Earnings)**

- 이미 설립된 투자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 재투자하는 형태
- 투자기업의 장기 성장 의지와 현지 경제와의 연계 강화 역할 수행

○ **(법·제도 기준①) 가목 :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유형**[12)]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소유하며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금액 기준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나, 시행령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도 인정하는 경우 존재
- 최소 소유 지분율은 대체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영권 또는 경영 참여가 인정되는 기준
- 신주 인수, 기존 주식 매입,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파견·선임 등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행위 포함
- 해당 투자 방식은 단순한 자금 제공 차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며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투자자로 간주[13)]

○ **(법·제도 기준②) 나목 : 장기 차관 대여 유형**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자본출자 관계 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주식 등 소유 외국인)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 장기 차관(대부)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 차관의 형태는 현금뿐 아니라 자본재, 설비, 원재료 등 실물로도 인정되며, 이는 실질적 자본 투자의 연장선으로 간주
- 법률상 자본출자 관계란 모기업이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형제기업 간 지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
- 장기 차관 대여는 단기 차입금과 달리 기업의 장기 성장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투자형 자금으로 인정받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

○ **(법·제도 기준③) 다목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 등 연구개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출연(기부)하는 투자 형태
- 출연 대상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연 목적도 지속적 기술협력, 연구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등으로 제한
-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해당 출연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야 하므로 법적·행정적 심사 진행
- 단순 자금 지원 형태를 넘어서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연구 기능 강화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투자로 평가

---

1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13) 법무부(2013.07.30.), 외국인투자의 개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FDI 주요 목적과 효과

○ 시장 진출 및 생산기지 확보

- FDI를 통해 신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물류, 임금, 관세 비용 절감 가능
- 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여

○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선진기술, 경영기법, 글로벌 네트워크를 현지에 도입하며 현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유도
- 이전 과정 속에서 숙련된 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가속화 기대

○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 다국적 기업의 일원으로서 생산과 공급망 네트워크에 편입, 현지 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및 국제 무역 활성화 촉진
- 국가 경제의 통합성과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

○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현지 고용 창출 효과 상승, 새로운 직간접 일자리 증가, 임금 수준이나 복지 향상 기대
- 경제 성장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특징[14)]

□ 소유구조 및 경영구조 특성

○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구조는 주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공동출자 형태의 합작법인, 외국계 지분이 10% 이상인 독립법인으로 구성

- 외국계 모기업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보다 강력한 경영권과 자율권 행사

○ 주주구성은 외국인이 단독 또는 전략적 제휴(복수 외국인, 현지 파트너)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 감사기구, 경영진 선임 방식에 선진 노하우 반영

○ 경영구조는 글로벌 표준을 따르며, 경영 의사결정과 기업 전략 수립이 본사의 그룹 지배구조 기반 조성

○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이 내부통제와 투명한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며 국제적 규범(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부합하는 조직구조 구성

○ 주요국 글로벌 지역본부는 본사-지사 간 분권적 관리와 동시에 현지 인사·생산·판매·조달 계획 수립 및 지원 및 조정 업무 수행

○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로 지정되면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 연구전담 인력 등 요건 구비

□ 자본조달,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영향

○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사 및 글로벌 자본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 이용(채권·주식·국제금융기관 융자 등) 가능

○ 직접금융에 기반한 대규모 투자 및 프로젝트 펀딩이 활발하고, R&D센터·첨단산업 분야에서 집약적 자본투자 가능

○ 자회사 설립, 시설·연구소 신설, 생산기지 확대 등 지속적인 자본 투입 능력이 높으며 한국기업 평균 대비 자금 운용 체계 선진화

○ 외국기업을 통한 첨단기술 이전, 사업관리 역량 혁신, 글로벌 품질 표준의 확산 가능

○ 본사와 지사 간 기술교류와 현지 R&D 투자 활성화(연구비 지원, 현금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 혁신생태계 형성에 유리

○ 지역본부 및 R&D센터 지정 시 최대 70~75%의 현금보조금, 최대 7년의 관세·법인세 감면 등 국가적 지원 동반

---

14) 대한상공회의소(2025).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SGI Brief, Vol.33, pp.1-16.; KOTRA(2025),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인설립가이드.; 삼정KPMG(2023).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OECD(2025).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023.; 박경서, 이은정(2006). 외국인투자자가 한국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20(2), 73-113.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특성

○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 부품 공급, 설계 등 기능별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분업구조에 참여해 현지 산업 전반에 영향력 행사

○ 본사 및 자회사 간 GVC 연계에 따라 현지 중소협력업체가 국제조달망 및 수출 네트워크에 포함,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

○ 전략적 자율성(technology autonomy)을 추구하는 본사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 R&D, 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 제고

○ 글로벌 생산시설 및 서비스 거점으로서 제조→서비스업→첨단신사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

○ 한국 내 GVC 참여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으며, 산업 공동화(유출 대비 유입 불균형) 과제 동반

□ 국내 기업과의 차이점

○ 외국인투자기업은 성과중심, 개방적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국제적 직무 분장 및 팀 프로젝트 등 선진 경영방식 일반화

○ 인사관리 및 복지, 노사관계에서 글로벌 본사 정책과 현지 규제가 결합, 유연근무 및 다양성 존중 및 직무중심 평가 도입

○ 다국적 인력 채용, 국제기구 기준에 맞는 직원 교육 및 복지, 노사협의회 등 선진적 제도 현지화

○ 공정한 정보관리 및 투명경영, 집단 토론 및 상향식 의견 수렴 등 기업 운영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 접근

○ 현지화의 문제나 문화적 충돌, 인력 운용에서 현지 실정과 글로벌 규범 간 조율과 융합 필요

□ 국가경제 측면의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징

○ 긍정적 영향

- 고용 창출·임금 인상, 산업 효율화, 혁신 기술 및 경영 노하우 확산, 중소기업 성장 및 수출 촉진
- 생산성 향상, 국가재정 확대,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진출 및 해외 수출 확대 가능
- 외국계 R&D센터 및 지역본부 유치 시, 대규모 현금지원과 세제 감면으로 첨단산업 발전 유도

○ 부정적 영향

- 일자리의 양적 및 질적 불균형(비정규직 증가, 고용 불안), 국내 산업 공동화·기술 유출 위험 존재
- 대기업 중심의 독점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본사 중심 수익배분에 따른 경제외부효과 발생
- 국내 정책 환경(노동시장 경직, 규제 및 인허가 복잡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경영 제약으로 작용
- 산업 공동화 및 해외직접투자의 유출 비중 상승가능(한국의 O-FDI가 I-FDI의 2.3배 수준)

제3장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분석

제1절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제2절 주요도시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비교분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분석

제1절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1.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추이[15)]

□ 1960년대 형성기 이후 단계적 도약을 거쳐 2020년대 들어 지속적 확대

○ 2025년 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등록 외투기업 누적 19,628개, 1963년 1개로 출발한 이후 약 60여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

○ 1960~1980년대는 연간 수십 건 수준의 영세한 등록 추이, 1985년까지 누적 등록은 188개에 불과

- 1985년 21개, 1986년 51개, 1988년 99개로 1980년대 후반 점진적 증가
- 1989~1997년 평균 약 100개/년 수준 유지

□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성화기 진입

○ 1998년 186개, 1999년 292개를 거쳐 2000년 436개로 최초의 연간 400개대 진입

-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 부각, 외국인투자촉진법(1998.11) 제정과 외환자유화 정책이 직접적 효과로 작용
-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외자 유치 정책 드라이브가 가시화된 시기

○ 2001~2017년은 연 250~700개 대의 평탄한 추이가 지속되는 1차 안정기

- 평균 약 450개/년 수준 유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시기에도 큰 폭의 감소 없이 안정적 유입

15)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자 기준 2025.12.31 이전 등록기업 누적 19,628개. 본 자료는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외투기업만 포함하며, 등록 후 말소된 기업은 제외됨

□ 2018~2019년 2차 도약기 형성 후 2020년 COVID-19 충격으로 일시 둔화

○ 2018년 763개, 2019년 814개로 800개 대 진입

- 한·중 사드 갈등 완화, 4차산업혁명 대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정책 효과

○ COVID-19 글로벌 팬데믹의 직접적 영향으로 2020년 705개로 일시 둔화

□ 2020년 이후 증가세 진입, 5년 연속 신규 등록 상승 기조 유지

○ 2021년 1,117개로 처음 1,000개대 진입, 이후 매년 증가

- 2022년 1,450개, 2023년 1,539개, 2024년 1,641개, 2025년 1,701개

- 2020~2025년 연평균 1,359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되며 외국인투자 활성화 추세

○ 2020년 이후 6년간 신규 등록은 8,153개로 누적 등록의 약 41.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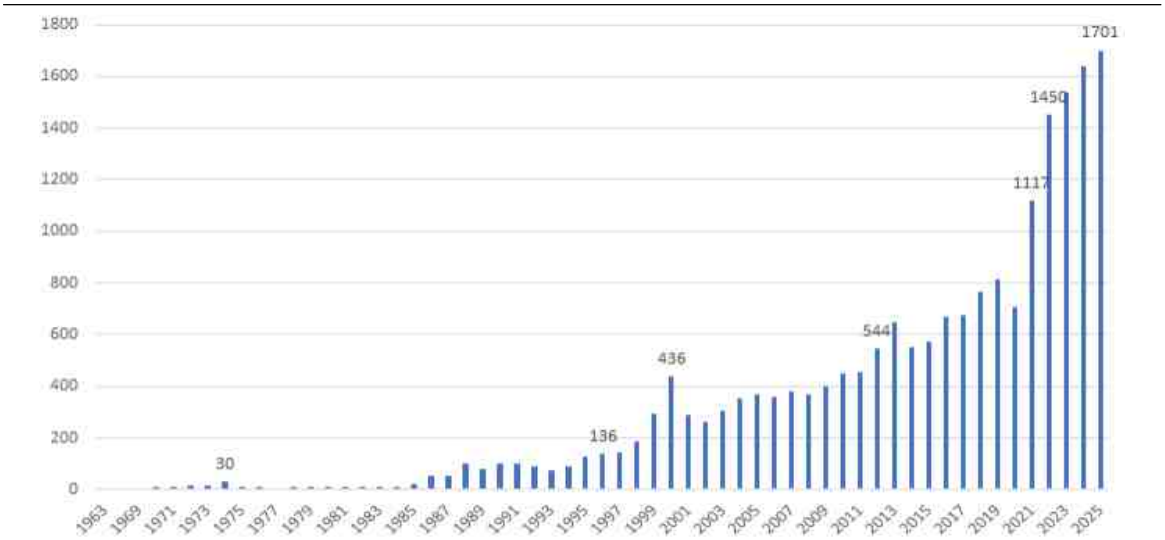
표 3-1 | 외국인투자기업 연도별·기간별 등록 추이 (1963~2025)

(단위: 개)

기간	신규 등록	기간말 누적	연평균
1963~1989년	472	472	17
1990~1999년	1,336	1,808	134
2000~2009년	3,530	5,338	353
2010~2019년	6,137	11,475	614
2020~2025년	8,153	19,628	1,359
누적 합계	19,628	19,628	-

*주: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자 기준 분석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그림 3-1 | 연도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수



〈자료〉 연구진 작성.

2.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대해 수도권 편중 구조 형성

○ 2025년 말 기준 누적 19,62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서울 9,629개(49.1%), 경기 4,147개(21.1%), 인천 1,998개(10.2%)로 수도권 3개 시도가 15,774개(80.4%) 차지

- 서울의 절대적 지위(49.1%), 경기와 인천이 보완 입지로 작동하는 구조

○ 비수도권 광역시·도는 부산이 714개(3.6%)로 가장 높고 그 외 모두 3% 미만 수준

- 부산 3.6%, 경남 2.8%, 충남 2.0%, 경북 1.7%, 대구 1.5%, 충북 1.3%, 전남 1.2%, 전북 1.2%, 제주 1.2% 순
- 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 등은 1% 미만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입지 미미

표 3-2 | 시도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시도	등록기업	비중
서울특별시	9,629	49.1
경기도**	4,147	21.1
인천광역시	1,998	10.2
수도권 소계	15,774	80.4
부산광역시	714	3.6
경상남도	548	2.8
충청남도	384	2.0
경상북도	343	1.7
대구광역시	296	1.5
충청북도	258	1.3
전라남도	243	1.2
전북특별자치도	238	1.2
제주특별자치도	230	1.2
광주광역시	149	0.8
강원특별자치도	141	0.7
대전광역시	139	0.7
울산광역시	135	0.7
세종특별자치시	32	0.2
주소 미상	4	0.0
비수도권·미상 소계	3,854	19.6
전국 합계	19,628	100.0

*주: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자 기준 분석
**주: 불분명한 주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주소를 확인하여 처리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3. 업종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 도매 및 소매업이 46.3%로 가장 큰 비중 차지, 단순 유통·중개 중심의 구조

○ **표준산업중분류 기준 도·소매(유통) 9,091개(46.3%)로 최다**

- 무역업·종합무역업·상품종합도매업 등 단순 무역·중개 기능 외국인투자기업 다수

○ **정보통신 1,450개(7.4%),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439개(7.3%)가 그 다음 큰 비중**

- 정보통신 내부에서는 출판·소프트웨어 공급(KSIC 58)이 절반 이상, 정보서비스(63)·컴퓨터프로그래밍(62) 순
-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내부에서는 전문서비스(법무·회계·광고 등, 71)가 가장 큰 비중

○ **제조업 관련 분야 합산 약 18.4%, 다양한 세부 분야에 분산**

- 기계장비·의료정밀 847개(4.3%), 전기·전자 782개(4.0%), 화공 601개(3.1%), 운송용 기계 389개(2.0%), 금속·금속가공 315개(1.6%), 식품 177개(0.9%) 등

표 3-3 | 표준산업중분류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순위	업종	등록기업	비중
1	도·소매(유통)	9,091	46.3
2	정보통신	1,450	7.4
3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439	7.3
4	숙박·음식점	1,000	5.1
5	기계장비·의료정밀	847	4.3
6	전기·전자	782	4.0
7	화공	601	3.1
8	운수·창고	569	2.9
9	금융·보험	566	2.9
10	부동산	527	2.7
11	사업지원·임대	520	2.6
12	운송용 기계	389	2.0
13	금속·금속가공	315	1.6
14	공공·기타서비스	240	1.2
15	식품	177	0.9
-	기타	1,115	5.7
합계		19,628	10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4. 투자국가별 비중

□ 중국·일본·미국 중심의 시장 구조 형성, 누적 점유율 43.5% 기록

○ 2025년 말 기준 누적 19,628개 중 중국 3,262개(16.6%), 일본 2,718개(13.8%), 미국 2,560개(13.0%)로 상위 3개국 합산 8,540개(43.5%)

- 일본·미국은 국내 외국인투자 초기인 1960~1980년대부터 주요 투자국 지위 유지
- 중국은 한·중 수교(1992) 이후 본격 증가, 연도별 등록건수 기준으로 2000년 처음 1위 달성 후 2024년부터 누적 등록건수 1위 달성

○ 동아시아 자본 집중도 매우 높음, 동아시아 6개국 합산 약 47%

- 중국 16.6%, 일본 13.8%, 홍콩 5.7%, 싱가포르 6.2%, 베트남 3.2%, 대만 1.3%
- 중앙아시아 신흥국(파키스탄 2.8%, 키르기즈스탄 1.6%, 몽골 1.4%)의 약진은 2010년대 이후 두드러진 새로운 흐름

□ 유럽 자본은 누적 9.1% 수준으로 첨단산업 강국 외국인투자기업의 낮은 유입 비중

○ 독일 568개(2.9%), 영국 500개(2.5%), 네덜란드 431개(2.2%), 프랑스 275개(1.4%) 등 유럽 주요 4개국 누적 총 1,774개(약 9.0%)

- 첨단 제조업·R&D 강국인 독일·프랑스로부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향후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우선 공략 대상
- 영국·네덜란드는 금융·물류 기능과 연계성이 높아 서울 입지에 대한 높은 선호

표 3-4 | 투자국가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순위	투자국가	누적 등록기업	전국 비중
1	중국	3,262	16.6
2	일본	2,718	13.8
3	미국	2,560	13.0
4	싱가포르	1,224	6.2
5	홍콩	1,114	5.7
6	베트남	637	3.2
7	독일	568	2.9
8	파키스탄	559	2.8
9	영국	500	2.5
10	네덜란드	431	2.2

11	키르기즈스탄	312	1.6
12	러시아	279	1.4
13	몽골	279	1.4
14	프랑스	275	1.4
15	대만	258	1.3
–	기타	4,652	23.7
합계		19,628	10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5. 추가분석

1) 한국평가데이터 일반현황 분석[16)]

□ 산업활동 기업 대부분 영위 중, 휴·폐업 기업 일부 존재하는 구조

○ 2024년 기준 한국평가데이터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20,244개, 이 중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16,938개로 전체의 83.7% 차지

- 휴·폐업 기업은 2,488개로 12.3% 차지, 산업활동 상태가 미기재된 기업은 818개로 4.0% 차지
- 2024년 기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심으로 분석

표 3-5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체	영업기업	휴·폐업 기업	미분류(결측)
업체 수	20,244	16,938	2,488	818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기업 규모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내 중소기업 비중 최다

○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내 중소기업은 10,039개로 59.3%의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중견기업 1,150개(6.8%), 소상공인 775개(4.6%), 대기업 273개(1.6%)
- 규모 미분류 기업은 4,634개로 전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27.4% 차지, 판단 제외 기업은 67개로 0.4% 차지

표 3-6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단제외	미분류	합계
업체 수	273	1,150	10,039	775	67	4,634	16,938
비율	1.6	6.8	59.3	4.6	0.4	27.4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기업 유형별로 법인기업 중심으로 구성, 특히 주식회사 형태가 대부분 차지

○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개인기업 460개(2.7%), 동업기업 3개(0.0%)로 매우 낮은 개인 형태 기업의 비중

16) 2024년 기준 한국평가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분석하였으며, 일부 미분류, 누락 등이 포함되어 수치해석에 주의 필요함. 또한 앞서 살펴본 현황자료는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자료이며, 추가분석시 사용되는 자료와 시점·집계 기준 상이함

○ 법인기업은 16,475개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97.3% 차지, 이 중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높은 비중

- 주식회사 13,755개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81.2% 차지
- 유한회사 2,415개(14.3%), 유한책임회사 198개(1.2%), 합자회사 95개(0.6%)로, 주식회사 형태가 다른 법인 형태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표 3-7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계
	개인	개인동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	합자회사	기타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업체 수	460	3	13,755	2,415	198	95	7	5	16,938
비율	2.7	0.0	81.2	14.3	1.2	0.6	0.0	0.0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증 보유 비중

○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벤처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792개로 전체 4.7% 차지, 인증 미보유 기업은 16,146개로 95.3% 차지

○ 이노비즈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574개로 전체의 3.4% 차지, 인증 미보유 기업은 16,364개로 96.6% 차지

○ 메인비즈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243개로 전체의 1.4% 차지, 인증 미보유 기업은 16,695개로 98.6% 차지

○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보유 기업은 230개로 전체의 1.4% 차지, 인증 미보유 기업은 16,708개로 98.6% 차지

표 3-8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인증정보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업체 수	792	16,146	574	16,364	243	16,695	230	16,708
비율	4.7	95.3	3.4	96.6	1.4	98.6	1.4	98.6
합계	16,938		16,938		16,938		16,938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업종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도매 및 소매업 비중 최다

○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내 도매 및 소매업은 6,494개로 전체 기업 중 38.3%로 가장 높은 비중

- 세부 업종별로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4,826개, 28.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251개, 7.4%), 소매업(417개, 2.5%)이 상위 비중 차지

○ 제조업은 3,818개로 전체 기업의 22.5% 차지

-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648개, 3.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91개, 2.9%),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49개, 2.7%)이 상위 비중 차지

○ 정보통신업은 1,388개로 전체 기업의 8.2% 차지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299개로 7.7%로 비교적 높은 비중 차지

○ 한편, 업종 미분류 기업은 182개로 전체의 1.1% 차지

표 3-9 |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별 현황 (표준산업분류 11차)

(단위 : 개, %)

업종분류	업체 수	비중
농림어업	66	0.4
광업	20	0.1
제조업	3,818	22.5
식료품 제조업	239	1.4
음료 제조업	27	0.2
담배 제조업	3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6	0.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3	0.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	0.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5	0.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3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91	2.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4	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3	0.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5	0.4
1차 금속 제조업	129	0.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89	1.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9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20	1.3
	전기장비 제조업	225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48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1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2	0.5
	가구 제조업	12	0.1
	기타 제품 제조업	187	1.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4	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64	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64	0.4
건설업		161	1.0
도매 및 소매업		6,494	38.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251	7.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826	28.5
	소매업; 자동차 제외	417	2.5
운수 및 창고업		582	3.4
숙박 및 음식점업		838	4.9
정보통신업		1,388	8.2
금융 및 보험업		589	3.5
부동산업		501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9	7.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92	2.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0
교육 서비스업		121	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4	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6	0.4
미분류		182	1.1
합계		16,938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창설연도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016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전체의 49.0% 차지

○ 2024년 기준 2021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4,726개로 전체의 27.9%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
- 2016~2020년 설립기업은 3,577개로 전체 21.1% 차지

○ 2001년 이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확대 추이,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273개로 전체의 1.6% 차지

표 3-10 | 2024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연도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0년 이전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년 이후	미분류	합계
업체 수	2,501	1,375	1,657	2,829	3,577	4,726	273	16,938
비율	14.8	8.1	9.8	16.7	21.1	27.9	1.6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종사자 수 전반적으로 증가, 평균 종사자 수 감소

○ 2023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종사자 수 약 124만 명, 2015년 대비 49.6만 명(66.7%) 증가

○ 2023년 평균 종사자 수 113.24명, 2015년 대비 17.53명(13.4%) 감소

○ 이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 구성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결과

표 3-11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추이

구 분*	기업 수(개)**	자료 제공기업 수(개)		총 종사자 (명)***	총 종사자 증감률(%)	평균 종사자 (명)***	평균 종사자 증감률(%)
		제공	미제공				
2015	8,362	5,687	2,675	743,689	-	130.77	-
2016	9,009	5,930	3,079	745,798	0.3	125.77	-3.8
2017	9,661	7,747	1,914	1,003,616	34.6	129.55	3.0
2018	10,464	8,259	2,205	1,057,264	5.3	128.01	-1.2
2019	11,269	8,728	2,541	1,087,229	2.8	124.57	-2.7
2020	11,939	9,050	2,889	1,078,177	-0.8	119.14	-4.4
2021	13,017	9,423	3,594	1,106,877	2.7	117.47	-1.4
2022	14,310	10,188	4,122	1,165,449	5.3	114.39	-2.6
2023	15,669	10,950	4,719	1,239,955	6.4	113.24	-1.0
2015년 대비 변화(율)	7,307	5,263	2,044	496,266	66.7	-17.53	-13.4

*주: 2024년 기준 16,93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996개)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273개)인 1,269개 기업 제외
**주: 누적 기업 수
***주: 당해년 기준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수도권 중심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 2024년 기준 서울은 7,899개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47.4%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경기도는 3,680개로 전체 기업의 22.1%, 인천은 1,673개로 전체 기업의 10.0%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 분포

○ 비수도권은 부산이 601개(3.6%)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경남 493개(3.0%), 충남 356개(2.1%), 경북 314개(1.9%) 순으로 분포

- 그 외 지역은 대부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2% 미만 수준

○ 2015년 대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 서울은 2015년 3,950개에서 2024년 7,899개로 3,949개 증가,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동안 1,696개, 인천은 1,185개 증가

○ 한편, 분석에서 제외된 소재지가 미기입된 기업은 273개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1.6% 차지

표 3-12 | 2015년~2024년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영업기업)

(단위 :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2015년	3,950	364	112	488	76	65	69	1,984	82
(비중)	(47.2)	(4.4)	(1.3)	(5.8)	(0.9)	(0.8)	(0.8)	(23.7)	(1.0)
2016년	4,279	389	120	554	78	71	74	2,108	84
(비중)	(47.5)	(4.3)	(1.3)	(6.1)	(0.9)	(0.8)	(0.8)	(23.4)	(0.9)
2017년	4,594	412	130	616	85	75	79	2,252	90
(비중)	(47.6)	(4.3)	(1.3)	(6.4)	(0.9)	(0.8)	(0.8)	(23.3)	(0.9)
2018년	5,038	431	145	675	89	85	83	2,406	92
(비중)	(48.1)	(4.1)	(1.4)	(6.5)	(0.9)	(0.8)	(0.8)	(23.0)	(0.9)
2019년	5,439	453	156	764	92	91	88	2,579	98
(비중)	(48.3)	(4.0)	(1.4)	(6.8)	(0.8)	(0.8)	(0.8)	(22.9)	(0.9)
2020년	5,779	471	167	832	97	98	89	2,718	103
(비중)	(48.4)	(3.9)	(1.4)	(7.0)	(0.8)	(0.8)	(0.7)	(22.8)	(0.9)
2021년	6,261	493	184	1,045	98	108	102	2,923	112
(비중)	(48.1)	(3.8)	(1.4)	(8.0)	(0.8)	(0.8)	(0.8)	(22.5)	(0.9)
2022년	6,819	525	201	1,341	108	114	107	3,168	120
(비중)	(47.7)	(3.7)	(1.4)	(9.4)	(0.8)	(0.8)	(0.7)	(22.1)	(0.8)
2023년	7,430	573	219	1,551	112	128	111	3,462	127

(비중)	(47.4)	(3.7)	(1.4)	(9.9)	(0.7)	(0.8)	(0.7)	(22.1)	(0.8)
2024년	7,899	601	234	1,673	123	132	116	3,680	133
(비중)	(47.4)	(3.6)	(1.4)	(10.0)	(0.7)	(0.8)	(0.7)	(22.1)	(0.8)
미기재	112	8	6	55	1	1	1	62	1
(비중)	(41.0)	(2.9)	(2.2)	(20.1)	(0.4)	(0.4)	(0.4)	(22.7)	(0.4)
구 분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015년	132	208	19	81	138	161	316	117	8,362
(비중)	(1.6)	(2.5)	(0.2)	(1.0)	(1.7)	(1.9)	(3.8)	(1.4)	(100.0)
2016년	140	220	20	91	147	169	332	133	9,009
(비중)	(1.6)	(2.4)	(0.2)	(1.0)	(1.6)	(1.9)	(3.7)	(1.5)	(100.0)
2017년	152	231	20	101	155	185	344	140	9,661
(비중)	(1.6)	(2.4)	(0.2)	(1.0)	(1.6)	(1.9)	(3.6)	(1.4)	(100.0)
2018년	165	241	22	114	168	202	360	148	10,464
(비중)	(1.6)	(2.3)	(0.2)	(1.1)	(1.6)	(1.9)	(3.4)	(1.4)	(100.0)
2019년	175	253	23	126	179	215	378	160	11,269
(비중)	(1.6)	(2.2)	(0.2)	(1.1)	(1.6)	(1.9)	(3.4)	(1.4)	(100.0)
2020년	181	271	24	135	184	227	398	165	11,939
(비중)	(1.5)	(2.3)	(0.2)	(1.1)	(1.5)	(1.9)	(3.3)	(1.4)	(100.0)
2021년	195	284	28	146	201	239	423	175	13,017
(비중)	(1.5)	(2.2)	(0.2)	(1.1)	(1.5)	(1.8)	(3.2)	(1.3)	(100.0)
2022년	206	304	28	160	212	265	449	183	14,310
(비중)	(1.4)	(2.1)	(0.2)	(1.1)	(1.5)	(1.9)	(3.1)	(1.3)	(100.0)
2023년	226	328	30	185	230	288	477	192	15,669
(비중)	(1.4)	(2.1)	(0.2)	(1.2)	(1.5)	(1.8)	(3.0)	(1.2)	(100.0)
2024년	240	356	31	195	246	314	493	199	16,665
(비중)	(1.4)	(2.1)	(0.2)	(1.2)	(1.5)	(1.9)	(3.0)	(1.2)	(100.0)
미기재	3	4	2	0	2	4	9	2	273
(비중)	(1.1)	(1.5)	(0.7)	(0.0)	(0.7)	(1.5)	(3.3)	(0.7)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2) 한국평가데이터 재무현황 분석

□ 총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 규모가 확대된 추세

○ 2023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매출액은 8,471,190억원으로 2015년 대비 66.7% 증가, 동기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수 증가와 함께 총매출액 확대

○ 평균 매출액은 2023년 1,403.9억원으로 2015년 대비 14.6% 증가,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942억원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 기록

표 3-13 | 외국인투자기업 매출액 추이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기업 수 (누적)	자료 제공기업 수		총매출액 (당해년)	평균 매출액 (당해년)
		제공	미제공		
2015	8,362	4,149	4,213	5,082,614	1,225.0
2016	9,009	4,517	4,492	5,115,277	1,132.5
2017	9,661	4,831	4,830	5,621,713	1,163.7
2018	10,464	5,422	5,042	5,912,086	1,090.4
2019	11,269	5,981	5,288	6,090,954	1,018.4
2020	11,939	6,350	5,589	5,981,589	942.0
2021	13,017	6,596	6,421	7,184,529	1,089.2
2022	14,310	6,527	7,783	8,642,265	1,324.1
2023	15,669	6,034	9,635	8,471,190	1,403.9
2015년 대비 증감(율)	7,307	1,885	5,422	66.7	14.6

*주: 2024년 기준 16,93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996개)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273개)인 1,269개 기업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이익은 연도별 변동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

○ 2023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영업이익은 406,099억원으로 2015년 대비 62.5%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 수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

○ 평균 영업이익은 2015년 57.8억원에서 2023년 65.2억원으로 증가하여 기업당 평균 수익성 개선

- 평균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2023년 다소 감소

표 3-14 |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이익 추이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기업 수 (누적)	자료 제공기업 수		총영업이익 (당해년)	평균 영업이익 (당해년)
		제공	미제공		
2015	8,362	4,323	4,039	249,968	57.8
2016	9,009	4,697	4,312	285,331	60.7
2017	9,661	5,036	4,625	341,781	67.9
2018	10,464	5,671	4,793	328,832	58.0
2019	11,269	6,246	5,023	294,012	47.1
2020	11,939	6,613	5,326	241,229	36.5
2021	13,017	6,913	6,104	448,538	64.9
2022	14,310	6,789	7,521	524,156	77.2
2023	15,669	6,227	9,442	406,099	65.2
2015년 대비 증감(율)	7,307	1,904	5,403	62.5	12.8

*주: 2024년 기준 16,93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996개)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273개)인 1,269개 기업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일부 기간 감소 후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확대

○ 2023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당기순이익은 316,44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82.4%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 수 증가와 함께 전체 순이익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

○ 총 당기순이익은 2015년 이후 감소와 증가 반복,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수익성 개선
- 특히 2021년 총 당기순이익은 367,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2022년에도 높은 수준 유지

○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5년 40.1억 원에서 2023년 50.8억 원으로 증가, 기업 당 평균 수익 규모 증가
- 평균 당기순이익은 2020년 21.9억 원까지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 이전 평균 당기순이익 규모 상회

표 3-15 | 외국인투자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기업 수 (누적)	자료 제공기업 수		총 당기순이익 (당해년)	평균 당기순이익 (당해년)
		제공	미제공		
2015	8,362	4,327	4,035	173,489	40.1
2016	9,009	4,699	4,310	160,251	34.1
2017	9,661	5,038	4,623	228,764	45.4
2018	10,464	5,671	4,793	209,546	37.0
2019	11,269	6,248	5,021	177,762	28.5
2020	11,939	6,617	5,322	145,228	21.9
2021	13,017	6,920	6,097	367,242	53.1
2022	14,310	6,793	7,517	374,191	55.1
2023	15,669	6,229	9,440	316,449	50.8
2015년 대비 증감(율)	7,307	1,902	5,405	82.4	26.7

*주: 2024년 기준 16,93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996개)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273개)인 1,269개 기업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기반 확대

○ 2023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자산은 9,263,664억 원으로 2015년 대비 83.7%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 수 증가와 함께 전체 자산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

○ 총자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 특히 2021년 이후 증가 폭 확대

- 2021년 총자산은 8,004,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 평균 자산 규모는 2015년 1,164.2억 원에서 2023년 1,486.9억 원으로 증가, 기업 당 평균 자산 규모도 증가

- 평균 자산 규모는 2019년 1,054.6억 원으로 감소, 이후 증가하여 2023년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 기록

표 3-16 | 외국인투자기업 자산 추이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기업 수 (누적)	자료 제공기업 수		총자산 (당해년)	평균 자산 (당해년)
		제공	미제공		
2015	8,362	4,331	4,031	5,042,161	1,164.2
2016	9,009	4,704	4,305	5,431,447	1,154.6
2017	9,661	5,043	4,618	5,727,179	1,135.7
2018	10,464	5,672	4,792	6,030,451	1,063.2
2019	11,269	6,250	5,019	6,591,485	1,054.6
2020	11,939	6,620	5,319	6,992,996	1,056.3
2021	13,017	6,923	6,094	8,004,451	1,156.2
2022	14,310	6,794	7,516	8,752,915	1,288.3
2023	15,669	6,230	9,439	9,263,664	1,486.9
2015년 대비 증감(율)	7,307	1,899	5,408	83.7	27.7

*주: 2024년 기준 16,93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996개)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273개)인 1,269개 기업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 강화

○ 2023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자본은 4,880,548억 원으로 2015년 대비 93.0%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 수 증가와 함께 전체 자본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

○ 총자본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2021년 이후 증가 폭이 확대

- 2021년 총자본은 4,090,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 평균 자본 규모는 2015년 583.9억 원에서 2023년 783.4억 원으로 34.2% 증가, 기업 당 평균 자본 규모도 증가

- 평균 자본 규모는 2020년 531.3억 원으로 감소, 이후 증가하여 2023년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 기록

표 3-17 | 외국인투자기업 자본 추이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기업 수 (누적)	자료 제공기업 수		총자본 (당해년)	평균 자본 (당해년)
		제공	미제공		
2015	8,362	4,330	4,032	2,528,254	583.9
2016	9,009	4,704	4,305	2,750,426	584.7
2017	9,661	5,043	4,618	2,999,933	594.9
2018	10,464	5,672	4,792	3,229,770	569.4
2019	11,269	6,250	5,019	3,383,011	541.3
2020	11,939	6,620	5,319	3,517,486	531.3
2021	13,017	6,924	6,093	4,090,271	590.7
2022	14,310	6,795	7,515	4,520,451	665.3
2023	15,669	6,230	9,439	4,880,548	783.4
2015년 대비 증감(율)	7,307	1,900	5,407	93.0	34.2

*주: 2024년 기준 16,93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996개)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273개)인 1,269개 기업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 규모와 함께 부채 수준도 증가

○ 2023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총부채는 4,383,11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74.4%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 수 증가와 함께 기업 활동 확대에 따른 부채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

○ 총부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2021년 이후 증가 폭이 확대

- 2021년 총부채는 3,914,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이후에도 증가 추세 유지

○ 평균 부채 규모는 2015년 583.3억 원에서 2023년 705.1억 원으로 20.9% 증가하여 기업당 평균 부채 규모도 증가

- 평균 부채 규모는 2018년 496.0억 원까지 감소, 이후 증가하여 2023년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 기록

표 3-18 | 외국인투자기업 부채 추이

(단위 : 개, 억 원, %)

구 분	기업 수 (누적)	자료 제공기업 수		총부채 (당해년)	평균 부채 (당해년)
		제공	미제공		
2015	8,362	4,310	4,052	2,513,906	583.3
2016	9,009	4,681	4,328	2,681,076	572.8
2017	9,661	5,021	4,640	2,727,246	543.2
2018	10,464	5,647	4,817	2,800,681	496.0
2019	11,269	6,233	5,036	3,208,473	514.8
2020	11,939	6,602	5,337	3,475,509	526.4
2021	13,017	6,898	6,119	3,914,180	567.4
2022	14,310	6,775	7,535	4,232,445	624.7
2023	15,669	6,216	9,453	4,383,115	705.1
2015년 대비 증감(율)	7,307	1,906	5,401	74.4	20.9

*주: 2024년 기준 16,938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996개)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273개)인 1,269개 기업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3)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일반현황[17)]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수는 총 8,590개로 전년 대비 약 4.4% 증가

표 3-19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체 수	6,627	7,124	7,644	8,226	8,590
전년대비 증감률	7.9	7.5	7.3	7.6	4.4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지역별 비중은 인천 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 12.2% 순

○ 광주와 충북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광주 106.7%, 충북 23.9%)

표 3-20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023년	8,226	3,854	2,266	702	50	981	5	134	30	204
2024년	8,590	3,860	2,442	739	55	1,052	5	166	62	209
전체대비 비중	100.0	44.9	28.4	8.6	0.6	12.2	0.1	1.9	0.7	2.4
전년대비 증감률	4.4	0.2	7.8	5.3	10.0	7.2	0.0	23.9	106.7	2.5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경제자유구역 내 총 고용인원

○ 경제자유구역 총 고용인원은 2024년 기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

표 3-21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총 고용인원 수 및 증감률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고용인원	195,339	210,023	230,425	234,166	254,775
전년대비 증감률	6.8	7.5	9.7	1.6	8.8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17)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 지역별 고용 인천(48.2%), 부산진해(24.8%), 대구경북(11.3%) 순

○ 광주와 울산, 경기에서 2023년 대비 높은 고용증가율(전년 대비 광주 85.2%, 울산 73.8%, 경기 20.2% 증가)

표 3-22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총 고용인원 수 및 증감률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023년	234,166	111,306	62,645	20,755	1,516	26,040	352	5,864	1,125	4,563
2024년	254,775	122,832	63,144	21,662	1,822	28,835	364	6,104	2,083	7,929
전체대비 비중	100.0	48.2	24.8	8.5	0.7	11.3	0.1	2.4	0.8	3.1
전년대비 증감률	8.8	10.4	0.8	4.4	20.2	10.7	3.4	4.1	85.2	73.8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경제자유구역 내 매출액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의 총 매출액은 189.7조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표 3-23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매출액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매출액	1,135,837	1,351,863	1,722,895	1,859,989	1,897,308
전년대비 증감률	2.2	19.0	27.4	8.0	2.0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지역별 매출액 인천(59.7%), 부산진해(19.5%), 광양만권(10.0%), 대구경북(7.5%) 순

○ 광주와 울산, 충북에서 2023년 대비 높은 매출증감액(전년대비 광주 102.8%, 울산 32.6%, 충북 14.6% 증가)

표 3-24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매출액 및 증감률

(단위 : 억 원,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023년	1,859,989	1,130,841	368,862	178,254	5,244	131,435	713	21,656	2,948	20,036
2024년	1,897,308	1,132,602	369,185	189,930	5,376	142,111	757	24,808	5,980	26,559
전체대비 비중	100	59.7	19.5	10.0	0.3	7.5	0.0	1.3	0.3	1.4
전년대비 증감률	2.0	0.2	0.1	6.6	2.5	8.1	6.2	14.6	102.8	32.6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경제자유구역 내 수출액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의 전체 수출액은 총 3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

표 3-25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수출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수출액	280,857	291,206	349,300	324,524	357,929
전년대비 증감률	-5.2	3.7	19.9	-7.1	10.3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전 지역에서 전년대비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큰 경제자유구역은 광양만권(+25.6%), 울산(+24.2%), 충북(21.7%) 등

표 3-26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수출액 및 증감률

(단위 : 억 원,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023년	324,524	238,255	54,259	10,022	84	15,954	0	3,964	440	1,545
2024년	357,929	267,326	54,627	12,591	94	16,087	0	4,826	459	1,919
전체대비 비중	100	74.7	15.3	3.5	0.0*	4.5	0.0	1.3	0.1	0.5
전년대비 증감률	10.3	12.2	0.7	25.6	11.9	0.8	-	21.7	4.3	24.2

*주: 비중이 0.1 미만인 경우임.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대비 수출액 비중은 0.03%임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투자액

○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의 2024년 투자액은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

표 3-27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투자액	39,038	34,863	35,106	52,316	59,849
전년대비 증감률	-21.0	-10.7	0.7	49.0	14.4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총 누적투자액은 62조 3,460억 원

○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 대비 투자액이 늘어난 가운데 증가폭이 큰 지역은 광주(+70.6%), 울산(+21.0%), 인천(+16.4%), 충북(+13.9%) 등이었으며, 강원은 신규 투자가 없는 지역

표 3-28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단위 : 억 원,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4년 누적 투자액	623,460	420,230	82,047	52,792	6,058	42,719	385	8,782	1,934	8,512
2023년	52,316	29,287	6,453	10,233	278	1,857	0	1,464	343	2,400
2024년	59,849	34,077	7,108	11,233	281	1,993	0	1,667	585	2,904
전체대비 비중	100.0	56.9	11.9	18.8	0.5	3.3	0.0	2.8	1.0	4.9
전년대비 증감률	14.4	16.4	10.2	9.8	1.1	7.3	-	13.9	70.6	21.0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4)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외국인투자 사업체 현황

□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

○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는 690개로 2023년 대비 8.2% 증가

표 3-29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체 수	390	456	496	638	690
전년대비 증감률	11.7	16.9	8.8	28.6	8.2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인천에서 전년 대비 신규파악된 외국인투자 사업체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일부 감소 또는 현상 유지

표 3-30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023년	638	311	218	56	4	30	0	13	0	6
2024년	690	367	217	55	3	29	0	13	0	6
전년대비 증감률	8.2	18.0	-0.5	-1.8	-25.0	-3.3	-	0.0	-	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외국인투자 고용인원

○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2023년 대비 1.4% 증가

표 3-31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고용인원 수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고용인원	46,016	45,296	54,432	56,611	57,389
전년대비 증감률	7.3	-1.6	20.2	4.0	1.4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고용인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 인천, 광양만권 등

○ 인천은 외국인투자 사업체 고용인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전체 고용의 30.4%, 부산 진해는 23.7% 수준

표 3-32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고용인원 수 및 증감률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023년	56,611	35,509	16,202	2,582	103	1,404	0	666	0	145
2024년	57,389	37,368	14,974	2,669	55	1,405	0	773	0	145
전년대비 증감률	1.4	5.2	-7.6	3.4	-46.6	0.1	-	16.1	-	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외국인투자 사업체 매출액

○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매출액은 56.2조원으로 2023년 대비 11.6% 증가

표 3-33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매출액 및 증감률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체 매출액	345,332	427,665	557,162	503,501	562,078
전년대비 증감률	3.4	23.8	30.3	-9.6	11.6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충북,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경기는 감소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대비 외국인투자 사업체 매출 비중은 37.0%,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은 각각 24.1%, 22.4% 기록

표 3-34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매출액 및 증감률

(단위 : 억 원,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023년	503,501	374,663	80,969	38,977	167	5,645	0	1,321	0	1,757
2024년	562,078	419,111	89,153	42,455	100	7,751	0	1,740	0	1,767
전년대비 증감률	11.6	11.9	10.1	8.9	-40.1	37.3	-	31.7	-	0.6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투자액

○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투자액은 3.8조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

표 3-35 |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단위: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투자액	23,152	22,749	21,697	36,663	38,223
전년대비 증감률	-23.8	-1.7	-4.6	69.0	4.3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 지역별로 보면 충북, 대구경북, 인천, 울산 등에서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투자액이 큰 비율로 증가

표 3-36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사업체 투자액 및 증감률

(단위 : 억 원, %)

구 분	전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24년 누적 투자액	242,517	178,224	38,014	20,247	1,058	1,577	0	962	0	2,436
2023년	36,663	23,044	3,657	9,420	122	123	0	110	0	187
2024년	38,223	24,695	3,419	9,505	122	147	0	137	0	198
전년대비 증감률(%)	4.3	7.2	-6.5	0.9	0.0	19.5	-	24.5	-	5.9

〈자료〉 산업통상부(2026).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제2절 주요도시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비교분석

1.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비교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각각 3,458개, 689개로 약 5:1 격차를 보였으며, 경기지역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83.4%가 남부에 집중

○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4,147개 중 경기남부 3,458개(83.4%), 경기북부 689개(16.6%)

- 경기남부 21개 시군,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시군 수 비율(2.1:1)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 비율(5.0:1)이 두 배 이상 격차

○ 시군당 보정 지표로 봐도 격차 확연

- 시군당 평균: 남부 164.6개/시군 vs 북부 68.9개/시군 (남부가 2.4배)

표 3-37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비교(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구분	경기남부	경기북부	남부:북부 비율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3,458	689	5.0 : 1
경기 비중	83.4	16.6	-
전국 비중	17.6	3.5	-
관할 시군 수	21	10	2.1 : 1
시군당 평균	164.6	68.9	2.4 : 1
2020~2025 신규	1,428	272	5.3 : 1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 경기북부의 경기 내 점유율 10~20%대 박스권 정체, 2020~2025 활황기에도 무변동

○ 최근 16년간(2010~2025) 경기북부의 경기도 내 신규 등록 점유율은 10.5~31.4%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며, 평균 약 16% 대 수준

- 2018년(12.9%), 2020년(10.5%) 등 최저점 기록, 2013년은 31.4%로 최고점
- 2020년 이후 활황기에 경기남부 신규 등록은 120→322개로 2.7배 증가, 경기북부도 14→59개로 3.9배 증가했으나 비중은 정체

○ 최근 6년간 절대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로 경기남부 1,428개 vs 경기북부 272개로 5.3:1, 누적 기준 5.0:1보다 격차 확대

□ 경기북부 도·소매(유통) 비중은 69.5%로, 남부 대비 23.7%p 상회

○ 경기남부 도·소매 1,585개(45.8%), 경기북부 도·소매 479개(69.5%)로 북부의 도소매 편중은 남부 대비 23.7%p 초과

○ 남부는 제조업·R&D 분야 상대적 강세

- 기계장비·의료정밀: 남부 8.9% vs 북부 3.8%
- 전기·전자: 남부 8.7% vs 북부 2.8%
- 정보통신: 남부 5.1% vs 북부 1.5%
-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남부 5.6% vs 북부 2.0%

표 3-38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구성 비교

(단위: 개, %)

업종 (표준산업중분류)	경기남부		경기북부	
	기업 수	기업 비중	기업 수	기업 비중
도·소매(유통)	1,585	45.8	479	69.5
기계장비·의료정밀	308	8.9	26	3.8
전기·전자	300	8.7	19	2.8
숙박·음식점	172	5.0	33	4.8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94	5.6	14	2.0
정보통신	175	5.1	10	1.5
화공	146	4.2	14	2.0
기타	578	16.7	94	13.6
합계	3,458	100.0	689	10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 경기북부의 파키스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은 12.6%로 경기남부(2.9%) 대비 4.3배 수준

○ 경기남부 상위 투자국은 중국 19.7%, 일본 13.6%, 미국 12.1%, 홍콩 6.0%, 싱가포르 5.2%로 동아시아·미국 중심 전형적 패턴

○ 경기북부 상위 투자국은 중국 15.1%, 파키스탄 12.6%, 일본 9.4%, 미국 7.4%로 파키스탄 비중이 일본을 추월하는 특이 구조

- 경기북부 파키스탄 외국인투자기업 87개는 양주(주로 무역업), 고양(주로 도소매) 등에 집중
- 파키스탄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중고차 수출·상품종합도매 등 도·소매 분야로 북부의 도소매 편중과 직결

○ 일본·미국 등 주력 투자국 비중은 모두 남부가 북부의 1.4~1.7배 높아 북부의 첨단 자본 흡수 한계

표 3-39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투자국가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투자국가	경기남부		경기북부	
	기업 수	경기남부 내 비중	기업 수	경기북부 내 비중
중국	680	19.7	104	15.1
일본	470	13.6	65	9.4
미국	419	12.1	51	7.4
홍콩	206	6.0	20	2.9
싱가포르	180	5.2	15	2.2
독일	159	4.6	14	2.0
베트남	147	4.3	11	1.6
파키스탄	101	2.9	87	12.6
영국	70	2.0	6	0.9
대만	69	2.0	6	0.9
네덜란드	62	1.8	2	0.3
키르기즈스탄	49	1.4	7	1.0
프랑스	39	1.1	2	0.3
몽골	30	0.9	27	3.9
러시아	19	0.5	8	1.2
기타	758	21.9	264	38.3
합계	3458	100.0	689	10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2. 경기 북부 내 도시별 비교

□ 고양(170개), 양주(150개), 파주(143개)가 경기북부 외국인투자기업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격차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고양특례시 170개(24.7%), 양주시 150개(21.8%), 파주시 143개(20.8%), 남양주시 71개(10.3%)

- 상위 3개 시(고양·양주·파주)가 경기북부 외국인투자기업의 67.2% 차지
- 고양특례시는 1위지만 양주·파주와의 차이가 20~27개에 불과하여 사실상 3개 시 동급

○ 4위 남양주시 이하는 누적 71개 이하로 상위권과 큰 격차

- 동두천 50개, 포천 49개, 의정부 33개, 구리 12개, 가평 6개, 연천 5개 순
- 가평·연천 등 군 단위 지자체는 한 자릿수에 그쳐 외국인투자기업 입지 매우 부재

□ 최근 6년(2020~2025) 활황기에서는 파주(73) 〉 고양(69) 〉 양주(53)로 순위 변동

○ 2020~2025 신규 등록 기준: 파주시 73개(누적의 51.0% 비중), 고양특례시 69개(40.6%), 양주시 53개(35.3%)

- 파주시는 최근 6년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이 누적 기업 수의 절반(51%)을 차지하며, 가장 빠른 증가세
- 고양특례시는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수 기준 경기북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에서는 파주시에 미치지 못해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 존재
- 양주시는 최근 6년 비중 35.3%로 상대적 정체, 누적 2위 지위 유지 어려워질 전망

○ 고양특례시는 누적 1위 지위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

표 3-40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누적 및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비교

(단위: 개, %)

순위	시군	누적 기업 수	경기 북부 내 비중	2020~2025 신규	신규/누적 비중
1	**고양특례시**	170	**24.7**	69	**40.6**
2	양주시	150	21.8	53	35.3
3	**파주시**	143	**20.8**	73	**51.0**
4	남양주시	71	10.3	28	39.4
5	동두천시	50	7.3	11	22.0
6	포천시	49	7.1	19	38.8
7	의정부시	33	4.8	10	30.3
8	구리시	12	1.7	3	25.0

9	가평군	6	0.9	4	66.7
10	연천군	5	0.7	2	40.0
경기북부 합계		689	100.0	272	39.5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 양주·동두천·연천은 도·소매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고양·파주·남양주는 60% 수준

○ 경기북부 시군별 도·소매 매우 큰 편중 정도 차이

- 동두천시 92.0%, 양주시 88.7%, 연천군 80.0%로 도·소매업 비중이 매우 높으며, 타 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은 거의 부재
- 포천시 65.3%, 구리시 66.7%, 파주시 61.5%, 고양특례시 60.6%, 남양주시 60.6%, 의정부시 60.6%로 60%대 분포
- 가평군 33.3%로 가장 다양하나 절대 규모 6개로 의미 한정적

표 3-41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구성 비교

(단위: 개(%))

업종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도·소매(유통)	2 (33.3)	103 (60.6)	8 (66.7)	43 (60.6)	46 (92.0)	133 (88.7)	4 (80.0)	20 (60.6)	88 (61.5)	32 (65.3)
기계장비·의료정밀	–	10 (5.9)	–	4 (5.6)	–	2 (1.3)	–	1 (3.0)	7 (4.9)	2 (4.1)
전기·전자	–	6 (3.5)	–	3 (4.2)	1 (2.0)	2 (1.3)	–	3 (9.1)	4 (2.8)	
숙박·음식점	2 (33.3)	7 (4.1)	1 (8.3)	2 (2.8)	1 (2.0)	2 (1.3)	–	4 (12.1)	8 (5.6)	6 (12.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	4 (2.4)	–	3 (4.2)	–	–	–	3 (9.1)	4 (2.8)	–
정보통신	–	6 (3.5)	–	3 (4.2)	–	–	–	–	1 (0.7)	–
화공	–	5 (2.9)	1 (8.3)	–	–	4 (2.7)	–	–	3 (2.1)	1 (2.0)
기타	2 (33.3)	29 (17.1)	2 (16.7)	13 (18.3)	2 (4.0)	7 (4.7)	1 (20.0)	2 (6.1)	28 (19.6)	8 (16.3)
합계	6 (100.0)	170 (100.0)	12 (100.0)	71 (100.0)	50 (100.0)	150 (100.0)	5 (100.0)	33 (100.0)	143 (100.0)	49 (10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3. 경기도 내 도시별 비교

□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상위 10개는 모두 경기남부가 차지하였으나, 고양특례시가 11위로 경기북부 지역 중에서는 1위 차지

○ 경기도 31개 시군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순위 1~10위는 모두 경기남부

- 1위 성남시 579개(14.0%), 2위 화성특례시 497개(12.0%), 3위 안산시 322개, 4위 용인특례시 277개, 5위 평택시 269개
- 6위 김포시 252개, 7위 수원특례시 232개, 8위 안양시 208개, 9위 시흥시 191개, 10위 부천시 176개

○ 11위 고양특례시 170개(4.1%)가 경기북부 1위, 12위 양주시 150개, 13위 파주시 143개로 경기북부 상위 3개 시가 11~13위

- 고양특례시는 경기 전체에서는 중상위권에 위치, 경기북부 내에서는 1위이나 절대 규모는 성남(579개)의 29%, 화성(497개)의 34% 수준

□ 최근 6년(2020~2025) 신규 흐름만을 보았을 때, 고양특례시 10위, 파주시 9위로 파주가 앞서는 상황

○ 2020~2025 신규 등록 기준 경기도 시군 순위 변동

- 1위 화성특례시 247개, 2위 성남시 194개, 3위 김포시 144개, 4위 안산시 128개, 5위 용인특례시 118개
- 6위 수원특례시 105개, 7위 시흥시 95개, 8위 평택시 88개, 9위 파주시 73개, 10위 고양특례시 69개

○ 고양특례시의 최근 6년 흡수율은 경기 시군 중 10위로 누적 순위(11위)와 큰 차이 없으나, 경기북부 내 1위 지위는 파주(73개)에 추월

- 김포시(144개)의 약진은 김포 한강신도시·골드라인 GTX 등 인프라 효과로, 고양특례시의 GTX-A 개통 시기와 맞물려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육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

표 3-42 | 경기도 31개 시군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순위 (상위 15위)

(단위: 개, %)

순위	시군	권역	누적 기업 수	경기도 내 비중	전국 내 비중	최근 6년 신규 기업수
1	성남시	남부	579	14.0	2.9	194
2	화성특례시	남부	497	12.0	2.5	247
3	안산시	남부	322	7.8	1.6	128
4	용인특례시	남부	277	6.7	1.4	118
5	평택시	남부	269	6.5	1.4	88
6	김포시	남부	252	6.1	1.3	144
7	수원특례시	남부	232	5.6	1.2	105
8	안양시	남부	208	5.0	1.1	67
9	시흥시	남부	191	4.6	1.0	95
10	부천시	남부	176	4.2	0.9	66
11	**고양특례시**	**북부**	**170**	**4.1**	**0.9**	**69**
12	양주시	북부	150	3.6	0.8	53
13	파주시	북부	143	3.4	0.7	73
14	안성시	남부	74	1.8	0.4	22
15	남양주시	북부	71	1.7	0.4	28
기타 16개 시군			533	12.9	2.7	203
경기 합계			4,147	100.0	21.1	1,700

*주: 누적 미상 5건 제외.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 경기북부 3대 거점(고양·양주·파주)이 모두 경기 전체 11~13위에 위치하는 박스권 구조

○ **경기 전체 시군 순위에서 경기북부 시군의 분포 양상**

- 상위 15위 이내: 고양(11위), 양주(12위), 파주(13위), 남양주(15위)
- 16~25위: 동두천(19위), 포천(21위), 의정부(24위)
- 26위 이하: 구리(27위), 가평(30위), 연천(31위)

○ **경기북부 상위 3개 시(고양·양주·파주)의 누적 합산은 463개로 경기 전체의 11.2%**

- 그러나 경기남부 상위 3개 시(성남·화성·안산) 합산은 1,398개로 경기 전체의 33.7%
- 북부 3대 거점 합산이 남부 1개 도시(성남 579개)에도 못미치는 수준

○ **경기북부의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는 단일 시 단위 사업이 아닌 광역 거버넌스 단위의 입지 인프라 강화 필요**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외국인투자기업 활황기 진입에 따른 선제적 유치 전략 수립 필요

○ 2020년 이후 활황기 진입, 이 기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심화

○ 정착·성장 지원 체계 구축이 정책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 역시 신규 유치와 함께 기존 기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특히 COVID-19 충격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고양특례시의 흡수율이 정체되고 있어, 활황기 흐름에 부응하는 시급한 정책 가동 필요

□ 수도권 집중 구조 내에서 고양특례시의 위상 강화 필요

○ 전국 외국인투자기업의 80.4%가 수도권(서울 49.1%, 경기 21.1%, 인천 10.2%)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내 입지 경쟁이 핵심 변수로 작용

○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1위(170개)이나 경기 전체 11위에 불과하며, 경기 최상위권 성남(579개)의 29% 수준에 그쳐 절대 규모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 최근 6년 신규 등록 기준으로 파주시(73개)에 추월당한 상황으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북부 1위 지위마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대응 시급

□ 도·소매 편중 구조 탈피 및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 전환 전략 필요

○ 전국 기준 도·소매(유통) 업종이 전체의 46.3%를 차지하는 편중 구조이며, 경기북부는 이 비중이 69.5%로 남부(45.8%) 대비 약 24%p 초과하는 편중 양상

○ 고양특례시 역시 도·소매 비중이 60.6%로 경기북부 평균 수준이나, R&D(2.4%)·정보통신(3.5%) 비중에서 경기북부 내 상대적 강점을 보유

○ 핵심전략산업(바이오·K콘텐츠·R&D·ICT·MICE) 5대 분야 합계가 경기남부(14.0%) 대비 북부(5.5%)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고양특례시는 이들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중 유치를 통해 질적 전환 도모 필요

□ 투자국 다변화 및 전략적 타깃 투자국 설정 필요

○ 전국 기준 중국(16.6%)·일본(13.8%)·미국(13.0%) 3개국이 전체의 43.4%를 차지하나, 최근 6년간 일본 비중이 누적 평균(13.9%) 대비 최근 5.2%로 급락하고 중국 비중이 심화되는 구조적 변화 진행 중

○ 경기북부의 경우 파키스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12.6%)이 일본(9.4%)을 추월하는 특이 패턴 형성

○ 독일(2.9%)·영국(2.6%)·프랑스(1.4%) 등 첨단 제조업·R&D 강국의 유입 비중이 낮아 향후 전략산업 유치 관점에서 유럽계 첨단 자본의 우선 공략 필요

○ 고양특례시는 중국 의존도 심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미국·유럽계 콘텐츠·바이오·MICE 분야 기업을 타깃으로 한 투자국 다변화 전략 병행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후 지원 강화 필요

○ 전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총매출액(2023년 847조 원)·총자산(926조 원)·총자본(488조 원)은 2015년 대비 각각 66.7%·83.7%·93.0% 증가하는 등 전반적 성장세 유지

○ 다만 평균 종사자 수는 2015년 130.8명에서 2023년 113.2명으로 13.4% 감소하였으며, 이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 구성이 확대된 데 기인

○ 총부채 역시 2015년 대비 74.4% 증가하여 재무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으며, 2020년 COVID-19 충격 시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급락한 전례를 감안하면 선제적 재무 안전망 구축 필요

○ 고양특례시는 신규 유치 기업의 초기 정착 지원과 함께, 기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벤치마킹한 고양형 투자 생태계 조성 필요

○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사업체(8,590개)·고용(25.5만 명)·매출(189.7조 원)·투자(5.9조 원)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도 690개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흡인력 확인

○ 특히 인천(IFEZ)은 외국인투자 사업체 수(367개), 고용(37,368명), 매출(41.9조 원) 모두 전국 1위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이 외국인투자 집적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

○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인센티브 제공 차원을 넘어, 외국인투자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전략적 의미를 가지며 조기 지정 및 실질적 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

□ 경기북부 광역 거버넌스 차원의 외국인투자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경기북부 3대 거점(고양·양주·파주) 합산 외국인투자기업(463개)이 경기남부 1개 도시 성남(579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열위 상태로, 단일 시 단위 정책만으로는 남부와의 격차 해소에 한계

○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1위 도시로서 인근 파주·양주 등과의 광역 연계를 통해 공동 투자유치 인프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부권 전체의 외국인투자기업 역량을 동반 상승시키는 허브 역할 수행 필요

○ 고양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산업 특화 전략(K콘텐츠·바이오·MICE)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도권 입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 필요

제4장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역량 분석

제1절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분석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DNA 모델 기반 역량 분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역량 분석

제1절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분석

1.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추이

□ 1974년 최초 등록 이후 1990년대 형성기, 2000년대 점진적 증가, 2010년대부터 연 10개 내외로 확대

○ 1963~1989년: 신규 2개로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 부재기, 1974년·1987년 각 1개 등록

○ 1990년대: 신규 10개, 연평균 1.0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등록 증가세

- 1998년 2개, 1999년 5개, 2000년 4개로 외국인투자촉진법 효과의 가시화

○ 2000년대: 신규 28개, 연평균 2.8개로 1990년대 대비 약 3배 증가

○ 2010년대: 신규 61개, 연평균 6.1개로 본격적 활성화

- 2013년 9개, 2014년 9개, 2016년 9개, 2017년 10개로 두 자릿수 등록 시작

○ 2025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누적 170개

- 1974년 덕양구 1개 등록을 시작으로 약 50여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
- 동기간 전국 19,628개의 0.9%에 해당, 인구 107만 명·지역내총생산 규모 대비 매우 낮은 비중

□ 2020년대 들어 연평균 11.5개로 확대, 2025년 20개로 역대 최다 기록

○ 2020~2025년: 신규 69개로 전체 누적의 40.6% 차지, 최근 6년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입 집중

- 2020년 5개(COVID 영향), 2021년 9개, 2022년 11개, 2023년 13개, 2024년 11개, 2025년 20개
- 2025년 20개는 1974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 도달한 연간 20개대 기록
- 그러나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활황기(2020~2025년)에서 고양특례시는 0.8% 흡수로 정체
- 최근 6년간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비중이 약 41.5%에 달하는 활황 국면임에도 고양특례시 비중은 누적 평균(0.9%)과 유사

표 4-1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연도별·기간별 등록 추이 (1963~2025)

(단위: 개)

기간	신규 등록	기간말 누적	연평균 등록
1963~1989년	2	2	0.1
1990~1999년	10	12	1.0
2000~2009년	28	40	2.8
2010~2019년	61	101	6.1
2020~2025년	69	170	11.5
누적 합계	170	170	-

*주: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자 기준 분석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2. 구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 일산동구 44.7%, 덕양구 35.9%, 일산서구 19.4% 순 차지

○ 2025년 말 기준 고양특례시 누적 170개 중 일산동구 76개(44.7%), 덕양구 61개(35.9%), 일산서구 33개(19.4%)

- 일산동구는 일산신도시·킨텍스 권역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입지에 가장 유리한 위치로 1위 기록
- 덕양구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임에도 일산동구 대비 약 80% 수준에 그쳐 산업적 입지 매력 한계 존재

□ 구별 최초 등록 시점이 상이

○ 덕양구: 1974년 최초 등록(고양특례시 전체 최초), 누적 61개

○ 일산동구: 1987년 최초 등록(고양특례시 두 번째),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빠른 증가로 누적 1위(76개) 달성

○ 일산서구: 1990년 최초 등록(고양특례시 내 마지막), 누적 33개로 최소 규모

표 4-2 | 고양특례시 구별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 (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년)

구분	누적 등록기업	고양 내 비중	최초 등록 연도
일산동구	76	44.7	1987
덕양구	61	35.9	1974
일산서구	33	19.4	1990
합계	170	100.0	-

*주: 주소 기준 분류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3. 업종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 도매 및 소매업 60.6%로 절반을 크게 상회, 전국 평균(46.3%) 대비 14%p 초과 편중

○ 표준산업중분류 기준 도·소매(유통) 103개(60.6%)가 단연 최다

- 무역업·종합무역업·상품종합도매업 등 단순 유통·중개 기능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의 6할 이상 차지

○ 기계장비·의료정밀 10개(5.9%), 숙박·음식점 7개(4.1%), 전기·전자 6개(3.5%), 정보통신 6개(3.5%) 순

- 정보통신·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서비스 비중이 전국 대비 절반 수준
- 전국 정보통신 7.4% vs 고양 3.5%, 전국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7.3% vs 고양 2.4%

□ 일산서구의 높은 도소매 편중(81.3%) 경향

○ 일산동구(76개): 도·소매 40개(54.1%), 기계장비·의료정밀 6개(8.1%), 화공 4개(5.4%), 숙박음식 3개(4.1%), 전기·전자 3개(4.1%)

○ 덕양구(61개): 도·소매 35개(57.4%), 기계장비·의료정밀 4개(6.6%), 정보통신 4개(6.6%), 숙박음식 3개(4.9%), 공공·기타서비스 3개(4.9%)

- 덕양구는 정보통신 4개로 고양 전체 6개의 67% 점유하여 상대적 ICT 거점 잠재력

○ 일산서구(33개): 도·소매 26개(81.3%)로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높은 도소매 편중, 그 외 분야는 모두 1개 이하

표 4-3 | 고양특례시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별 분포 (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순위	업종	고양 외국인투자기업 수	고양 내 비중	전국 내 비중
1	도·소매(유통)	103	60.6	46.3
2	기계장비·의료정밀	10	5.9	4.3
3	숙박·음식점	7	4.1	5.1
4	전기·전자	6	3.5	4.0
4	정보통신	6	3.5	7.4
6	화공	5	2.9	3.1
6	부동산	5	2.9	2.7
8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4	2.4	7.3
8	공공·기타서비스	4	2.4	1.2
-	기타	20	11.8	-
합계		170	100.0	-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4. 투자국가별 비중

□ 중국·일본·미국 상위 3개국 중심 구조

○ 2025년 말 기준 고양특례시 누적 170개 중 중국 31개(18.2%), 일본 25개(14.7%), 미국 18개(10.6%)로 상위 3개국이 74개(43.5%) 차지

- 국가 구성 자체는 전국 패턴과 유사하나 절대 규모가 작아 다양성 부족
- 고양 전체 투자국 40개국으로 전국 146개국 대비 27% 수준

□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5.3%로 전국 평균(2.9%)의 1.83배

○ 독일 9개(5.3%)는 전국 평균 568개(2.9%)의 1.83배에 해당하는 상대적 강세

- 일산서구의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 4개는 일산서구 전체 32개의 12.5%로 단연 두드러진 비중
- 이는 향후 독일계 제조·R&D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유치 시 기존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시사

○ 반면 영국(0개), 네덜란드(1개, 0.6%), 프랑스(2개, 1.2%) 등 다른 유럽 첨단국 외국인투자기업의 낮은 유입 비중

- 유럽 4개국 합산: 고양 12개(7.1%) vs 전국 9.0% 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독일 9개에 75% 편중된 단일국 의존 구조

□ 파키스탄 7.1%, 몽골 4.1% 등 신흥국 비중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비중

○ 파키스탄 12개(7.1%)는 전국 평균(2.9%)의 2.45배

- 일산동구 8개 집중 분포
- 일산 인근 파키스탄계 무역업·상품중개업 집적 패턴 시사

○ 몽골 7개(4.1%), 나이지리아 5개(2.9%), 우즈베키스탄 4개(2.4%), 이집트 3개(1.8%) 등 신흥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조

- 주로 도·소매·중개무역 분야로 고양특례시 도소매 편중 구조와 직접 연결

□ 구별 투자국 구조 상이

○ 일산동구 동아시아 집중, 덕양구 미국·싱가포르 강세, 일산서구 독일·몽골 등 구조 상의

- 일산동구(74개): 중국 17개(23.0%), 일본 14개(18.9%), 파키스탄 8개(10.8%), 미국 5개(6.8%), 독일 3개(4.1%)
- 덕양구(61개): 중국 11개(18.0%), 미국 8개(13.1%), 일본 5개(8.2%), 싱가포르 5개(8.2%), 파키스탄 4개(6.6%)

- 일산서구(32개): 일본 5개(15.6%), 미국 4개(12.5%), 독일 4개(12.5%), 몽골 4개(12.5%), 중국 3개(9.4%)

표 4-4 | 고양특례시 누적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국가별 분포 (2025년 말 기준)

(단위: 개, %)

순위	투자국가	외국인투자기업수	비중
1	중국	31	18.2
2	일본	25	14.7
3	미국	18	10.6
4	**파키스탄**	**12**	**7.1**
5	**독일**	**9**	**5.3**
6	싱가포르	8	4.7
7	**몽골**	**7**	**4.1**
8	나이지리아	5	2.9
9	홍콩	4	2.4
9	태국	4	2.4
9	우즈베키스탄	4	2.4
12	이란	3	1.8
12	캐나다	3	1.8
12	이집트	3	1.8
15	프랑스	2	1.2
-	기타	32	18.8
-	합계	170	100.0

〈자료〉 산업통상부(2026), 「외국인투자기업정보」(2026.05 추출).

□ 최근 6년(2020~2025) 신규 등록 69개 기준 중국 비중 21.7%로 더 강화, 일본 비중 8.7%로 누적 평균 대비 절반 수준

○ 최근 6년간 신규 등록 투자국 상위: 중국 15개(21.7%), 일본 6개(8.7%), 미국 5개(7.3%), 몽골 5개(7.3%), 싱가포르 4개(5.8%), 홍콩 3개(4.4%), 독일 3개(4.3%), 이집트 3개(4.3%)

- 중국 비중 강화(누적 18.2% → 최근 21.7%): 동아시아 신흥국 자본 의존도 심화
- 일본 비중 급락(누적 14.7% → 최근 8.7%): 일본 자본의 신규 한국 진입 정체 패턴이 고양특례시에서도 확인
- 몽골 비중 약진(누적 4.1% → 최근 7.3%): 중앙아시아 신흥국 자본의 새로운 흐름

○ 중국 의존도 분산, 정체된 일본·유럽 자본 재유치, 신흥국 자본의 도소매 편중 구조 탈피 필요

5. 추가분석[18)]

1) 일반현황

□ 2024년 기준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159개로 이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 진행

○ 2024년 기준 한국평가데이터에 등록된 고양특례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194개이며, 이 중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159개로 82.0% 차지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중 휴·폐업 기업은 31개, 산업활동 상태가 미기재된 기업은 4개
- 경기도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159개(4.2%)가 고양특례시 소재, 이 중 72개(45.3%)가 일산동구 소재

표 4-5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체	영업기업	휴·폐업 기업	미분류(결측)
업체 수	경기도	4,405	3,742	524	139
	고양특례시	194	159	31	4
	덕양구	64	57	7	0
	일산동구	96	72	20	4
	일산서구	34	30	4	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기업 규모별 분포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

○ 2024년 기준 159개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중 중소기업은 98개로 61.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

- 소상공인은 16개(10.1%), 대기업은 3개(1.9%), 중견기업은 1개(0.6%)
- 한편, 규모 미분류 기업은 41개로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25.8% 차지

○ 고양특례시 내 구별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모두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

- 중소기업은 일산동구에 44개, 덕양구에 37개, 일산서구에 17개 소재 중

18) 2024년 기준 한국평가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분석하였으며, 일부 미분류, 누락 등이 포함되어 수치해석에 주의 필요함. 또한 앞서 살펴본 현황자료는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자료이며, 추가분석시 사용되는 자료와 시점·집계 기준 상이함.

표 4-6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업체 수	비율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대기업	62	1.7	3	1.9	1	1.8	1	1.4	1	3.3
중견기업	259	6.9	1	0.6	1	1.8	0	0.0	0	0.0
중소기업	2,277	60.8	98	61.6	37	64.9	44	61.1	17	56.7
소상공인	203	5.4	16	10.1	7	12.3	4	5.6	5	16.7
판단제외	3	0.1	0	0.0	0	0.0	0	0.0	0	0.0
미분류	938	25.1	41	25.8	11	19.3	23	31.9	7	23.3
합계	3,742	100.0	159	100.0	57	100.0	72	100.0	30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별 분포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이 대부분 차지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159개 중 법인기업은 153개로 전체의 96.2% 차지**

- 고양특례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기준 주식회사가 132개(83.0%)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유한회사 21개(13.2%)
-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비영리재단법인 등 기타 법인 형태는 부재

○ **개인기업은 6개(3.8%)로 법인기업 중심의 구조 형성**

○ **고양특례시 내 구별로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

- 일산동구 소재 72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주식회사 64개(88.9%), 개인기업 1개(1.4%), 유한회사 7개(9.7%)
- 덕양구 소재 57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주식회사 40개(70.2%), 유한회사 14개(24.6%), 개인기업 3개(5.3%)
- 일산서구 소재 30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주식회사 28개(93.3%), 개인기업 2개(6.7%)

표 4-7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계
		개인	개인 동업	주식 회사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합자 회사	기타 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경기도	업체 수	105	0	3,149	468	19	1	0	0	3,742
	비율	2.8	0.0	84.2	12.5	0.5	0.0	0.0	0.0	100.0
고양 특례시	업체 수	6	0	132	21	0	0	0	0	159
	비율	3.8	0.0	83.0	13.2	0.0	0.0	0.0	0.0	100.0
덕양구	업체 수	3	0	40	14	0	0	0	0	57
	비율	5.3	0.0	70.2	24.6	0.0	0.0	0.0	0.0	100.0
일산 동구	업체 수	1	0	64	7	0	0	0	0	72
	비율	1.4	0.0	88.9	9.7	0.0	0.0	0.0	0.0	100.0
일산 서구	업체 수	2	0	28	0	0	0	0	0	30
	비율	6.7	0.0	93.3	0.0	0.0	0.0	0.0	0.0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증기업 비중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159개 중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기업은 각각 3개로 전체의 1.9% 수준

- 소재부품전문기업은 2개로 1.3% 차지

○ 경기도 대비 고양특례시의 인증기업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고양특례시 내 구별 인증기업 비중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덕양구는 57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기업이 각각 2개(3.5%)이며, 벤처인증기업과 소재부품전문기업은 각 1개(1.8%)
- 일산동구는 72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벤처인증기업이 2개(2.8%)이며,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은 각 1개(1.4%)
- 일산서구는 30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이 전무한 상태

표 4-8 | 2024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인증정보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경기도	업체 수	196	3,546	177	3,565	61	3,681	90	3,652
	비율	5.2	94.8	4.7	95.3	1.6	98.4	2.4	97.6
고양 특례시	업체 수	3	156	3	156	3	156	2	157
	비율	1.9	98.1	1.9	98.1	1.9	98.1	1.3	98.7
덕양구	업체 수	1	56	2	55	2	55	1	56
	비율	1.8	98.2	3.5	96.5	3.5	96.5	1.8	98.2
일산 동구	업체 수	2	70	1	71	1	71	1	71
	비율	2.8	97.2	1.4	98.6	1.4	98.6	1.4	98.6
일산 서구	업체 수	0	30	0	30	0	30	0	30
	비율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도매 및 소매업 중심의 산업구조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159개 중 도매 및 소매업이 82개(51.6%)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이는 경기도 전체 도매 및 소매업 비중(40.4%)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통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 **제조업은 31개(19.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제조업 내에서는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이 각각 5개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경기도 전체 제조업 비중(33.5%) 대비 낮은 수준으로, 고양특례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 및 유통 중심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

○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개(6.3%), 정보통신업은 8개(5.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개(3.8%) 차지**

○ **고양특례시 내 구별로도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

- 덕양구: 57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27개(47.4%), 제조업 12개(21.1%), 정보통신업 6개(1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통신업 비중
- 일산동구: 72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36개(50.0%), 제조업 16개(22.2%),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각 4개(5.6%) 차지
- 일산서구: 30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19개(63.3%), 제조업 3개(10.0%),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이 각 2개(6.7%) 차지

표 4-9 | 2024년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별 현황(표준산업분류 11차)

(단위 : 개(%))

업종분류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농림어업	16 (0.4)	1 (0.6)	0 (0.0)	0 (0.0)	1 (3.3)
제조업	1,252 (33.5)	31 (19.5)	12 (21.1)	16 (22.2)	3 (10.0)
식료품 제조업	58	2	1	1	0
음료 제조업	9	1	0	0	1
담배 제조업	1	0	0	0	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8	1	0	1	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2	1	1	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	2	1	1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	0	0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	0	0	0	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0	0	0	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	0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2	4	2	2	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	2	0	2	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1	1	0	1	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	0	0	0	0
1차 금속 제조업	33	0	0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8	0	0	0	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7	1	1	0	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8	5	3	2	0
전기장비 제조업	74	5	2	1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8	3	0	3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7	0	0	0	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	0	0	0	0
가구 제조업	5	0	0	0	0
기타 제품 제조업	54	2	1	1	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1	0	0	0	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2 (0.3)	1 (0.6)	0 (0.0)	1 (1.4)	0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8 (0.5)	1 (0.6)	0 (0.0)	1 (1.4)	0 (0.0)
건설업	36 (1.0)	5 (3.1)	1 (1.8)	4 (5.6)	0 (0.0)
도매 및 소매업	1,513 (40.4)	82 (51.6)	27 (47.4)	36 (50.0)	19 (63.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28	10	1	5	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07	65	21	30	14
	소매업; 자동차 제외	78	7	5	1	1
운수 및 창고업		55 (1.5)	3 (1.9)	1 (1.8)	2 (2.8)	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76 (4.7)	10 (6.3)	4 (7.0)	4 (5.6)	2 (6.7)
정보통신업		205 (5.5)	8 (5.0)	6 (10.5)	1 (1.4)	1 (3.3)
금융 및 보험업		36 (1.0)	0 (0.0)	0 (0.0)	0 (0.0)	0 (0.0)
부동산업		97 (2.6)	3 (1.9)	1 (1.8)	0 (0.0)	2 (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8 (5.6)	6 (3.8)	3 (5.3)	2 (2.8)	1 (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5 (1.2)	5 (3.1)	2 (3.5)	3 (4.2)	0 (0.0)
교육 서비스업		11 (0.3)	0 (0.0)	0 (0.0)	0 (0.0)	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0)	0 (0.0)	0 (0.0)	0 (0.0)	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 (0.3)	2 (1.3)	0 (0.0)	1 (1.4)	1 (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0.5)	1 (0.6)	0 (0.0)	1 (1.4)	0 (0.0)
미분류		34 (0.9)	0 (0.0)	0 (0.0)	0 (0.0)	0 (0.0)
합계		3,742 (100.0)	159 (100.0)	57 (100.0)	72 (100.0)	30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내 외국인투자 확대 흐름

○ **전체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중 높은 비율이 비교적 최근 설립**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159개 중 2021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42개(26.4%)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반면, 2000년 이전 설립 기업은 19개(11.9%)로 경기도 전체(17.0%)보다 낮은 비중 차지

○ **고양특례시 내 구별로도 최근 설립된 기업 비중이 높은 구조**

- 덕양구 소재 57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1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21개(36.8%)로 고양특례시 내에서 최근 설립된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 일산동구 소재 72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19개(26.4%)가 2011~2015년에 설립, 2021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12개(16.7%)

- 일산서구 소재 30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2011~2015, 2021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각각 9개(30.0%)로 높은 비중 차지

표 4-10 | 2024년 기준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연도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0년 이전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년 이후	미분류	합계
경기도	업체 수	637	340	404	603	734	962	62	3,742
	비율	17.0	9.1	10.8	16.1	19.6	25.7	1.7	100.0
고양특례시	업체 수	19	16	17	34	27	42	4	159
	비율	11.9	10.1	10.7	21.4	17.0	26.4	2.5	100.0
덕양구	업체 수	9	5	6	6	8	21	2	57
	비율	15.8	8.8	10.5	10.5	14.0	36.8	3.5	100.0
일산동구	업체 수	9	8	9	19	14	12	1	72
	비율	12.5	11.1	12.5	26.4	19.4	16.7	1.4	100.0
일산서구	업체 수	1	3	2	9	5	9	1	30
	비율	3.3	10.0	6.7	30.0	16.7	30.0	3.3	100.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23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19.69명으로 2015년 대비 6.41명 감소**

-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 종사자 수가 7.93명 감소한 것과 유사한 감소 추세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명 중반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최근 20명 내외 수준 유지**

- 2020년 29.75명에서 2023년 19.69명으로 감소 추세 지속

○ **고양특례시 내 구별로도 평균 종사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 덕양구는 2023년 평균 종사자 수가 22.88명으로 2015년 대비 9.66명 감소하여 고양특례시 전체 감소 폭 상회
- 일산동구는 2023년 평균 종사자 수가 20.09명으로 2015년 대비 2.31명 감소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일산서구는 2023년 평균 종사자 수가 13.50명으로 고양특례시 내에서 평균 종사자 수가 가장 적으며, 2015년 대비 11.50명 감소하여 감소 폭도 가장 큰 지역

표 4-11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종사자 추이

(단위 : 명)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5	94.04	26.10	32.54	22.40	25.00
2016	92.44	27.22	31.13	25.05	26.00
2017	98.10	25.38	27.70	24.53	24.20
2018	98.58	26.42	26.40	27.40	24.41
2019	96.89	28.09	26.16	33.03	22.00
2020	94.28	29.75	24.39	36.97	22.44
2021	92.43	22.91	24.04	25.25	16.50
2022	85.35	20.82	22.81	22.77	13.16
2023	86.11	19.69	22.88	20.09	13.50
2015년 대비 변화	-7.93	-6.41	-9.66	-2.31	-11.5

*주: 202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2) 재무현황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구별로 평균 매출액 및 변화 추세 상이

○ 2023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41.1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3.1억 원 증가,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매출액의 16.6% 수준

- 같은 기간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1.3억 원 증가, 고양특례시와 유사한 증가 추세
- 고양특례시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96.1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회복세

○ 고양특례시 내 구별로 평균 매출액 변화는 지역별로 상이

- 덕양구는 2023년 평균 매출액이 239.3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20.7억 원 증가, 고양특례시 내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수준과 증가 폭
- 일산동구는 2023년 평균 매출액이 76.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32.6억원 감소
- 일산서구는 2023년 평균 매출액이 116.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76.9억원 감소,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큰 감소 폭

표 4-12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5	807.6	128.0	118.6	109.5	192.9
2016	724.7	140.6	121.2	94.7	295.6
2017	763.6	195.6	133.3	108.0	481.5
2018	681.1	181.1	119.9	79.4	531.8
2019	676.8	122.2	136.8	92.9	161.1
2020	654.8	96.1	113.6	91.5	69.7
2021	714.6	106.5	151.4	75.4	107.2
2022	799.1	139.8	203.0	94.7	134.8
2023	848.9	141.1	239.3	76.9	116.0
2015년 대비 변화	41.3	13.1	120.7	-32.6	-76.9

*주: 202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일시적 감소 이후 회복 추세, 구별로 수익성 수준과 변화 추세는 상이

○ 2023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8.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8.2억원 증가,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영업이익의 15.8% 수준

-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 영업이익은 14.3억 원 증가, 고양특례시와 유사한 증가 추세
- 고양특례시 평균 영업이익은 2018년 19.5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과 2020년 적자 기록,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23년 8.5억 원 기록

○ 고양특례시 내 구별 평균 영업이익은 지역별로 상이한 추세

- 덕양구: 2023년 평균 영업이익이 40.6억 원으로 2015년 대비 30.2억 원 증가,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 영업이익 수준과 증가폭
- 일산동구: 2023년 평균 영업이익이 -11.7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1.2억 원 감소, 전반적으로 적자 수준이 확대되는 경향
- 일산서구: 2023년 평균 영업이익이 -5.0억 원으로 적자 기록, 2015년 대비 적자 규모 감소

표 4-13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5	39.5	0.3	10.4	-0.5	-11.0
2016	39.1	13.4	15.5	2.9	41.9
2017	40.5	18.6	10.0	1.4	77.7
2018	37.0	19.5	8.2	-3.0	102.2
2019	31.9	-1.3	4.9	-4.9	-5.7
2020	39.5	-1.5	0.4	2.8	-18.2
2021	52.6	1.5	16.1	-4.9	-11.1
2022	64.1	7.1	26.6	-5.2	-1.3
2023	53.8	8.5	40.6	-11.7	-5.0
2015년 대비 변화	14.3	8.2	30.2	-11.2	6.0

*주: 202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변동성이 크며 최근 적자 기록

○ 2023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4.6억 원 적자 기록, 2015년 대비 적자 규모 개선

-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33.8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0.1억 원 증가
- 고양특례시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6~2018년 흑자 기록, 2019~2020년, 2022~2023년 적자 기록을 통해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변동성이 큰 모습
- 이는 평균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는 경기도와 대조적

○ 고양특례시 내 구별 평균 당기순이익은 지역별로 상이한 추세

- 덕양구: 202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25.8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5.2억 원 증가, 고양특례시 내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지역
- 일산동구: 202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12.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1.1억원 감소, 적자 규모 확대 및 적자 기조 지속
- 일산서구: 202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47.7억 원으로 2015년과 유사한 적자 규모 기록,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

표 4-1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5	33.8	-7.2	10.6	-1.4	-48.1
2016	26.7	7.2	13.7	1.6	13.7
2017	26.6	5.8	7.1	-7.1	39.5
2018	23.4	13.1	7.4	-1.6	63.8
2019	18.9	-7.5	-8.1	-2.6	-18.6
2020	39.2	-18.9	-23.6	-12.3	-27.8
2021	67.3	0.8	14.8	-3.1	-18.8
2022	41.9	-4.2	19.7	-20.5	-10.5
2023	33.9	-4.6	25.8	-12.5	-47.7
2015년 대비 변화	0.1	2.6	15.2	-11.1	0.4

*주: 202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자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3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자산은 316.4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7.0억 원 증가,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자산의 27.8% 수준

-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 자산은 762.0억 원에서 1,139.9억 원으로 377.9억원 증가, 전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고양특례시 평균 자산은 2020년 이후 증가세, 최근 자산 규모 크게 확대

○ 고양특례시 내 구별 평균 자산은 지역별로 상이한 추세

- 덕양구는 2023년 평균 자산이 259.8억 원으로 2015년 대비 44.7억 원 증가, 2019년 이후 평균 자산 규모의 전반적인 증가세
- 일산동구는 2023년 평균 자산이 367.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37.1억 원 증가,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큰 평균 자산 증가 폭 기록, 평균 자산 규모도 가장 높은 수준
- 일산서구는 2023년 평균 자산이 300.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566.3억 원 감소, 고양특례시 내에서 평균 자산 규모가 크게 감소

표 4-15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자산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5	762.0	289.4	215.1	129.9	867.2
2016	763.2	301.7	236.8	187.8	745.2
2017	733.9	310.0	256.2	217.8	637.5
2018	708.7	320.1	208.1	236.5	751.5
2019	740.4	257.5	173.3	267.0	411.2
2020	757.3	250.9	186.2	257.4	375.7
2021	868.5	253.0	184.8	259.2	391.2
2022	973.9	254.4	202.4	266.7	341.9
2023	1,139.9	316.4	259.8	367.0	300.9
2015년 대비 변화	377.9	27.0	44.7	237.1	-566.3

*주: 202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자본은 변동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소폭 증가

○ 2023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자본은 63.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6.0억 원 증가,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자본의 10.2% 수준

-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 자본은 396.3억 원에서 625.1억 원으로 228.8억 원 증가, 지속적으로 자본 규모 확대되는 추세
- 고양특례시의 평균 자본은 2017년 126.1억 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2020년 이후 50~70억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23년 63.5억 원 기록
- 이는 평균 자본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경기도와 대조적

○ 고양특례시 내 구별 평균 자본은 지역별로 상이한 추세

- 덕양구는 2023년 평균 자본이 152.8억 원으로 2015년 대비 7.1억 원 증가, 최근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은 자본 수준을 유지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 일산동구는 2023년 평균 자본이 59.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9.2억 원 감소, 전반적인 감소세
- 일산서구는 2023년 평균 자본이 -114.6억 원으로 2015년 대비 39.0억 원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 지속

표 4-16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자본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5	396.3	57.5	145.7	88.7	-153.6
2016	396.8	96.7	179.2	124.6	-116.9
2017	396.5	126.1	188.8	158.2	-48.3
2018	375.7	118.2	145.8	135.5	21.3
2019	379.9	98.1	112.6	123.6	2.3
2020	401.1	75.3	91.3	100.7	-33.3
2021	490.2	69.6	101.8	82.9	-51.4
2022	559.0	53.7	113.9	44.4	-63.7
2023	625.1	63.5	152.8	59.5	-114.6
2015년 대비 변화	228.8	6.0	7.1	-29.2	39.0

*주: 202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부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3년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부채는 252.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1.0억 원 증가,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부채 규모의 49.1% 수준

-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부채는 366.4억 원에서 514.8억 원으로 148.4억 원 증가, 전반적인 부채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
- 고양특례시의 평균 부채 규모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이는 경기도 평균 부채 규모 추이와 유사한 모습

○ 고양특례시 내 구별 평균 부채는 지역별로 상이한 추세

- 덕양구: 2023년 평균 부채가 107.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37.6억 원 증가, 전반적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일산동구: 2023년 평균 부채가 307.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66.3억 원 증가,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높은 부채 규모의 증가세 기록
- 일산서구: 2023년 평균 부채가 415.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605.2억 원 감소, 고양특례시 내에서 가장 큰 부채 규모 감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표 4-17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부채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5	366.4	231.9	69.4	41.2	1,020.7
2016	367.0	205.0	57.6	63.2	862.1
2017	337.6	183.9	67.4	59.6	685.8
2018	333.7	201.9	62.3	101.0	730.2
2019	361.0	159.5	60.7	143.5	408.9
2020	356.6	175.5	94.9	156.8	408.9
2021	379.4	186.5	83.0	182.1	442.6
2022	416.2	200.7	88.4	222.3	405.6
2023	514.8	252.9	107.0	307.5	415.5
2015년 대비 변화	148.4	21.0	37.6	266.3	-605.2

*주: 202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중 2024년 창설 기업과 창설연도 미기재 기업은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DNA 모델 기반 역량 분석

1. 분석 개요 및 모델 설명

1) 기본 개요

□ 분석 대상

○ 고양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주요 경쟁 도시들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감기업

□ 분석 목적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역량의 다각적 진단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정책적 근거 자료 제공

- 잠재 지표는 AI 예측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산출된 미래 성장 가능성 수치 의미, 이는 현행 지표와의 정량적 대비를 통해 해당 기업군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핵심 척도

□ 분석 방법

○ 고양특례시와 주요 도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행 및 잠재 역량에 대한 비교분석

○ 기업의 현행과 잠재역량 분석은 KISTI의 'AI기반 기업 DNA모델' 기반 분석을 통해 현행 분석과 잠재분석을 진행, 각각 7개 지표 도출

- 현행지표: 약 100개 이상의 기업 공개 재무 및 기타 데이터를 AI 분석모형으로 분석하여 7개 지표로 압축·수치화한 평가체계
- 잠재 지표: 기업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예측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산출된 미래 잠재 성장 가능성 수치 의미, 이는 현행 지표와의 정량적 대비를 통하여 해당 기업군의 내재적 성장잠재력을 측정하는 핵심 척도로서 기능

2) 분석 모델 설명

□ AI기반 기업 DNA 모델

○ 기업마다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7개 분야의 총합 점수를 통해 기업의 현재 상태와 잠재력 두 가지로 나타내주는 모형

○ 기업의 현황을 군집분석 알고리즘과 차원 축소 알고리즘(딥러닝)을 활용하여 116개의 변수를 7개의 변수로 압축

- 딥러닝(Auto-encoder): 다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압축, 다시 다차원으로 복원해 주는 알고리즘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 데이터의 특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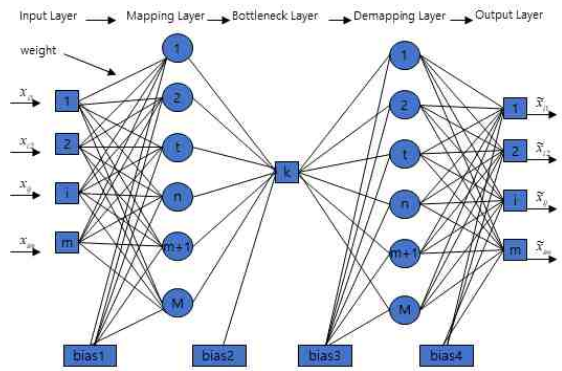
○ 기업의 잠재력은 준지도학습을 활용하여 설계하였고 7개 분야와 전체적인 잠재력 점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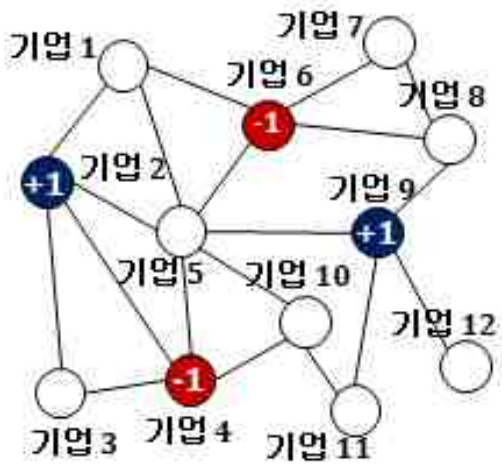
- 준지도학습: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예측 또는 추정하는 문제에서 정보가 없는 개체가 많은 예측 문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특징

- 그래프 기반 구조로 표현되며, 개체(기업)를 노드로 설정하고 개체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연결관계를 구성하는 방식

그림 4-1 | 기업 DNA 모델 알고리즘

Deep Learning (Auto-encoder)	Semi supervised Learning





〈자료〉 Network based enterprise profiling with semi-supervised learning.Park et al.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2024

3) 기업 DNA 모델에서 도출된 7개 결과 지표 의미

○ 제공된 기업데이터 기반 변수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은 7가지 지표 추출 및 정의

표 4-18 | 기업 DNA 모델에서 도출된 7가지 지표

구분	정의	시사점
영업효율성	매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투입된 영업활동 관련 비용 요소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발현하였는가를 계측하는 지표	마케팅비, 관리비 등 제반 영업비용 대비 최종적인 매출액의 창출 역량
운영안정성	회계연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된 수익을 활용하여 단기성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영업 운영의 재무적 안정성 지위를 확인	기업 주체의 단기 재무 건전성 및 운영 자금 확보의 안정성. DSR 40%와 유사한 의미로 40점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해석
재무건전성	총자본(혹은 자기자본) 규모 대비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채무 관리의 안정성 및 재무 구조의 건전한 상태를 표명하는 지표	장기 채무에 대한 관리 역량 및 기업 재무 구조의 항구적인 안정성
기업수익성	광범위한 기업 이익률 지표들을 실현주의 및 현금주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장부상의 이익과 실제 현금흐름의 창출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기업 활동을 통해 귀속되는 궁극적인 이익의 질적 수준 및 양적 규모
자본활용성	투입된 총자본(혹은 자기자본)이 이익 창출 활동에 미친 영향력 및 자본 자체의 역할적 중요도를 측정함으로써, 자본 요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투하된 자본금 대비 산출된 성과의 창출 역량
생산효율성	기업이 수익(또는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제반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지표	핵심 자산(인적 자원, 설비 등) 투입 규모 대비 생산성의 실현 정도
기술잠재성	기업의 매출, 이익 및 자산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수준 및 투자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연구개발(R&D) 투자 강도 및 혁신 역량의 수행 노력

〈자료〉 연구진 작성.

2.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기업 DNA 지표 분석

□ 지표 구성 및 분석 개요

○ 기업의 다각적 경영 역량을 반영한 7가지 현행 지표와 동일 구조의 잠재 지표로 구성

○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모델을 통해 예측된 결과로서 현재 경영 환경 및 기업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현행지표와 미래 성장 기대치를 나타내는 잠재지표 의미

○ 본 지표 결과는 외부의 지원 또는 충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고양특례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적 개입과 외국인투자기업 자체의 구조적 혁신 노력이 수반될 때 변화 가능

- 예측 수치 자체가 정책적 조치의 결과는 아니며,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 필요

□ 종합 역량 분석 및 잠재 성장 가능성 진단

○ 기술지원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 시사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행 종합 점수는 46.30점, 잠재 종합 점수는 49.34점으로 예측되어 +3.04점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행 역량대비 잠재 역량을 볼 때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적 수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비교 대상 도시(인구 50만이상 시)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구조적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

- 특히 세부지표별 잠재 종합 점수와 현행 종합 점수 간의 격차는 정책적 개입의 투자 대비 효과(ROI)가 높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

□ 세부 지표별 잠재 성장 동력에 대한 심층 분석

○ 현행 분석에서 약점 영역으로 진단되었던 지표들인 기술잠재성(+16.28), 생산효율성(+7.84), 영업효율성(+7.57), 운영안정성(+7.05)에서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기술잠재성의 경우 +16.28점이라는 큰 격차는 현재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통·서비스 중심의 저기술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R&D 기능을 내재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동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 이는 단순한 개선 가능성을 넘어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영역으로, 정책적 우선 개입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해석 가능한 결과

- 생산 및 영업 효율성 지표의 경우 높은 잠재력은 현재의 자원 활용 구조 또는 비용 대비 성과 창출 과정에서 비효율이 존재하며, 시스템 개선이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영역임을 시사

- 이는 대규모 투자보다 운영 효율화 중심 정책을 통해 빠른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해석 가능한 특징

□ 잠재 위험요인 및 구조적 한계 진단

○ **현행의 강점으로 분류된 기업수익성(-8.47)과 재무건전성(-2.71)지표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수익성 회귀 위험성: 잠재적으로 -8.47점의 기업수익성 하락 예측은 현재의 수익 구조가 R&D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 시장의 평균 수익률로 회귀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 이는 수익성을 기술 잠재성 강화에 재투자하는 정책적 유인책이 없으면 현재의 강점이 미래의 약점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경고
- 자본활용성의 정체: 자본활용성(0.00)의 잠재력은 자본의 이익 창출 기여도가 정체될 것으로 예측되어, 유휴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거나 자본 집약도가 낮은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

표 4-19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기업 DNA 모델 분석 결과

구분	고양특례시 평균(현행)	고양특례시 평균(잠재)	잠재성장 Gap	정의 및 현황에 대한 해석
영업효율성	43.17 (미흡)	50.74	+7.57	현행 영업효율성은 열위하나, 향후 영업효율화 노력을 통해 개선수준의 잠재력 내재
운영안정성	41.93 (미흡)	48.98	+7.05	현행 유동성 및 안정성 수준은 안정적이며, 잠재적으로 자구적 노력에 의해 안정성이 높아질 여력은 충분하나 이미 40점이상인 상황이므로 다른 곳으로 투입여력을 돌려도 되는 상황
재무건전성	52.34 (양호)	49.63	-2.71	현행 건전성 수준은 양호하나, 시장 유동성 변화에 따라 미래 예측치는 약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기업수익성	57.63 (최고)	49.16	-8.47	현행 수익성은 우월하게 나타나나, 잠재적 수익 성장 여력은 경쟁 환경 등의 영향으로 하방으로 나타나 대내외적으로 지원과 자구책 필요
자본활용성	48.52 (보통)	48.52	0.00	자본 활용 효율성의 현행 및 잠재적 수준이 동일하게 정체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 자본 활용의 활성화 필요
생산효율성	41.07 (미흡)	48.91	+7.84	현행 생산성은 낮으나, 기술 지원등 외부 도움이 있으면, 잠재적 성장력이 개선가능한 수준으로 예측
기술잠재성	39.29 (최저)	55.57	+16.28	현행 기술투자강도는 매우 낮으나, 정책적 개입 시 잠재성은 가장 크게 내재
Total Score	46.30	49.34	+3.04	전반적인 기업 역량의 현행 및 미래 종합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

〈자료〉 연구진 작성.

□ 장단점에 따른 전략적 활용 방안

○ 단기적인 '고마진(기업수익성)의 역설적 환경'에서 벗어나 '절대적 규모와 혁신 역량(기술/생산효율성)'을 병행하여 확보 필요

표 4-20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전략적 활용 방안

구분	특징의 내용	전략적 활용 방안
[특징 1] 우월한 현금흐름 창출 역량	• 기업수익성 지표가 경쟁 도시 중 최상위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높고, 장부상 이익뿐만 아니라 실질 현금흐름 창출 역량이 우수함을 실증	• 상대적 저비용 환경이 고마진 사업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 •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을 지향하는 외국계 전문 법인 및 컨설팅 기업 유치 필요
[특징 2] 상대적인 저비용 구조의 확보	• 평균 인건비 규모가 가장 낮게 측정 • 사업 운영 시 노동비용/효율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 형성	• 고도의 인건비 투입을 요구하지 않는 자동화 물류 및 첨단 유통 거점 또는 소수 정예 기반의 고부가 서비스 기업유치 시 매력적인 요소로 활용 가능
[특징 3] 잠재적인 영업 효율성의 개선 여력	• 잠재_영업효율성의 개선 역량이 크게 예측 • 정책적 지원이 동반될 시 영업활동 비용의 효율적 활용이 신속히 실현될 가능성	•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과정에서 초기 영업 비용 절감 및 효율화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잠재력의 조기 실현 가속화
[약점 1] 최하위 기술잠재성	• 연구개발(R&D) 투자 강도가 압도적으로 낮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근본적인 한계 명확	• 특화 산업 분야(바이오, 미디어, MICE 연계 첨단 서비스)에 해당하는 R&D 센터 및 아시아태평양(APAC) 본사 기능 등을 유치에 주력 • 단순 제조/유통 법인을 넘어, 연구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연구 공간의 무상 임대, 지역 대학과의 전문 인력 연계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제공 필요
[약점 2] 낮은 생산효율성	• 이익 창출을 위한 제반 자원 활용 효율성이 낮으며, 제조 및 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태	• 관내 저밀도 산업단지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 물류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필요 • 특히, 유통업이 주력인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구조를 감안하여 로봇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고효율 물류 시스템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집중
[약점 3] 규모의 영세성	• 매출액 규모가 낮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	•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필요 •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및 인건비 100억 원 이상 등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외국인투자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이 우수한(재무건전성 우수) 우량 기업유치에 우선순위를 할당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고양특례시의 외국인투자기업 집단은 높은 기업수익성을 근거로 하는 내실 있는 운영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잠재성과 생산효율성에서의 최하위권 지위 및 기업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구조적 한계 직면한 상태**

- 이러한 현행 상태의 지속은 미래 경쟁력 확보와 특례시로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기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핵심 정책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

- 기술 중심 포트폴리오로의 이행: 현재의 저기술/고마진 구조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R&D) 투자 강도가 높은(기술잠재성 우수)외국인투자기업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설정
- 도시 특화 산업과의 연계 및 규모화 달성: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미디어/문화, 바이오메디컬, MICE 산업과의 연계성을 지니는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및 첨단 기술 본사기능을 유치하여,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및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 필요
- 이는 단순히 매출액 증대를 초월하여, 주변 지역 인재를 흡수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료

○ **혁신 역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하여, 타도시들의 대규모 제조업 기반 대신 첨단 R&D 및 고효율 서비스 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적인 행정 지원 집행 필요**

3. 경쟁 권역별 심층 비교 분석

1) 경기도 북부 도시 권역(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 비교우위의 구조적 취약성 및 리더십 확보의 당위성

○ **고양특례시의 현행지표의 Total Score(46.3) 및 잠재지표의 Total Score(49.3)는 경기북부 3개 도시 평균과 유사**

- 양적인 지표(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에서는 고양특례시가 1위를 기록 중이나 질적인 지표(현행지표, 잠재지표)에서는 고양특례시가 경기 북부 권역 내에서 중위권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생태계의 잠재적 선도 역할을 수행하려면 질적 지표별 개선 필요
- 현행_기술잠재성은 권역별 내 2위인데 잠재_기술잠재성은 4위로 예측되는 것을 보면 고양특례시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R&D투자와 기술 수준 향상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잠재성을 빠른시일내에 현행화하여 북부 권역의 기술 및R&D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정책적 기회 포착 필요
- 시기를 놓칠경우, 현재 북부권역별 가장 높은 매출액과 현행의 높은 영업이익과 같은 수익성만을 근거로 하는 '수익성은 높으나 미래 성장 동력이 결여된 구조'로 고착화될 위험성 상존

○ **고양특례시가 잠재 기술력을 실현할 경우, 북부권 내 FIEs의 기술적 협력 수요가 고양특례시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양특례시의 잠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 가능**

- 북부권 내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리더십 확보는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

표 4-21 | 고양특례시와 경기북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1

	영업효율성	보상탄력성	재무건전성	기업수익성	자본활용성	생산효율성	기술잠재성	total_score
고양특례시	43.2	41.9	52.3	57.6	48.5	41.1	39.3	46.3
김포시	50.6	41.3	49.0	58.6	46.7	43.0	38.0	46.7
남양주시	54.5	40.9	40.4	58.6	40.0	37.7	40.2	44.5
파주시	54.6	41.6	52.4	59.9	49.5	42.0	36.8	48.2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표 4-22 | 고양특례시와 경기북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2

	잠재_영업효율성	잠재_보상탄력성	잠재_재무건전성	잠재_기업수익성	잠재_자본활용성	잠재_생산효율성	잠재_기술잠재성	잠재_total_score
고양특례시	50.7	49.0	49.6	49.2	48.5	48.9	55.6	49.3
김포시	49.8	49.3	49.8	49.7	49.2	50.2	58.9	49.5
남양주시	43.6	40.4	40.6	41.3	40.2	40.6	58.9	41.0
파주시	54.0	52.1	52.7	52.8	52.0	52.4	61.5	52.4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2) 경기도 남부 도시 권역(부천시~ 평택시)

□ 구조적 열세를 인정하고 하이브리드 차별화 전략의 정립

○ **경기 남부 권역은 양적지표와 현행_Total Score 및 잠재_Total Score에서 대부분 고양특례시를 압도하며, 이는 고양특례시가 상대적으로 구조적 열세 시사**

- 남부 권역과의 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및 제조 생태계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차이
- 경기 남부 비교도시들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행지표 및 잠재지표 대부분에서 고양특례시 대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대형IT, 반도체, 첨단 제조 클러스터 등의 환경조건에서 근본적 차이 기인
- 남부 권역은 이미 R&D 및 첨단 생산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잠재력마저 높게 유지하고 있어, 단순한 모방 전략으로는 격차 해소가 단기간에 불가능함 시사
- 고양특례시는 남부 권역과의 양적 경쟁 구도 설정 대신 질적지표 중 수익성은 높으나 자본집약도는 낮은(예: 첨단 콘텐츠R&D, 정밀 의료 서비스, 글로벌 금융 지원 기능 등)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중심의 틈새시장(Niche Market) 탐색을 통한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필요
- 단기적으로는 고양특례시의 잠재 기술 성장이 남부 권역의 절대적 기술 우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데 한계 명확, 남부 권역과 비등한 기업수익성을 활용하여 특화된 서비스 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등 장단기적 합리적인 하이브리드 방안 제시
- 이러한 하이브리드 차별화는 예를들어 고양특례시의 방송·바이오메디컬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형태의 안이 있으며, 이는 남부권과의 산업적 동질성을 회피하는 전략적 선택으로서 고양특례시 특징을 반영한 외국인투자기업 생태계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

표 4-23 | 고양특례시와 경기남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1

	영업효율성	보상탄력성	재무건전성	기업수익성	자본활용성	생산효율성	기술잠재성	total_score
고양특례시	43.2	41.9	52.3	57.6	48.5	41.1	39.3	46.3
부천시	53.7	41.7	53.8	58.0	49.4	41.0	38.6	48.1
성남시	54.3	42.6	65.7	56.4	55.8	40.4	48.4	52.1
시흥시	50.6	40.1	52.0	55.6	46.5	36.9	38.2	45.8
안산시	52.6	41.9	54.0	57.0	49.4	37.1	38.4	47.3
안양시	48.7	41.8	64.3	57.6	56.9	46.8	47.4	52.1
평택시	53.0	41.0	54.4	57.8	49.1	39.7	42.7	48.3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표 4-24 | 고양특례시와 경기남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2

	잠재_영업 효율성	잠재_보상 탄력성	잠재_재무 건전성	잠재_기업 수익성	잠재_자본 활용성	잠재_생산 효율성	잠재_기술 잠재성	잠재_total _score
고양특례시	50.7	49.0	49.6	49.2	48.5	48.9	55.6	49.3
부천시	53.0	51.7	52.4	51.8	51.4	52.1	55.2	52.0
성남시	58.8	57.8	59.0	58.1	57.7	57.3	67.3	58.8
시흥시	48.7	48.7	49.6	48.8	48.2	48.7	51.0	48.7
안산시	52.0	51.2	52.1	51.4	50.8	51.3	56.0	51.5
안양시	58.9	59.5	60.4	59.0	59.1	59.8	65.8	60.0
평택시	53.3	51.8	52.6	52.4	51.6	51.9	57.9	52.4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3) 기타

□ 지방 인구 50만 이상 도시 권역(김해시~ 청주시, 지방 권역별 대표도시)

○ 지방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은 지방 권역별 대표도시로, 양적지표에서는 고양특례시를 압도하는 도시가 많고 질적지표에서도 고양특례시 대비 현행 총점에서는 근소한 우위 잠재 총점에서는 더 격차를 내면서 우위로 예측

- 세부적으로는 고양특례시가 영업효율성의 잠재적 GAP 폭이 지방도시보다 좀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현행지표의 낮은 영업효율성(43.17)이 잠재적으로 50.7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의 우수한 인적 자원 및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의 비용 효율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지방 도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양특례시 대비 수도권 접근 교통망이 불리하고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반면, 고양특례시는 서비스 및 지식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여 잠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고양특례시의 영업 비용 절감 및 수도권 내 접근성 향상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는 정책 필요

표 4-25 | 고양특례시와 기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1

	영업효율성	보상탄력성	재무건전성	기업수익성	자본활용성	생산효율성	기술잠재성	total_score
고양특례시	43.2	41.9	52.3	57.6	48.5	41.1	39.3	46.3
김해시	53.7	40.0	50.0	57.7	47.5	44.9	34.6	46.9
포항시	45.4	42.2	61.6	55.2	52.0	47.5	35.6	48.5
전주시	36.2	41.5	56.4	57.2	49.5	42.6	39.2	46.2
천안시	54.7	43.1	56.4	56.7	51.8	43.3	41.6	49.7
청주시	49.1	43.5	59.0	54.7	53.0	40.6	45.7	49.5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표 4-26 | 고양특례시와 기타 도시 권역 간 심층 비교 분석_2

	잠재_영업효율성	잠재_보상탄력성	잠재_재무건전성	잠재_기업수익성	잠재_자본활용성	잠재_생산효율성	잠재_기술잠재성	잠재_total_score
고양특례시	50.7	49.0	49.6	49.2	48.5	48.9	55.6	49.3
김해시	51.4	50.7	51.4	50.9	50.6	51.9	50.5	50.7
포항시	57.6	58.1	58.6	57.7	57.7	59.1	63.3	58.1
전주시	52.2	54.1	54.7	53.0	53.1	54.0	62.6	53.6
천안시	56.1	55.2	56.0	55.4	54.9	55.3	59.6	55.4
청주시	55.9	55.1	55.9	55.2	54.8	54.7	63.9	55.6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 특례시 그룹(수원, 용인, 창원, 화성)

○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그룹 내에서 양적지표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현행지표 및 잠재지표 모두 하위권(최하위는 용인특례시)을 기록하고 있으며, 격차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예측**

- 이 격차는 동일한 특례시라는 행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장 동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나타내며, 도시의 위상 대비 실질 경제력 간의 열위 의미
- 수원 및 용인특례시가 IT/반도체 중심의 고도화된 기술 역량(현행, 잠재 기술잠재성)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대비하여,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미래 성장 동력(기술력) 차이 존재
- 현행지표와 잠재지표 격차가 지속될 경우, 같은 특례시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위상 격차의 고착화가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유일한 현행 강점인 현행_기업수익성도 잠재적으로 특례시 평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그룹 내에서 차별화된 산업적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수익성과 기술력이 균형 잡힌 구조적 혁신 전략의 실행 요구
- '고양형 첨단 서비스 산업 모델'을 구축하여 선도 특례시들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특례시 간 경제적 위상 균형을 도모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대두

표 4-27 | 고양특례시와 타 특례시 간 심층 비교 분석_1

	영업효율성	보상탄력성	재무건전성	기업수익성	자본활용성	생산효율성	기술잠재성	total_score
고양특례시	43.2	41.9	52.3	57.6	48.5	41.1	39.3	46.3
수원특례시	47.7	41.8	59.0	56.5	50.6	43.7	49.4	49.9
용인특례시	52.5	41.0	49.5	53.4	43.3	34.7	44.2	45.4
화성특례시	54.1	41.2	54.5	58.0	49.8	43.9	42.0	49.1
창원특례시	53.2	41.0	56.6	59.3	52.0	42.5	36.9	49.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표 4-28 | 고양특례시와 타 특례시 간 심층 비교 분석_2

	잠재_영업효율성	잠재_보상탄력성	잠재_재무건전성	잠재_기업수익성	잠재_자본활용성	잠재_생산효율성	잠재_기술잠재성	잠재_total_score
고양특례시	50.7	49.0	49.6	49.2	48.5	48.9	55.6	49.3
수원특례시	54.2	54.0	54.9	54.0	53.5	54.0	63.0	54.8
용인특례시	47.7	45.0	45.6	46.0	44.8	44.9	61.2	45.9
화성특례시	53.7	53.1	53.9	53.5	53.1	53.7	59.7	53.5
창원특례시	56.9	55.6	56.5	56.6	55.4	56.0	58.2	56.0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4)를 기반으로 저자 실증분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잠재성장 동력의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 현행 최약점인 기술잠재성 및 생산효율성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잠재력 실현 이니셔티브(Initiative)' 추진 필요

○ 고양특례시의 전략 산업인 방송·바이오·MICE와 연계되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유치를 위해 '기술잠재성 보증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필요

- R&D 인력 고용·특허 등록 등 투자 요건 충족 시, 차등적 법인세 감면 및 연구시설 장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

○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 체제에 첨단 ICT 기반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 IoT 기반 생산관리, 공급망 관리(SCM)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매칭 펀드 방식의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생산 효율성의 실질적 발현 가속화 필요

□ 현행 강점 보호 및 재무적 안정성 유지 방안

○ 잠재적 하락이 예견되는 기업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 수립 필요

○ 현행 고수익 및 건전한 재무 구조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고양특례시 선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행정적 규제 완화·산업 용지 장기 임대료 안정화·세제 혜택 확대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이탈 방지 및 지속적 수익 창출 환경 보장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및 시 차원의 지급보증 제도를 우선 시행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기 리스크 선제적 해소 필요

□ 특례시 및 경기 남부와의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화 전략

○ 특례시 그룹 및 경기 남부 도시와의 기술·종합 역량 격차를 구조적으로 인지하고, 직접 경쟁이 아닌 수익형 첨단 서비스 중심의 차별화 전략 추진 필요

○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경기 남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킨텍스·방송영상밸리·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고양특례시의 지리적·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첨단 의료 R&D, 콘텐츠 제작·배급, 글로벌 마케팅 R&D 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에 정책 자원 집중 투입 필요

○ 고양특례시가 경기 북부 권역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외국인투자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및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부권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역량의 동반 상승 및 광역적 경쟁력 확보 도모

제5장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외 주요정책

제1절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제2절 국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외 주요정책

제1절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 수원특례시

□ 산업 기반 및 입지 특성

○ **반도체 · AI · 바이오 등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산업 기반 형성**

-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표 5-1 | 수원특례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입지

구분	공간 구성	비고
북수원 테크노밸리	IT · 반도체 기업, 모빌리티 연구소, 직·주·락·교·복 복합단지 개발	2031년 준공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IT 첨단기업 및 R&D 연구소, 첨단 연구개발 혁신 허브	2029년 준공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첨단기업 R&D 연구소, 첨단 연구개발 혁신 허브	2028년 준공
광교테크노밸리	첨단업무시설	
우만테크노밸리	첨단산업 융복합 HUB 랜드마크, 역세권 복합개발	2031년 준공
매탄 · 원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첨단산업시설, 공동주택, 복합상업시설, 산업지원센터	민간 제안방식 예정
고색동 델타플렉스	첨단산업단지	

〈자료〉 수원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eco/eco02/eco02_09/eco02_09_10.jsp)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수원경제자유구역 조성 추진**

- 외국인과 기업을 고려한 상업 및 여가시설 조성
- 외국인투자 전용용지 확보

○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간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삼성전자, CJ BLOSSOM PARK 등 우수한 연구인력 보유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등 수원시 5개 대학 협력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

○ 수도권 중심의 광역 교통 및 접근성 확보

- 서울까지 40분 내외 이동가능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평택항 등 주요 국제 교통거점과의 접근성 우수
- 광역 고속도로(경부, 영동, 용인서울, 수원광명, 과천봉담) 기반으로 수도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도

○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등 실행

표 5-2 |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내용
제5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제14조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건물 임차 시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29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0조(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의 지정)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기업유치촉진및투자지원에관한조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경제자유구역(추진 중) 입주 시 인센티브 제공

- 토지 공급, 조세 감면, 규제 완화, 경영 지원 등 다방면 지원

표 5-3 | 수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토지 공급	분양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임대	국 · 공유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최대 50년간 임대 가능 (임대료 최대 100% 감면 가능)
조세 감면	관세	5년간 100% 면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항)
	취득세	[국내복귀기업] 50% 감면 [공통] 1) 기업 부설연구소 30~45%, 지식산업센터 15% 감면 2) 첨단기술(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재산세	[국내복귀기업] 5년간 75% 감면 [공통] 기업 부설연구소 30~45%, 지식산업센터 5년간 15% 감면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
	노동규제 완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외환거래 자유	10만 불 이하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경영 지원	현금지원	공장, 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기반시설 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 국비 50% 지원

〈자료〉 수원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eco/eco02/eco02_09/eco02_09_11.jsp).

□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및 추진 활동[19)]

○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 관내 대학교와의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2023.04.05)
- 대학, 기업,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 첨단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동 추진

- 기업유치 투자협약 체결 제1호~제15호(2022.07.01 ~ 2025.06.30.)
-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2023.07.06.)
-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5)(2025.08.27. ~ 08.29.)

○ 미래산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수원시-현대차㈜-KCL 업무협약 체결(2024.4.23.)
-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개발 및 평가 연구소 신설

19) 수원시정연구원(2025), 수원시 해외기업(법인) 유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 참고.

○ 적극적 투자유치 행정 추진

- '세일즈 행정'을 기반으로 기업 대상 직접 협상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추진
- 투자기업 대상 인허가 간소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 강조
-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LOI·MOU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 수원특례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229개사로 전기·전자, 기계장비, 연구개발 중심 업종 구성

- 전기·전자 23개사(10%), 기계장비·의료정밀 20개사(8.7%), 화학·의약품 11개사(4.8%)

표 5-4 | 수원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단위: 개사(%))

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화학·의약품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기타
229(100.0)	23(10.0)	20(8.7)	11(4.8)	19(8.3)	156(68.2)

* 주: 2025년 03월 기준

〈자료〉 수원시정연구원(2025), 수원시 해외기업(법인) 유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

□ 최근 투자협약 사례

○ 홍콩 글로벌 기업 7개사 투자 의향서(LOI) 체결

-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 7개사와 총 4,800만 달러(약 705억 원) 규모 LOI 체결(2026년 1월)
  - 참여 기업 산업군: 핀테크, AI, 바이오·헬스케어, 디지털 기술 분야, 첨단 산업군 중심
- LOI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 내 R&D 센터 설립 또는 투자 검토, 수원경제자유구역(추진 예정)과 연계한 투자 의향 표명, 일부 기업은 이미 수원에서 기술 협력 활동 중

○ 민선 8기 투자협약 15건 체결

- 최근 3년 간 바이오·AI·반도체·응용소프트웨어 등 첨단 사업 분야 15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 해외 기술 기반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법인, 외국계 자본 참여 기업 등이 참여기업

○ Visa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Visa와 무역·결제 플랫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2. 용인특례시

□ 산업 기반 및 입지 특성

○ 반도체 제조·R&D 및 소부장 산업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기반 형성

- L자형 반도체 벨트 기반의 메가 클러스터 구축

표 5-5 |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주요 거점 현황

구분	공간 구성	비고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첨단 반도체 기업 유치 및 미래형 모빌리티 연구 거점	2030년 준공
용인기흥미래연구단지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R&D 연구소 및 혁신 허브	2030년 준공
세메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핵심 장비 R&D 및 기술 거점	2026년 준공
램리서치 R&D센터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핵심 연구 시설 및 거점 운영	2022년 준공
용인테크노밸리	반도체·전자부품 관련 첨단 소부장 기업 집적화 단지	2020년 준공
제2용인테크노밸리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반도체 생태계 형성	2026년 준공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생산 팹 및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2027년 준공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주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2031년 준공

〈자료〉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0&q_bbscttSn=2022091909061007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외연 확장

- 글로벌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공급망 내실화
- 국내 앵커기업(삼성·SK)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 거점 구축

□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 글로벌 선도 기업 R&D 센터 및 민간 연구소

- 도쿄일렉트론, 램리서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삼성SDI 중앙연구소, 현대차 마북연구소, 보쉬코리아 기술연구소, 종근당 효종연구소, 동아제약 연구본부

○ 지역 대학 연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기반 강화

- 관내 6개 대학과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운영
- 수도권 최초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2027년 개교 예정)

□ 수도권 중심의 광역 교통 및 접근성 확보

○ 반도체 산업 특화 교통 인프라 혁신 추진

-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신설 및 국도 45호선 확장 추진
- GTX-A(구성역) 개통 및 경강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 추진
- 세종포천고속도로 및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을 통한 광역 접근성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도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기업 재정 및 세제 지원

표 5-6 | 용인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조례

구분		내용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산업단지 및 기업의 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	① 시장은 국내 기업 중 대규모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입지 지원,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지원금 보조)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장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2033719,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Id=215139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자치법규에 근거한 시 자체 지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100% 전액 면제하여 기업의 장기 운영 안전성 및 수익성 보장

- 현금 보조금: 투자 규모 및 고용 인원에 따라 입지·시설투자비의 5% 범위 내 지원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최대 2억 원 한도)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투자비 1,000억 원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최대 30억 원까지 별도 추가 지원 가능

○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허가 타임아웃제: 인허가 요청 시 60일 이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속 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투자 이행 적기성 확보
- 핵심 기반시설 국비 지원: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 인프라인 용수 및 전력 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여 기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 부담 최소화
- 용적률 완화 특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 적용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 및 단위 면적당 생산성 극대화

□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및 추진 활동[20)]

○ **글로벌 공급망(GVC) 연계 전략적 유치 전개**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글로벌 R&D 센터 및 핵심 연구 거점 집중 유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례와 시 조례를 결합한 인센티브 제공
- 램리서치(미국) 한국 본사 및 R&D 센터 용인 캠퍼스 공식 개관 지원(2024.10.08.)

○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기반 클러스터 고도화**

- 핵심 거점(기흥·남사·이동·원삼)을 잇는 반도체 벨트 내 글로벌 소부장 핵심 기업 전략적 배치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2024.04.17.) 등 입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속한 부지 공급 및 투자 걸림돌 제거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협업 가능한 글로벌 협력사 중심의 에코타운 조성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 협력 강화**

- 용인 OECD 글로벌 반도체 도시 포럼 등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및 협력 기반 마련
- 2024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참가 및 지자체 홍보관 운영을 통한 실질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
-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2027. 개교 예정) 및 관내 대학 연계 외국인투자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기업 친화적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

-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맞춤형 행정 컨설팅 제공

---

20) 용인시정연구원(20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참고

- 국제학교 유치 추진 등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을 위한 다문화 친화적 정주 여건 및 사후 관리 강화
- 분기별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운영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즉각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 글로벌 반도체 앵커기업 중심의 전략적 생태계 조성

- 램리서치, ASML,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3개사의 핵심 거점을 유치하여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확보
- 단순 제조 시설을 넘어 R&D 및 기술 지원 거점 중심의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 및 반도체 기술 자립도 강화

□ 최근 투자협약 사례[21)]

○ 램리서치 한국 본사 용인 이전 및 캠퍼스 개관

- 미국 소재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식각 분야 세계 1위)
- 판교 소재 한국 본사와 트레이닝 센터를 용인 지곡산단으로 통합 이전 완료(2024. 10. 08.)
- 기존 R&D 센터(KTC)와 본사 기능을 통합하여 용인 중심의 연구경영 거점 완성
- 용인시의 지곡산단 조기 준공 지원 및 신속 행정을 통한 성공적 정착 사례

○ 도쿄일렉트론 코리아 원삼 R&D 센터 착공

- 일본 소재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기업
- 2025년 7월, 원삼 일반산업단지 내 R&D 센터 착공 (2027년 1월 준공 목표)
- 지상 7층 규모, 팹과 사무동을 포함한 차세대 공정 연구소 건립
- 2025년 5월 건축 허가 완료 및 기공식 개최를 통한 실질적 투자 이행 단계 진입
- 용인특례시의 원삼산단 부지 확보 및 원스톱 인허가 지원을 통한 투자 가속화

21) 용인특례시(2022.04.27.),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용인시에 R&D센터 개관, 용인특례시(2024.10.1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코리아 '용인캠퍼스' 개관 축하, TEL(2025.09.04.),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용인사무소 기공식 개최- 2027년 1월 준공 예정…사무동과 R&D 센터 등으로 구성 참고하여 작성.

3. 인천광역시

□ 산업 기반 및 입지 특성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바이오·첨단제조·국제업무·항공물류·관광·금융·로봇 등 복합 산업 기반 형성**

- 송도(비즈니스IT·BT), 영종(물류, 관광), 청라(금융,레저) 등으로 특화

○ **IFEZ 핵심전략산업 체계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 및 혁신생태계 형성**

- 핵심전략산업: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 송도, 영종, 청라 지구별 특화기능과 연계된 전략산업별 집적 구조 형성

표 5-7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구별 사업 현황

구분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면적	53.36㎢	51.18㎢	17.80㎢
조성비	21조 5,442억 원	13조 4,184억 원	6조 5,895억 원
계획인구	265,611명	179,982명	98,060명
사업기간	2003년~2030년	2003년~2027년	2003년~2024년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NSIC 등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주요 개발계획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신항 등	인천국제공항,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무의 복합도시	업무(금융)단지, 테마파크형 골프장, 첨단산업단지, 로봇테마파크, 유통산업 등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investment/content/view.do?sn=3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공항·항만·수도권 배후시장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입지 확보**

-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기반의 항공·복합 물류 경쟁력 보유
- 베이징·상하이 등 동북아 주요 도시와 3시간 이내 권역에 위치한 핵심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형성
- 서울 및 수도권 배후시장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극대화

○ **국제기구 유치 및 교육·정주 인프라를 바탕으로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

- GCF(녹색기후기금),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국제 비즈니스 허브 형성
- 인천글로벌캠퍼스(IGC), 국제학교 등 교육 인프라 확보
- 외국인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주거·의료·상업 등 생활환경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체계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기반 지원 제도

- (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 (현금 지원) 투자규모, 상시고용 인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 및 비율 차등 적용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지와 건축비) 지원

표 5-8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구분		내용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입지보조금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지원)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의 시설과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신규 건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말한다) 및 운영비의 각 50퍼센트 이내 2.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과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신규로 건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는 건축물매입비를 말한다)의 20퍼센트 이내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80000590130004&histNo=010)

○ 경제자유구역 기반 인센티브

- (조세감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제공
- 감면 기간, 비율은 투자규모, 업종, 입지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차등 적용
- (입지·행정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지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인허가 제도를 활용해 다수의 개별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 인허가, 세제, 입지 상담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운영하여 투자 초기 단계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입주 시 공통 인센티브 제공**

- 현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등 재정 지원
- 노동규제, 외환 거래 자유, 법률 적용 배제 등 지원
-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고용, R&D 등 전 주기에 걸친 경영활동 지원

표 5-9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공통 인센티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th><th colspan="2">외국인 투자기업 대상</th></tr>
<tr><td colspan="2" rowspan="3">경제자유구역
입지 외국인투자기업 기업</td><td>관세</td><td>수입 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td><td>수입자본재</td></tr>
<tr><td>취득세</td><td>조례 의거 최장 15년간:
100%</td><td rowspan="2">제조업: USD 1,000만 이상
관광업: USD 1,000만 이상
물류업: USD 500만 이상
의료기관: USD 500만 이상
R&D: USD 100만 이상</td></tr>
<tr><td>재산세</td><td>조례 의거 13년간 감면:
최초 10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td></tr>
<tr><td rowspan="4">재정
지원</td><td>현금지원</td><td colspan="3">- 공장, 연구시설 설치비,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조건)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기업 중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기술 이전 효과, 고용 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결정</td></tr>
<tr><td>기반시설 지원</td><td colspan="3">-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원 조건)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td></tr>
<tr><td>외국 교육·
연구기관 지원</td><td colspan="3">- 외국 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 운영비, 건축물 등
(지원 조건) 명성도, 국가 발전 기여도 등 평가 요소 충족</td></tr>
<tr><td>임대료 등</td><td colspan="3">-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이후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 가액의 10/1,000 수준
- 국공유지는 50~100%감면 또는 조성 원가 매입 가능</td></tr>
<tr><td rowspan="3">기타
지원</td><td>노동 규제 완화</td><td colspan="3">-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 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파견 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 휴가 허용 등</td></tr>
<tr><td>외환 거래 자유</td><td colspan="3">-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 간 직접 지급</td></tr>
<tr><td>「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td><td colspan="3">-「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배제
- 과밀부담금,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배제</td></tr>
</table>

*주: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료〉 인천광역시(2026), 2026 인천투자유치 가이드북(국문).

□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및 추진 활동[22)]

○ **핵심 전략산업 설정 및 투자유치 목표 관리**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발전계획 보고(2022.02.14.)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4대 핵심전략산업 설정
- 「2025년 IFEZ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을 통한 FDI 신고 목표액 6억 달러 설정
- 핵심 전략산업 중심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 **국책산업 연계를 통한 바이오 투자생태계 조성**

-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024.06.27.)하여 송도-영종-남동공단 연계를 통한 전 주기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 배곧경제자유구역 등 시흥시와의 광역 연계를 통한 연구·의료 인프라 시너지 확보
-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 내 'K-바이오 랩허브' 메인 거점 송도 조성(2028년 완공 예정)하여 실험·연구부터 사업화·투자까지 통합 지원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중소벤처기업부-연세대-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체계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투자유치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2025.03.11.)를 통해 글로벌 경제동향 공유, 업종별 투자전망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투자유치설명회 개최(2025.10.28.)하여 재외동포 경제인 대상 IFEZ 투자환경과 주요 프로젝트 소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상생 방안 모색
-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Invest KOREA Summit 2025) 참가(2025.10.30)하여 국내·외 기업 등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IFEZ 투자경쟁력 홍보, 투자유치 상담 및 네트워킹 추진

○ **산학연 협력 기반 투자지원 강화**

- 대학·연구기관,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및 투자유치 기반 지속 확충
- 2024년 IFEZ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착수 보고회 추진('24.03.04.)를 통해 IFEZ 입주기업 DB 구축, 협업 네트워크·규제해소·R&D·전시회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연계를 강화
-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심으로 8개국 23개 기관이 '호라이즌 유럽'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025.12.01.)

---

22)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2022~2025), Global epic(2025.03.12.) 등을 참고하여 작성. 세부 출처는 참고문헌 참조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FDI) 신고액은 17,013백만 달러,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97개로 송도국제도시에 집중

- 외국인투자기업(%): 송도 77개(79.4%), 영종 13개(13.4%), 청라 7개(7.2%)
- 외국인투자FDI신고(%): 송도 12,534백만 달러(73.7%), 영종 3,986백만 달러(23.4%), 청라 493백만 달러(2.9%)

표 5-10 |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단위: 백만 달러, 개)

외국인투자FDI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17,013	12,534	3,986	493	97	77	13	7

* 주: 2026년 03월 31일 기준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홈페이지. https://www.ifez.go.kr/main/intro/stats/fdi.do.

□ 최근 투자협약 사례[23)]

○ 영국 바이오 벤처투자사 살로니카(Salonica) 투자유치협약(MOU) 체결(2026.02.25.)

- 영국 케임브리지 소재 글로벌 벤처투자사와 바이오·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협약 주요 내용은 ① 살로니카의 케임브리지 혁신 네트워크, 연구기관, 기술 기업 연계 지원, ② 경제청(IFEZ)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공 앵커 역할 수행, ③ 초기 기술 검증 단계부터 벤처투자사가 참여하는 선순환 투자 구조 마련, ④ 송도-케임브리지 간 연구자 및 투자자 상호 교류 채널 구축

○ 미국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 투자유치협약 MOU 체결(2025.07.11.)

- 미국 럭셔리 호텔·리조트 브랜드 '케슬러 컬렉션'과 IFEZ 내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체결
- '데스티네이션 인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럭셔리 관광 인프라 및 K-콘텐츠 거점 확보

23) 인천경제자유구역(2026.02.26.), 유정복 시장, 송도에 英 케임브리지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협력, 프레시안(2025.07.14.), 인천시-케슬러컬렉션, 인천경자구역 투자 MOU 체결, 인천광역시(2025.02.23.), 인천시, 톈진시와 경제협력 및 우호 강화 방안 논의 참고하여 작성.

○ **중국 톈진자유무역시험구와 투자유치협약 MOU 체결(2025.02.23.)**

- 중국 톈진시 대표단 IFEZ 방문 및 경제특구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결
- 협약 주요 내용은 ① IFEZ와 톈진자유무역시험구 간 경제 및 투자 분야 교류 협력 촉진, ② 바이오 및 의료 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정보 공유 및 공동 협력, ③ 각 도시 항만·경제특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 활성화, ④ 중국 수도권 전략 육성 거점(징진지) 도시와의 상호 교류 및 한중 비즈니스 가교 역할 수행

4. 대구광역시

□ 산업 기반 및 입지 특성

○ 5대 미래 신사업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 미래모빌리티, ABB(AI·Big Data·Blockchain),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 전략산업 육성
- 수성알파시티 중심 ABB·ICT·SW 기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미래자동차·로봇·의료산업 육성
- 대구국가산업단지 및 성서산업단지 중심 첨단제조업 및 신산업 집적 추진

○ 2008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지정

- 대구·경북 일원에 8개 투자지구 선정(4개가 대구광역시 위치)
- 행정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및 쾌적한 정주 여건 등 기업 지원 기반 마련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미래산업 투자유치 기반 강화[24)]

- 첨단제조특구(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에 이차전지 소재 및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계획
- 디지털특구(수성알파시티)에 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 대구연구개발특구 기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25)]

- 대구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및 영남권 R&D 허브 조성 추진
- DGIST, 경북대 등 지역 대학과 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계를 통해 R&D 생태계 구축

표 5-11 | 대구광역시 5대 신사업 주요 클러스터 입지

구분		내용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수성알파시티	- ABB, ICT, SW 등 지식기반산업 유치 - 스마트시티비즈니스센터, SW융합기술지원센터 등 지역 4차산업혁명 선도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 미래형 자동차, IT 융복합(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 유치 -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이자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부지 - IT 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의 대구연구개발특구
	신서첨단의료지구	- 신약, 의료기기 개발산업 유치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중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반 규제특례 제공
대구국가산업단지		- 미래형 자동차, 첨단기계, 차세대전자통신, 신재생에너지산업 유치 - 2026년 12월 전체 준공 예정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의료산업 유치 -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과학산업단지와 R&D 허브 구축

〈자료〉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eco/index.do?menu_id=00001126&servletPath=%2Feco)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dgfez.go.kr/investment/page.php?mnu_uid=174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24) 대구광역시 기회발전특구 홈페이지(https://www.dgond.kr/) 참고

25)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eco/index.do?menu_id=00001142) 참고

○ **공항, 항만, 철도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입지 확보**[26)]

- KTX/SRT 고속철도(수도권까지 약 100분, 부산·포항 등 인근 도시 이동 용이)
- 대구국제공항(19개 노선, 45편 취항), 대구·경북 신공항(2030년 개항 예정)
- 4개 국제항 인접(1시간 내 위치)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도

○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기반 투자지원 제도 운영**

- 산업용지 지원,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원, 행정·금융 지원 등 지원제도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투자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표 5-12 |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구분		내용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산업용지의 지원)	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토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분양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시장은 사업장을 역외와 역내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일정기준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직원 거주지원)	시장은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기업이 시역 내에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 전문회사 및 투자전문가 자문과 관련한 컨설팅수수료·자문료·활동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의 신규·증액투자 관련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행정 지원)	시장은 구·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유치기업의 용지분양, 공장설립 등의 제반 행정사항이 신속하게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0조(금융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해 시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047316)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2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5), 2025DGFEZ 브로슈어 참고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임대부지 공급) 부지매입가의 약 1% 수준의 임대료 적용, 기본 임대기간 50년, 연장 시 최대 100년까지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료 감면 지원
- (조세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공
- (재정 지원) 단지형 외국인투자단지(이하 외국인투자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 등의 혜택 지원

표 5-13 | 외국인투자기업 입주기업 인센티브

구분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단지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단지
임대부지 공급	요건	-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	- FDI 3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 FDI 2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감면율	- (100%) 고도기술수반사업이면서 FDI 1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 (75%) FDI 5백만 달러 이상 제조업	- 100%
조세 감면	요건	- FDI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 FDI 3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 FDI 2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재정 지원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간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내국인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6개월간 지원	-
	현금지원	-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일 시 FDI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

〈자료〉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eco/index.do?menu_id=0000110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특화 인센티브 제공**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장기임대, 조세 감면, 현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 특화 인센티브 제공
-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노동규제 완화, 외환거래 자유 등 규제 특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 지원

표 5-14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입주기업 인센티브

구분		내용
국공유지 사용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부지가액의 약 1% 수준에서 50년 이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대부 및 매각		- 국유재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가능 - 공유재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가능
조세 감면	요건	- 수입 자본재,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5백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1백만 달러 이상 R&D, 1천만 달러 이상 정보서비스
	감면율	- 관세: 수입신고일부터 5년간 면제 - 취득세·재산세: 최장 15년간 면제
재정 지원	현금지원	-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협상을 통한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부품소재 등 핵심품목 우대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기반시설 지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국비 50% 지원(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 평가요소 충족 시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배제 - 과밀부담금,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규제 배제
	노동규제 완화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외환거래 자유	-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 간 직접 지급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dgfez.go.kr/page.php?mnu_uid=1506&)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및 추진 활동[27)]

○ 민선 8기 5대 신산업 중점 육성

- 산업통상부의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3.07.)
- 국토교통부의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2023.11.)
-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조성(2021~2028)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2024~2030)

○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통한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 전국 최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설립(2022.10.)
- 기업의 투자결정 시 인허가, 행정절차의 일괄처리 가능
- MOU 이후 준공 단계까지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선제적 파악 및 해결

○ 투자유치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C 실리콘밸리'와 MOU 체결(2024.10.)하여 북미 지역 내 유망 ICT 기업 공동 발굴, 역내 유치 상호 협력, 대구 경북 유망기업의 북미 진출 지원
-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와 교류 촉진을 위한 MOU 체결(2024.11.)하여 한인 유망 벤처기업 정보 교류 확대, 기업 육성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발판 마련
- 싱가포르 투자사 iMA와 MOU 체결(2025.11.)하여 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현지 IR 활동 지원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추진

- 싱가포르 'SWITCH 2023' 참여(2023.10.31.~2023.11.02.)하였으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해외 투자유치 및 수성알파시티 입주 추진
-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IR 활동(2024.10.28.~2024.11.01.)
- 주한 일본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 개최(2026.03.27.)
- 호주상공회의소 대상 투자유치 IR 활동(2026.04.03.)

---

27) 대구일보(2024.10.13.), "민선 8기 대구시 투자유치 점검해보니...투자협약 후 투자이행 착착", 헤럴드경제(2022.08.11.), 대구시, 원스톱 투자지원체계 구축...기업 투자시 2개월내 착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4.11.06.), DGFEZ, 美 실리콘밸리 지역 투자유치 IR 나서, 대구일보(2025.11.13.), DGFEZ, 싱가포르서 투자유치 IR 전개...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나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3.12.14.), 「싱가포르 SWITCH 2023」 연계 투자유치 IR 활동 전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6.03.29.), DGFEZ, 주한 일본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6.04.0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호주기업 유치 위해 駐韓호주상공회의소와 맞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5.02.05.), DGFEZ,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으로 성과 창출에 올인 참고하여 작성.

○ 202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종합계획

- 외국인직접투자(FDI) 6,500만 달러 목표
- 3대 핵심 전략산업(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유치 집중
- (투자유치 활동 3트랙 추진) 현지 방문형 IR, 국내외 타깃 기업 대상 지구 투어, 글로벌 네트워크 협업
- (투자 선순환 생태계 강화) 찾아가는 기업상담실과 규제혁신협의회 통한 현장 애로 해소, 외국인 종사자 생활 지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원팀 투자대응 체계 도입) 잠재 투자 정보 공유 및 연간 IR 계획 통합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 대구광역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352개사로 기계 ·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 · 전자 중심 업종 구성

- 기계 · 금속 42개사(11.9%), 자동차부품 31개사(8.8%), 전기 · 전자 26개사(7.4%)

표 5-15 | 대구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단위: 개사(%))

계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기계 · 금속	자동차부품	전기 · 전자	기타		
352(100.0)	42(11.9)	31(8.8)	26(7.4)	62(17.6)	70(19.9)	121(34.4)

〈자료〉 KOTRA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s://ombudsman.kotra.or.kr/dg-kr/cntnts/i-1014/web.do)

○ 주요 투자국가는 이스라엘, 일본, 미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표 5-16 | 대구광역시 주요 투자기업 현황

구분	내용
유럽	평화 Valeo(자동차부품, 프랑스 Valeo), 모건(자동차부품, Morgan light), SHN(자동차부품, 스위스 Rieter), Dassault Systems(소프트웨어, 프랑스)
일본	삼익THK(직선운동베어링, THK), 남양금속(Hitachi Metal), 평화오일씰(NOK), 한국 OSG(OSG), 한국대풍(Taiho), 한국야스카와전기, SSLM(스미토모화학), KNT(나카무라토메 정밀공업)
미국	이모션(자동차부품, Emotion), 한국게이츠(자동차부품, Gates)
그 외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자동차부품, 중국), TaeguTec(절삭공구, 이스라엘 IMC그룹)

〈자료〉 KOTRA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s://ombudsman.kotra.or.kr/dg-kr/cntnts/i-1014/web.do).

□ 최근 투자협약 사례[28)]

○ 민선 8기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 2023년 12월 기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5개사 유치
- 총 투자규모 약 3,831억원(투자금액 비공개 제외)

○ 발레오(Valeo)와 투자유치협약(MOU) 체결

-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
- 2022년 자율주행차 시장 양산 목표의 MOU 체결 및 국내 법인 설립
- 2025년 753억 규모의 공장 증설투자 협약 체결(2027년 착공 예정)
-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와의 연계성
-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경북본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단지 내 유관기관과 기술교류 및 협업 용이성

○ IMC 엔드밀(IMC Endmill)과 투자유치협약(MOU) 체결

- 글로벌 절삭공구 기업 IMC 그룹의 계열사
- 2024년 2월,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 신설을 위한 MOU 체결
- 2008년 대구텍(1,000억원), 2018년 IMC 엔드밀 1차 투자(675억원)에 이은 IMC 그룹의 3번째 투자로 누적 투자액이 2,975억원

○ G홀딩스와 투자유치협약(MOU) 체결

- 일본 IP 특화 게임 퍼블리싱 기업
- 2025년 6월, 수성알파시티 내 FDI 유치를 위한 MOU 체결
- 대구광역시의 400여개의 게임 관련 기업과 게임 관련 학과 인력풀이 투자 요인으로 작용
-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게임 관련 학과를 통한 인력 수급 가능성
- 대구글로벌게임센터의 개발자 양성과 기업협력과제 발굴 등의 기업 지원체계 존재

---

28) 대구정책연구원(2024), 신공항시대, 글로벌 도시 대구 추진전략: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일보(2025.11.10.), 대구,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753억 공장 증설 투자유치, 아주경제(2024.02.07.), 대구시 1300억원 투자받아, 워렌버핏이 소유한 IMC엔드밀에 투자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5.07.02.), 日 G홀딩스 '진격의 거인',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상륙! 참고하여 작성

제2절 국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 영국 런던[29)]

□ 산업 기반 및 입지 특성

○ **금융·기술·창조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형성**

- 핀테크,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SaaS 등 고성장 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 동런던 테크시티(East London Tech City, 일명 Silicon Roundabout), Here East 혁신 캠퍼스 등 기술 클러스터 조성
- 창조산업(영화, 고품질 TV,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스마트 모빌리티, 클린테크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 포함

○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 세계적 명문대학 인재 집적
- 런던과학공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화이트시티 캠퍼스, 런던 생명과학 혁신센터(LBIC) 등 연구 거점 운영
- 파트너십, 인턴십, 모집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재 연계 지원

○ **유럽 중심의 광역 교통 및 접근성 확보**

- 유럽 및 국제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 북미, 중국, 유럽,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사업 기반
- 유럽경제 허브이자 세계 경제 허브로서의 국가 차원 비전 공유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도

○ **영국 전체 기업 대상 법인세**

- 기업 규모별 차등 법인세율 및 세제 감면 구조를 통해 기업 투자 부담 완화,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표 5-17 | 영국 법인세 비율

구분	적용 기준	세율
소규모 기업	£50,000 이하	19%
일반	£250,000 초과	25%
중간 구간 기업	£50,000 ~ £250,000	Marginal Relief 적용

〈자료〉 GOV·UK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

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서울연구원(2025),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해외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을 기반으로 작성.

○ **벤처캐피탈 세제혜택 제도(Venture Capital Schemes)**[30]

- 영국 HMRC(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기업의 신주를 매입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영국의 소규모 및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 제공
- VCT: 비상장 소기업에 주식을 청약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SITR: 사회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대출해주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종료

표 5-18 | 영국 HMRC의 벤처캐피털 세제혜택 제도

구분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VCT(Venture Capital Trust)	SITR
연간 투자한도	최대 £100만	최대 £20만	최대 £20만	2023년 4월 종료
소득세 공제율	30%	50%	20%	
양도소득세	3년 이상 보유 시 면제	3년 이상 보유 시 면제	면제(신규 · 구주 모두)	
손실 공제 /재투자 감면	손실 공제 가능	재투자 시 양도차익의 50%, 최대 £10만까지 면제	-	
배당 소득세 혜택	없음	없음	있음	

* 주: EIS·SEIS는 최소 3년, VCT는 5년 보유 필수.
〈자료〉 GOV·UK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 **R&D 세금 감면(R&D Tax Relief)**

-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들의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연구개발 비용의 20% 수준 세액공제)

○ **창조산업 세금 감면(CITR: Creative Industry Tax Relief)**

- 영화, 방송, 공연 등 8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분야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 운영

30) GOV.UK, "GuidanceTax relief for investors using venturecapital sche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6.05.18.)

표 5-19 | 영국 콘텐츠 · 문화산업 세제지원 제도

구분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내용
Film Expenditure Credit (FEC)	영화 제작 기업	제작비에 대해 34% 수준 세액공제 제공, 시각효과(VFX)비용은 39% 특별공제 적용
High-end Television Expenditure Credit (HETV EC)	고급 TV 프로그램 제작 기업	제작비 기준 34% 세액공제 제공, 영국문화인증(Britishcertification)필요
Animation Expenditure Credit (AEC)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	제작비 기준 39% 세액공제 제공
Children's Television Expenditure Credit (CTEC)	아동용 TV 프로그램 제작 기업	제작비 기준 39% 세액공제 제공
Video Games Expenditure Credit (VGEC)	비디오게임 개발 기업	개발비 기준 34% 세액공제 제공
Theatre Tax Relief (TTR)	공연 제작 기업	순회공연 45%, 비순회공연 40% 세액공제 제공
Orchestra Tax Relief (OTR)	오케스트라 공연 기업	공연 제작비 기준 최대 45% 세액공제 제공
Museums & Galleries Exhibition Tax Relief (MGETR)	박물관·미술관 전시 기업	순회전시 40%, 일반전시 35% 세액공제 제공

〈자료〉 GOV·UK, SOLT, myriadassociate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 그 외 특허박스(Patent Box), 영업권(goodwill) 및 관련 자산 법인세 감면, 소득 감소 상쇄 세제 혜택(Corporation Tax: terminal, capital and property income losses)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존재

○ **현금지원제도**: Innovate UK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현금지원책 제공
- 영국 공공기관인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 산하의 Innovate UK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분야 공동 R&D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 외국기업 · 해외기관 협력 프로젝트 지원
- 기업 대상 직접 혁신 자금 지원
- 2026년 5월 18일 기준, 122개 펀딩 진행 중[31)]

○ **입지지원제도**: Enterprise Zone 지정[32)]

- 영국은 잉글랜드 48개의 Enterprise Zone을 포함하여 영국 전역 약 60개 수준의 Enterprise Zone 운영 (2024년 기준)
- 기업특구(Enterprise Zone)을 지정하여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31) UK Research and Innovation 홈페이지 참고(https://www.ukri.org/opportunity/)

32) UK Research and Innovation 홈페이지 참고(https://www.gov.uk/guidance/enterprise-zones)

- 기업특구 입주기업 대상 세제·입지·행정지원 제공

표 5-20 | 영국 Enterprise Zone 주요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사업세 감면	최대 100% 감면, 최대 5년 지원
감면 규모	기업당 최대 £275,000 지원
설비투자 지원	기계·설비 투자 시 100% 자본공제 제공
행정지원	LDO 기반 인허가 간소화
재정 운영	사업세 증가분 25년간 지역 재투자 가능

*주: 잉글랜드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지역별(웨일스,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GOV·UK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https://www.gov.uk/guidance/enterprise-zones).

○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33)]

- UKRI가 주도하는 산학연 기반 콘텐츠·창조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1기 종료 후 2기 진행 중

표 5-21 |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

구분	1라운드 (2018~2023)	2라운드 (2026~2031)
총 지원 규모	6,100만 파운드 (9개클러스터5,500만+정책·증거센터등600만)	2,700만 파운드
클러스터당 최대 지원액	400만~600만 파운드 (FEC 기준, 54개월) +StoryFuturesAcademy별도1,000만파운드	최대 675만 파운드
지원 클러스터 수	9개 클러스터 + 정책·증거센터(PEC) 1개 (영국전역80%커버)	신규 4개
AHRC 지원 비율	총 경제비용(FEC)의 80% 위탁R&D자금은FEC100%	총 경제비용(FEC)의 80% 위탁R&D자금은FEC100%
위탁(Devolved) R&D 비율	총 예산의 최대 30% 이하 (중소기업·마이크로기업참여지원,FEC100%)	총 예산의 최소 30% 이상 (프리랜서·중소기업포함,FEC100%)
프로그램 관리비 상한	별도 상한 명시 없음 (분기별재무보고및성과모니터링의무)	AHRC 지원금의 30% 이하
레버리지 요건	AHRC 기여금의 최소 50% 추가 확보 실제성과:2억7,000만파운드이상공공·민간 공동투자유치	AHRC 기여금의 최소 50% 추가 확보 (중간시점까지30%달성시잔여자금지속지원)
국제 공동연구자 비용	FEC 100% 지원 (단,총프로젝트비용의30%초과불가)	FEC 100% 지원 (단,AHRC지원금총액의30%초과불가)
운영 기관	UKRI 챌린지 펀드 재원, AHRC 주관 영국정부산업전략(IndustrialStrategy)과연계	AHRC 주관 (창조산업거버넌스위원회·자문그룹감독)
신청 자격	AHRC 지원 자격 있는 영국 연구기관	AHRC 지원 자격 있는 영국 연구기관

33) UK Research and Innovation 홈페이지 참고(https://www.ukri.org/what-we-do/browse-our-areas-of-investment-and-support/creative-industries-clusters-programme/, https://www.ukri.org/opportunity/creative-industries-clusters-round-two-outline-stage/)

	최소2개이상HEI컨소시엄,또는HEI+독립연구기관(IRO)구성필수	(1라운드주관대학은주관기관신청불가,파트너참여는가능)
주요 지원 분야	방송·스크린, 패션·섬유·기술, 데이터·디자인, 애니메이션·비디오게임,디지털스토리텔링,크리에이티브AV	1라운드 미지원 분야 우선 (디자인, 건축, 출판, 광고테크, 음악 등) + AHRC×EPSRC교차분야 (AI,XR,로봇공학·햅틱스등)
심사 절차	공모 후 1년간 선정 과정	①아웃라인 신청 (2026.3 마감) ②전체신청서제출(2026.7마감) ③패널인터뷰(2026.10) ④결과발표(2026.11)
주요 성과 (참고)	5,5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460개이상신생기업·스케일업지원 780개이상신제품·서비스개발 2억7,000만파운드이상공공·민간공동투자유치	진행 예정 (2027~)

*주: 1라운드 총액은 출처에 따라 5,600만·6,100만·8,000만 파운드 등으로 상이하게 표기되는데, 이는 9개 클러스터 핵심 지원액(5,500만), 정책·증거센터·기타 포함 총액(6,100만), 민간 공동투자 포함 전체 규모(8,000만)를 각각 달리 집계한 데 따른 차이임.

〈자료〉 UKRI,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 (2018-2023), UKRI,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round two: outline stage (2026), UKRI,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a new wave (2024), UKRI, Two major UKRI investments continue to boost creative industries (2024), Frontier Economics & BOP Consulting, Evaluation of the CICP (2024), fundsforNGOs, Apply for AHRC's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 (2017), UKRI Clusters invite-only (202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및 추진 활동

○ London&Partners 중심의 투자유치 전문기관 운영

- 런던 시장(Mayor) 직속 기구로서 기업·학생·관광객 유치 및 도시마케팅 전담
- 투자자 발굴 및 매칭, 관련 협회·전문가 연결, 인재·기술자 채용 지원 등 담당
- 각국 비즈니스 협회와 전문가 연결, 네트워킹 이벤트·산업 콘퍼런스·비즈니스 포럼 정례 개최

○ 고성장 부문 중심 투자유치 활동 추진

- 국제 및 국내기업이 투자·무역·성장·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런던 테크 위크(London Tech Week) 매년 개최: 유럽의 선도적 기술 허브로서의 역할 강조

○ 국가 산업전략 연계 투자유치 추진

- 영국 국가 산업전략에 따라 특정 분야 장려금(Sector-Specific Incentive) 제공
- UK Research and Innovation을 통한 국가 차원의 R&D 지원과 연계
- 깨끗한 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에 따른 저탄소 그린테크 산업 인센티브 부여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 서울연구원(2025)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은 글로벌 핀테크 분야 도시 순위(GFCI 34)에서 2위를 기록하며 유럽 최대 핀테크 투자 도시로 자리매김

○ 2018년 기준 핀테크 관련 VC 투자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도시 단위로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런던이 2위 기록

○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Startup Genome 2023)에서 뉴욕과 함께 전 세계 공동 2위 기록

○ 기술 부문이 도시 전체에 58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 파급효과 광범위

2. 네덜란드

□ 산업 기반 및 입지 특성

○ 농업·원예·하이테크·화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형성

- 1990년대 초 클러스터의 개념 최초 채택
- 농업, 원예, 하이테크 등 고성장 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 브레인포트(Brainport) 등 기술 클러스터 조성
- Green Port Noord-Holland, Foodvalley 와 같은 농업, 원예 클러스터 조성

○ 혁신과 R&D 역량[34)]

- 기술 경쟁력 세계 8위이며 AI 시장은 23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연 26.21% 성장 전망
- 양자 분야의 경우 약 11억 3천만 달러 투자하였으며 연간 약 20~30% 성장률 달성
- 메드테크 특허 출원 세계 4위, 생명 공학 6위, 제약 8위를 기록한 높은 특허 활동
-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 캐피털(VC)로 31억 유로를 조달하며, 이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VC 시장

○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 글로벌 경쟁력 지수 67개 국 중 9위, 글로벌 혁신 지수 133개 국 중 8위, 경제자유 지수 184개 국 중 11위 기록(WIPO, 2024)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도[35)]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유럽연합의 공통 법령과 네덜란드 국내법에 기반해 투자 허용
- 외국인 투자 시 별도의 사전 승인 제도, 요건 및 지분 보유 제한이 없는 구조
- 하지만, 최근 ICT, 국방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정부 심사 절차 강화 추세

○ 투자인센티브

- Innovation Box (혁신박스): 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9% 세율 적용(단,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손실은 일반 세율로 과세하거나 외부 기업

34) 미국 국제무역청(ITA) 홈페이지(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netherlands-strategic-technologies) 참고하여 작성.

35)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IemDetail.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uperCd=3&ctgySn=414&lowerCtgySn=&pRegnCd=03&pNatCd=528#) 참고하여 작성.

에 과도하게 위탁한 경우 제한 가능)하며, R&D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R&D 선언서를 발급받은 기업 대상

- WBSO (R&D 세액공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된 인건비, 장비 투자 등 관련 비용 일부를 급여세에서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가 없는 구조
  - 일반 기업: 최초 38만 유로는 36%, 이후 금액 16% 세액공제 (2025년 기준)
  - 스타트업: 최초 38만 유로까지 50% 세액공제 (2025년 기준)
- MIA Vamil (환경설비 투자 인센티브):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으로 네덜란드 기업청(RVO)의 환경설비 목록에 등재된 품목만 가능
  - MIA: 환경 설비 투자금에 대해 최대 45% 추가 세액공제, 자산당 최소 2,500유로의 투자 필요, 연간 기업당 공제 가능한 투자 한도는 최대 2,500만 유로
  - Vamil: 동일한 환경 설비 투자금의 75%를 자유롭게 감가상각
- EIA(에너지설비 투자 세액공제): 관련 설비에 투자한 기업에게 총 투자액의 40%를 추가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RVO에서 발표한 에너지 설비목록 등재되어야 가능
  - 1개 회사 기준 최소 2,500유로, 최대 1억 5,100만 유로까지 인정
- 30% Ruling(외국 인재 비과세 수당): 고급 외국 인력에 대해 총 급여의 최대 30% 비과세 수당으로 지급
  - 최대 적용 기간 5년, 일반 외국 인력의 경우 연간 46,660유로 이상, 30세 미만의 석사 학위 보유자는 35,468유로 이상 급여 요건 충족 필요(2025년 기준)
- Import VAT Reverse Charge(수입 VAT 유예제도):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정기 부가세 신고서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Reverse Charge on Import 제도 제공
  - 네덜란드 내 고정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나 현지 세무대리인을 지정한 외국 기업 신청 가능

3. 싱가포르

□ 산업 기반 및 입지 특성

○ **자본시장 최적화된 금융·서비스 중심 산업 기반**

- 자본이득세 미부과, 낮은 법인세율(17%), 이중과세 협정 체결로 금융·투자 분야 글로벌 기업 집적
- 핀테크, 에듀테크, 그린테크 등 신산업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연구기관·기업·대학 간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 과학기술연구진흥원(A*STAR) 주관의 R&D 프로그램 운영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민간 자본회사 협력을 통한 에듀테크 액셀러레이터(EduSpaze) 운영

○ **동남아 중심의 광역 교통 및 접근성 확보**

- 지리적 제약이 없는 신산업 허브 역할
- 정치·사회적 안정성, 최첨단 통신·교통 인프라 보유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도[36)]

○ **주요 투자인센티브**

- Refundable Investment Credit(RIC): 전략 산업(첨단제조, 반도체, AI 등)에 대해 투자금 최대 50% 세액공제 가능하며 법인세 차감 후 남은 금액 현금 환급 가능
- 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PC) &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DEI): 선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장 기업은 5% 또는 10% 감경세율 적용
- Finance & Treasury Centre (FTC) Incentive: 글로벌 · 지역본부 기능 수행 기업 대상으로 금융 · 재무 관련 수익에 대해 8~10% 수준의 우대 법인세율 적용
- Aircraft Leasing Scheme (ALS) & Aircraft Investment Manager (AIM) Incentive: 항공기 투자관리 서비스 수익에 대해 10% 우대 법인세율 적용

○ **연구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

- Partnerships for Capability Transformation (PACT) Scheme: 공급망 개발·공동혁신·역량 교육·해외진출·사내벤처 5개 파트너십 유형에 대해 비SME 인건비 최대 70%·장비 50%, SME 인건비·소재·전문서비스 최대 70%·장비 50% 비용 지원

---

36) EDM SINGAPORE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https://www.edb.gov.sg/en/incentives-and-programmes/incentives-and-facilitation-programmes.html#:~:text=Learn%20about%20the%20different%20types,government%20subsidies%20to%20tax%20incentives....)

- Research and Innovation Scheme for Companies (RIS(C)): 싱가포르 내 신규 R&D·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3년간 로컬 인력비 60%, 외국인 인력비·장비 비용 30% 지원
- Tech@SG Programme: 고성장 기술기업 핵심 팀원에게 2년간 최대 10명의 취업비자(EP) 발급 보증 및 최초 갱신(최대 3년) 지원
- Tech.Pass: 월 고정급 2만 2,500싱가포르달러 이상·대형 기술기업 5년 이상 경력자에게 2년(+갱신 2년) 복수 경제활동 허용 비자 발급
- Training Grant for Company (TGC): 임직원 신기술·산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비용(해외 연수비·교육생 인건비 포함) 일부 지원

□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및 추진 활동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원스톱 지원
- 국내기업 포함 투자 촉진 정책 제안, 투자환경 개선 자문 등 포괄적 전략 수립

○ GIP(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를 통한 고급 투자자 유치

- 항공우주, 대체에너지, 의료기술,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 투자자 대상 영주권 신청 연계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 서울연구원(2025)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23년 FDI 신뢰지수(Kearney) 상위 10위권(9위)에 진입하며 전년 대비 9단계 상승

○ 글로벌 핀테크 분야 도시 순위(GFCI 34)에서 5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최대 금융산업 유치국 위상 확보

○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Startup Genome 2023)에서 아시아 내 상위권(전 세계 8위) 기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특화 산업 정체성 기반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필요

○ 수원(반도체·AI), 용인(반도체 벨트), 인천(바이오·물류), 대구(모빌리티·로봇) 등 국내 주요 지자체는 지역 고유의 산업 정체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외국인투자 유치의 핵심 근거로 활용

○ 고양특례시는 방송·영상·MICE·헬스케어 등 기존 산업 자산을 재정비하여 콘텐츠·미디어테크 특화 클러스터로 포지셔닝하는 전략 수립 필요

○ GTX-A 개통에 따른 서울 도심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강화를 투자 입지 경쟁력으로 적극 홍보 필요

□ 인센티브 체계의 구체성·예측 가능성 강화 필요

○ 용인(재산세 15년 전액 면제), 인천(국공유지 50년 임대·임대료 감면) 등 국내 선도 지자체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 싱가포르는 전략 산업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후 현금 환급이 가능한 RIC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 유인 체계 마련

○ 업종·투자규모별 인센티브 기준을 수치화한 인센티브 매트릭스 공개 필요

○ 콘텐츠·미디어·MICE 등 고양 특화 업종에 대한 별도 우대 조항 신설 및 R&D 시설 투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장기 감면 조례 정비 필요

□ 원스톱 지원 체계 및 행정 효율화 강화 필요

○ 수원의 세일즈 행정, 대구의 원스톱기업투자센터(전국 최초), 인천의 통합 원스톱 서비스, 싱가포르 EDB의 포괄적 지원 체계 등 주요 사례 모두 전담 조직을 통한 인허가 간소화와 사후관리를 공통적으로 강조

○ 단순 창구 역할을 넘어 투자 검토 단계부터 준공·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는 투자유치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외국인 임직원 정주 여건(국제학교, 의료, 주거) 개선 및 다국어 행정 서비스 제공 병행 필요

□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및 타깃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필요

○ 수원(홍콩 기업 LOI), 인천(영국·미국 MOU 다각화), 대구(실리콘밸리·싱가포르·일본·호주 IR 전개) 등 선도 지자체는 특정 지역 편중 없이 다중 거점 기반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 런던은 시장 직속 전문 투자유치 기관인 London&Partners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마케팅 및 투자자 매칭을 수행

○ 고양특례시는 콘텐츠·MICE 분야 글로벌 전시·박람회(MIPCOM, NAB Show 등)와 연계한 현지 IR 활동 전개 필요

○ 일본·중화권·동남아 콘텐츠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접근 전략 수립 및 지역 내 방송·영상 앵커기관을 활용한 협력사 유치 전략 병행 필요

□ 산학연 협력 기반의 투자 생태계 조성 필요

○ 용인은 관내 6개 대학과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를 운영하고, 인천은 글로벌캠퍼스(IGC)를 통해 외국대학을 직접 유치하는 등 산학연 협력을 투자유치와 직접 연계

○ 영국의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은 대학·기업·연구기관의 컨소시엄 구조로 콘텐츠 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기반으로 활용

○ 고양특례시는 인근 대학(농협대, 동국대, 중부대, 한국항공대 등)과의 산학협력 체계를 외국인투자 유치와 연계하여 지역 내 인재 조달 가능성을 투자 유인으로 제시 필요

○ 중장기적으로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검토 필요

제6장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 추진방안

제6장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 고양특례시의 외국인투자기업 활성화는 단순한 기업 수 확대가 아니라, ① 핵심전략산업 유치 · 재투자 유도, ② 전문인력 확보 · 정착지원, ③ 산업·정주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술잠재성과 생산효율성에서 개선 여지가 크고, 인적 자원 부족이 핵심 제약요인으로 도출

○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되는 전담조직, 원스톱 지원, 사후관리, 산업특화 전략 연계 기반의 투자유치체계 구축 필요

○ 따라서, 고양특례시의 여건에 맞춰 유치전략, 인센티브, 사후관리, 전담체계, 인력매칭, 정주·산업기반을 통합적으로 제안

제2절 세부 추진방안

□ 핵심전략산업 타깃 유치

○ 고양특례시는 전 업종을 포괄하는 방식보다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선별적 유치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고양특례시의 산업구조와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콘텐츠, 바이오, MICE, ICT 연계 서비스, R&D 기능 산업이 우선 유치 대상 가능

○ 기술잠재성이 높은 기업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우선 입주와 R&D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존재

○ 인적 역량이 중요한 기업에는 인력매칭과 정주지원 패키지를 연계하는 방식 고려

○ 산업 다변화를 위해서는 MICE 앵커기업, K-콘텐츠 관련 기업, 바이오·헬스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상담과 맞춤형 IR 추진

□ 잠재 강점국 우선 공략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국별 특성과 산업 적합성을 고려한 타깃형 접근 필요

○ 독일계 강소기업은 자동차부품, 기계, 정밀의료기기, 바이오, 화학 등 고양특례시의 강점 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아 우선 공략 대상으로 검토

○ 일본 자본은 기존 투자기업의 재투자와 신규 진입을 함께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며,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비즈니스 라운드 활성화도 병행 필요

○ 중국 및 동아시아 자본은 도소매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첨단 제조,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분야로의 전환 유도

○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자본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다양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다변화 지원

□ 인센티브 패키지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통적인 법인세 감면 중심보다 비세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법인세 감면의 상대적 효과가 낮아진 만큼, Cash Grant, 장기임대, 무상입주, 정주 여건 지원, R&D 매칭 펀드, 고용보조금 등 실질적 지원 강화

○ 고양특례시는 투자 규모와 산업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방안 검토

○ 인센티브는 단발성 지원보다 투자유치, 정착,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적 유인으로 설계 고려

○ 이를 위해 중장기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 필요

□ 사후관리와 재투자 유도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이후 정착과 재투자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당수가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로 재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투자 유인은 신규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재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증액투자 전담 담당자를 두고, 재투자 기업에는 절차 간소화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등록 이후 휴·폐업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 이탈을 최소화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 고용,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체계 마련

○ 이를 통해 단순한 기업 수 확대보다 장기 존속과 지역 내 정착률 제고를 정책 목표 설정 필요

□ 전문인력 풀과 창업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 필요

○ 동국대 일산캠퍼스, 중부대 고양캠퍼스, 항공대, 농협대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한 인턴십 및 취업매칭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구축 필요

○ 대안으로 경기북부 AI 캠퍼스 연계, 외국어 가능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업 채용 매칭 서비스 운영

○ 외국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형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고양형 TIPS나 성장펀드와 연계 지원

○ 인력 확보와 창업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전담조직과 원스톱 지원

○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행정·법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고양특례시청 내 외국인투자유치 전담부서 또는 글로벌비즈니스 지원조직을 두어 투자신고, 사업자등록, 비자, 외국인등록, 노무·세무 자문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 필요

○ 산업통상부, KOTRA, 경기도와의 연계 핫라인을 구축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정비

○ 외국어 가능 공공행정 전문가를 배치하고, 기업별 1:1 전담 매칭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 고려

○ 정례적인 CEO 포럼과 시장 간담회를 통해 민원과 제도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체계 구축 필요

□ 정주 친화형 거점 조성

○ 외국인 임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친화형 거점 조성 검토

○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신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빌리지 개념의 정주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 필요

○ 외국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다국어 표지, 생활안내, 행정안내 등 정주 친화형 거점 조성 필요

○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확충, 국제진료센터와 의료통역 서비스 강화도 함께 고려

○ 정주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기업의 장기 정착과 재투자를 뒷받침하는 투자유치 인프라

□ MICE 융복합 거점 조성

○ 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MICE 융복합 외국인투자기업 거점 조성

○ 킨텍스, 고양 MICE 육성센터, 경기도, KOTRA 등이 참여하는 유치 TF를 구성하여 MICE 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연계하는 방향 추진 고려

○ 바이오·헬스, K-콘텐츠, 그린·디지털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행사를 정례화하면 기업발굴과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 가능성 상승

○ 킨텍스 제3전시장과의 연계, 전용 입주공간 확보, 우선 입주구역 지정은 MICE 기반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검토

○ 고양특례시는 MICE를 단순한 행사산업이 아니라 투자유치의 접점 산업으로 활용하는 방향 필요

□ 외국인투자지역(FIZ)와 산업거점 조성

○ 외국인투자지역(FIZ) 신규 지정과 산업거점 조성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

○ 일산테크노밸리 또는 일산서구 산업 다각화 거점에 단지형 FIZ 지정을 추진 필요

○ 경기북부에서 FIZ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양특례시의 신규 지정은 산업 분산과 기능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 존재

○ 소형 산업단지 또는 비즈니스 파크 형태의 신규 거점 조성도 검토할 수 있으며, 산학연 협력과 B2B 밸류체인 구축도 함께 고려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간 조달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수단

□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마케팅

○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기업유치 마케팅과 연계하는 방향 추진

○ 전력, 용수, 오폐수 처리시설, 주차시설 등 기업활동 기반시설은 입주 이후보다 입주 이전에 준비 필요

○ 산업유치, 도시계획, 에너지, 환경 부서가 참여하는 통합 TF를 운영하여 사전 설계 단계부터 대응하는 방안 검토

○ GTX-A 개통 효과를 활용한 본사-R&D 분리 입지 마케팅, 연계교통망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도 병행 고려

○ 고양특례시는 좋은 입지를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전략 설계 필요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양연구원(2024.01.19.). 기회발전특구, 고양특례시의 활용 방안 (GYRI 이슈리포트 vol.01).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 2023. 12. 14.).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 2025. 8. 28.)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2. 30.)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 2000.07.31.)

기획재정부(2025.08.14.).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노동부(2008),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방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4), DGFEZ, 美 실리콘밸리 지역 투자유치 IR 나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5), 2025DGFEZ 브로슈어.

대구정책연구원(2024). 신공항시대, 글로벌 도시 대구 추진전략: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0).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정책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2025),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SGI Brief, Vol.33, pp.1-16.

박경서, 이은정(2006). 외국인투자자가 한국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20(2), pp. 73-113.

법무부(2013.07.30.), 외국인투자의 개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통상부(2025). 외국인투자가이드 2025.

삼정KPMG(2023),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서울연구원(2025).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해외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pp. 1-91.

수원시정연구원(2025). 수원시 해외기업(법인)유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 SRI Brief, 제 103호, pp. 1-16.

용인시(2018).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용인시정연구원(20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외교부(2015),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논의: 포용적 글로벌 가치사슬.

이가은, 인령, 최영준(2019), 외국인 직접 투자가 GVC 참여도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44(5), 107-125.

인천광역시(2026). 2026 인천투자유치가이드북(국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5).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시행 2004. 06. 14.)

주OECD대한민국대표부(2014.02.22.).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주OECD대한민국대표부(2015.08.28.). OECD FACTBOOK 2014: 외국인 직접투자.

IFEZ홍보센터(2025.03.11.). IFEZ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OECD(2025),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023.

KOTRA(2025),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인설립가이드.

[해외문헌]

UNCTAD(2024), *World Investment Report 2024*.

Frontier Economics & BOP Consulting. (2024). *Evaluation of the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 final evaluation report*.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WIPO(2024), *Global Innovation Index 2024*.

[관련기사]

경기일보(2024.03.04.). 인천경제청, 바이오 ·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고도화 추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304580242(접속일 2026.05.13.)

경북일보(2025.11.10.). 대구,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753억 공장 증설 투자유치. https://v.daum.net/v/20251110171556290(접속일 2026.05.13.)

뉴스티앤티(2026.01.21.). 인천 청라에 문화 · 관광 복합단지 조성...미 케슬러 컬렉션과 MOU.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655(접속일 2026.05.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3.12.14.),「싱가포르 SWITCH 2023」연계 투자유치 IR 활동 전개. https://www.dgfez.go.kr/ko/page.php?pageNo=6&cmd=258&bod_uid=7328&mnu_uid=1548&srchBgpUid=-1&srchVoteType=-1&srchEnable=1&srchSDate=&src

hEDate=&srchColumn=&srchKeyword=(접속일 2026.05.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5.02.05.), DGFEZ,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으로 성과 창출에 올인. https://www.dgfez.go.kr/page.php?pageNo=2&cmd=258&bod_uid=8485&mnu_uid=320&srchBgpUid=-1&srchVoteType=-1&srchEnable=1&srchSDate=&srchEDate=&srchColumn=&srchKeyword=(접속일 2026.05.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5.07.02.), 日 G홀딩스 '진격의 거인',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상륙. https://www.dgfez.go.kr/page.php?pageNo=4&cmd=258&bod_uid=8239&mnu_uid=320&srchBgpUid=-1&srchVoteType=-1&srchEnable=1&srchSDate=&srchEDate=&srchColumn=&srchKeyword=(접속일 2026.05.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6.03.29.), DGFEZ, 주한 일본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 개최. https://www.dgfez.go.kr/page.php?pageNo=1&cmd=258&bod_uid=8525&mnu_uid=320&srchBgpUid=-1&srchVoteType=-1&srchEnable=1&srchSDate=&srchEDate=&srchColumn=&srchKeyword=(접속일 2026.05.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2026.04.0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호주기업 유치 위해 駐韓호주상공회의소와 맞손. https://www.dgfez.go.kr/page.php?pageNo=1&cmd=258&bod_uid=8531&mnu_uid=320&srchBgpUid=-1&srchVoteType=-1&srchEnable=1&srchSDate=&srchEDate=&srchColumn=&srchKeyword=(접속일 2026.05.13.).

대구일보(2024.10.13.). "민선 8기 대구시 투자유치 점검해보니...투자협약 후 투자이행 착착".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193)(접속일 2026.05.13.)

대구일보(2025.11.13.). DGFEZ, 싱가포르서 투자유치 IR 전개...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나서.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083(접속일 2026.05.13.)

다문화교육포털(2024.07.07.), 고양시, 중첩규제 족쇄 풀고 글로벌 자족도시 날개 단다. https://www.edu4mc.or.kr/guide/news/view.html?newsitemid=01400501.20240707170445001(접속일 2025.09.02.)

로컬투데이(2024.10.13.). 이재관 '세종시, 지난 5년 외국인 투자 0.2% 전국 최하위'.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74(접속일 2025.09.02.)

용인특례시(2022.09.18.).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로드맵 수립 -2026년까지 소·부·장 기업 집결한 산단 추가 조성해 '벨트'완성키로-.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0&q_bbscttSn=20220919090610075(접속일 2

026.05.13.)

용인특례시(2022.04.27.).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용인시에 R&D센터 개관.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0&q_bbscttSn=20220427132153514(접속일 2026.05.13.)

용인특례시(2024.10.1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코리아 '용인캠퍼스' 개관 축하.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0&q_bbscttSn=20241010105832512(접속일 2026.05.13.)

아시아경제(2024.12.18.), 고양시,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1817560658655(접속일 2025.09.02.)

아주경제(2024.02.07.). 대구시 1300억원 투자받아, 워렌버핏이 소유한 IMC엔드밀에 투자해. https://www.ajunews.com/view/20240207143830759(접속일 2026.05.13.)

인천광역시(2022.02.14.). "IFEZ, 핵심전략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4132900(접속일 2026.05.13.)

인천광역시(2024.02.23.). 인천시, 오스테드와 해상풍력산업 기반 구축에 협력.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9360777(접속일 2026.05.13.)

인천광역시(2024.06.27.). 인천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0215708&curPage=271(접속일 2026.05.13.)

인천광역시(2025.02.23.). 인천시, 톈진시와 경제협력 및 우호 강화 방안 논의.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1865782&curPage=255(접속일 2026.05.13.)

인천뉴스(2024.12.30.). 인천경제청, 올해 IFEZ 외국인직접투자 6억 달러 돌파.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815(접속일 2025.09.02.)

인천일보(2024.07.14.). 글로벌 자족 도시 고양.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7631(접속일 2025.09.02.)

인천경제자유구역(2024.03.19.).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전략 통해 올해 투자유치 6억달러 달성에 적극 매진. https://www.ifez.go.kr/main/pst/view.do?pst_id=noti03&pst_sn=666

166&search=UlhVRi8zWlVmcHp4VGRHK0g0TDE4VW9Ba1B1a0hUd3V4dHVaemRPZm9DWT0%3D(접속일 2026.05.13.)

인천경제자유구역(2025.10.13.). 인천경제청, 2025년 3분기 FDI 92.3%(5억5350만 달러)도달. https://www.ifez.go.kr/main/pst/view.do?pst_id=noti03&pst_sn=668650&search=UlhVRi8zWlVmcHp4VGRHK0g0TDE4VW9Ba1B1a0hUd3V4dHVaemRPZm9DWT0=(접속일 2026.05.13.)

인천경제자유구역(2025.10.28.). 인천경제청,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https://www.ifez.go.kr/main/pst/view.do?pst_id=noti03&pst_sn=668732(접속일 2026.05.13.)

인천경제자유구역(2025.10.30.). 인천경제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 참가… 바이오·반도체·K-콘랜드 투자유치 활성화 총력. https://www.ifez.go.kr/main/pst/view.do?pst_id=noti03&pst_sn=668745&search=(접속일 2026.05.13.)

인천경제자유구역(2025.12.18.). 2025, IGC 산학협력 커넥트위크 개최. https://www.ifez.go.kr/main/pst/view.do?pst_id=noti03&pst_sn=668943&search=OHNWWlFLV1BRbjVGK3hhWTVHQXRSdmQySU1XVWFTbnpBcDZtb2VRajVmWm5mUHN5S0VTM2VFckpZWHUvdTcvYTFsTC9Rc2pHV0o4NnRrQ2txblpoWnlRWXk5TzM2ajlEK1hmSStEeitHdnM9(접속일 2026.05.13.)

인천경제자유구역(2026.02.26.). 유정복 시장, 송도에 英 케임브리지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협력. https://www.ifez.go.kr/main/pst/view.do?pst_id=noti03&pst_sn=669165&search=OHNWWlFLV1BRbjVGK3hhWTVHQXRSZ012dHJvYTVoNUNCWmttdy9JQUxoTERPeHlWcWJOSmRVbjUzdlRvQ3VNTnB1NU1UdGlaVEh4bHhnZFIyQ3lpaIE9PQ==(접속일 2026.05.13.)

인천투데이(2026.02.26.). 인천 송도 '아시아 케임브리지'로 육성…바이오 협력 닻 올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732(접속일 2026.05.13.)

일요서울(2024.09.10.). 고양경자구역, 외국인 투자수요·학교유치가 성패와 직결, 경자구역 지정 평가기준 변경.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739(접속일 2025.09.02.)

중앙일보(2024.07.15.). 고양 경제자유구역 1766만㎡, 해외기업 매력 투자처 될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3195(접속일 2025.09.02.)

프레시안(2025.07.14.). 인천시-케슬러컬렉션, 인천경자구역 투자 MOU 체결. https://www.pressi

an.com/pages/articles/20250714110939278 53(접속일 2026.05.13.)
한국경제(2017.07.10.).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 꺼리는 이유 너무 많아요.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7070718791(접속일 2025.09.02.)
헤럴드경제(2022.08.11.). 대구시, 원스톱 투자지원체계 구축...기업 투자시 2개월내 착공.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933435(접속일 2025.09.02.)
Global epic(2025.03.12.). 인천경제청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투자유치 정책간담회 개최.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31209145515716e1e092a28_29(접속일 2025.09.02.)
TEL(2025.09.04.).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용인사무소 기공식 개최 - 2027년 1월 준공 예정…사무동과 R&D 센터 등으로 구성. https://www.tel.com/about/kr/news/2025/20250904_001.html(접속일 2026.05.13.)

[참고 사이트]

https://dgfez.go.kr/
https://www.bjfez.go.kr/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69/web.do
https://immikorea.com/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eco/eco02/eco02_09/eco02_09_10.jsp
https://www.ifez.go.kr/investment/main.do
https://www.incheon.go.kr/eco/ECO010409/417.
https://www.ifez.go.kr/main/intro/stats/fdi.do
https://www.daegu.go.kr/eco/index.do?menu_id=00001126&servletPath=%2Feco
https://dgfez.go.kr/investment/page.php?mnu_uid=1740&
https://www.dgond.kr/
https://www.daegu.go.kr/eco/index.do?menu_id=00001142
https://ombudsman.kotra.or.kr/dg-kr/cntnts/i-1014/web.do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0&q_bbscttSn=20220919090610075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
https://solt.co.uk/theatre-tax-relief/
https://www.myriadassociates.com/resources/news/2026/creative-sector-tax-reliefs-review/
https://www.gov.uk/guidance/enterprise-zones
https://www.ukri.org/opportunit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5942/
https://www.ukri.org/what-we-do/browse-our-areas-of-investment-and-support/creative-industries-clusters-programme/
https://www.ukri.org/opportunity/creative-industries-clusters-round-two-outline-stage/
https://www.ukri.org/blog/creative-industries-clusters-a-new-wave/
https://www.ukri.org/news/two-major-ukri-investments-continue-to-boost-creative-industries/
https://www2.fundsforngos.org/latest-funds-for-ngos/apply-for-ahrcs-creative-industries-clusters-programme/
https://www.ukri.org/opportunity/creative-industries-clusters-programme-invite-only/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netherlands-strategic-technologies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llenge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Goyang Special City

Yong Deok Kim[1], Jong Yoon Park[2], Ji Yun Kim[3], Gi Yeop Lee[4]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competitivenes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FIEs) in Goyang Special City and explores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s of 2025, there were 19,628 registered FIEs in Korea, with more than 80%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dicating a strong regional concentration of foreign investment. Goyang Special City hosts 170 FIEs, ranking first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eleventh in Gyeonggi Province overall. Although the city maintains a leading position within northern Gyeonggi, its growth remains limited compared to major cities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Goyang's FIEs is heavily concentrated in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60.6%), while manufacturing and R&D-related industries account for relatively small shares. A DNA-based competitiveness assessment reveals that technological potential and production efficiency remain areas requiring

1) Director of Economic Research Department(Director of Future Strategy Data Cent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2) Associate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3)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4)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improvement, whereas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represent relative strengths. In addition, the shortage of highly skilled human resources was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constraint on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demonstrates that successful investment attrac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industrial specialization,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s, one-stop administrative services, and effective post-investment manag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Goyang Special City, including strategic investment attraction focused on key industries such as content, bio, and MICE, strengthened investor support systems, talent attraction and retention measures,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and residential infrastructure. These policy efforts ma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city's investment competitiveness and foster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정책 26-03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주요 과제

발 행 일 2026년 05월 31일
저 자 김용덕, 박종윤, 김지윤
발 행 인 김현호
발 행 처 고양연구원
주 소 104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전 화 031-8073-8341
홈 페 이 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24069-19-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oPubWorld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주요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llenge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Goyang Special City

고양연구원
GOYANG CITY INSTITUTE